

MAXIM

Wilson
US OPEN

Anna KOURNIKOVA

사상 최고의 섹시 테니스 스타
안나 쿠르니코바가 군대에 갔다

OUTDOOR

스포츠 클라이밍
마라토너의 기어, 슈즈

G20 정상회담 SPECIAL

건강상식 기말고사
여자 생기는 관상
급시니스트 카툰

11월 특집 화보
HOT GIRL
ON HOT GAME

소는 누가 키워?
박영진

SOUTH KOREA

STREET DIVA
임정희

idol 걸스데이

침대 위 멘트
DIRTY TALK
IN BED

KISS방 궁금중

오덕이라면 알 거야
시모카와 미쿠니



독자모델 콘테스트

생쥐 초밥 세트
섹시한 팔 만들기

NOVEMBER 2010



9 772093 422007

ISSN 2093-422X

www.maximkorea.net





.....
본니히트는 일반 면직물 사용된 제품보다 20% 더 따뜻합니다. 특히 중위 중년 본니히트의 온색 직 패한이
계절로 다시 반사할 안개 어디까지도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뛰어난 통기성과 후속 기능으로 과도한
발열을 방지해 선명나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www.columbiakorea.co.kr를 방문하여 각함의
주위에서 여유도어를 즐기는 이들에게 영감을 7일 따뜻한 재깃을 만나주세요!



OMNI-HEAT

옴니히트 : 20% 더 따뜻하게!

은색점이 열을 반사에 극한 추위에서도 따뜻함을 유지

Columbia
THE GREATER OUTDOORS





KENZO



MAXIM은...



MAXIM, 한국 최초로 접지 콘텐츠를
전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화
아이폰 APP 누적 다운로드 25만 8,828건!
(2010년 10월 10일 애플시 리포트)

2010년 12월, MAXIM 아이폰 APP이 또다시 혁신을 준비합니다.

MAXIM 전 월호를 한 APP 속으로 통합!
MAXIM 무료 과월호, 무료 화보가 수시로 업데이트!

잡지의 미래다.



2011년 태블릿 PC 버전, 안드로이드 OS 버전

MAXIM APP 출시 예정

MAXIM Features

NOVEMBER 2010

92

안나 쿠르니코바

테니스계의 섹스 심볼 안나 쿠르니코바
이렇게 완벽한 그녀는 혹시 러시아
스파이가 아닐까?

32 LOVE:

DIRTY TALK

발 없는 말이 천마를 지배한다.
낮말은 집어치우고 일단 밤말
부터 조심하자. 그리고 그녀의
밤말에는 더욱 귀 기울이자.

44 GIRL

NEXT DOOR

MAXIM의 이리피운 여성 독자들
렌즈에 담았다. 2010 MAXIM
독자 모델 콘테스트!

56 MAXIM INDIA

인도에서 들 건너온 예쁜이
마두리 바티차라. 우린 카레보
다 당선이 좋아요! 나마스떼!

90 ICON: 김창환

90년대를 주름잡은
마이더스의 손

98 KISS ME

MAXIM 매디타가 거리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키스왕을
대뤼었다. 궁금한 것은 못 참아

104 MAXIM

BUSINESS:

MONEY & ITEMS

신여시대, 10X, 20X, 30X
꽃아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녀들을 정말로 소유하는 법을
알려주어. 역시 돈이 최고! 100만
돈 이야기 나온 김에 질러 보자.
멋진 비즈니스 아이템!

108 Anti Hero

카디건 공작

썩썩한 늦가을, 매관매직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19세기
영국, 매관매직으로 육군 대령
까지 오른 매관매직의 탈안들을
소개한다. 매~직, 매직, 매직

112 오, 나의 여신님!

MAXIM이 알려주는 '진짜'
여신 포시는 별

126 G20 정상

세계 20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
인다. 누가 가장 정상인지 한
번 보자!



11월 1일 남자의 날



FX 남자의 날 행동강령

- 제 1조 남자들에게 TV 리모콘을 양보하라!
- 제 2조 여자들이여 가방은 본인이 들어라!
- 제 3조 내 키보다 높은 하이힐은 신지마라!
- 제 4조 오늘은 나없이 혼자 귀가하라!

서명 김기남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channel Sscreen FocusN cinef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Departments



118 입정희

거리의 디바가 MAXIM을 찾았다. 목소리만큼이나 매력적인 그녀의 모습에 당신은 꼭 빠지게 될 거다. 아니라고? 그게 진짜일리 없어!

12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1권

작가/ 굿나이스트

주연/ 늦가을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MAXIM 편집부 일동

20 CIRCUS MAXIMUS

취·꽂동이 금방어로 만든 천하제일 일품 요리. 여친 생기는 관심, 알기 쉬운 아동 레이블, 서울 남산 일대에 파묻은 타입업술 속 별난 물건, 골 때리는 책 제목, 사랑스런 여친과 무시무시한 장가매매문의 차이점, 불안 장애, 발 마사지 해주는 법, 잘못된 건강 상식, 강한 팔뚝 만드는 피트니스

30 24 HOURS TO LIVE

진짜 한국 남자 박영진. 그가 '쇼나 키워'라고 말한 이유는?

40 MAXIM SPORTS TIMES

이번 달엔 야구 소식을 한 번 꺼없이 봤다.

47 RATED

엄지원의 새 영화 <불량남녀>, 잉여 SF <불청객>의 잉여 감독 이용일, 불안한 신작 영화, 허반기 신작 미드, 백선소설 <영웅 본색>과 <무적자>, 낱말 까개 만드는 종족 게임 <문명 5>, 동방신기가 해쳐 모여 만든 JKL 오역의 여신 시모키와 미쿠니

58 MOTOR

2천만 원 중반대의 수입차 대결 푸조 vs 스마트
상향력의 완성, MINI의 브랜드 이야기

68 STUFF

당신을 미치게 할 게임기와 미치도록 석사한 모델과의 조우
달리기를 위한 최첨단 마라톤 거어, 러너를 위한 운동화

80 GIRLS DAY

"걸스데이=남" 을 외치게 할 꽃같은 신인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가 왔다!

115 IN DA CLUB

서울에서 가장 핫한 파티를 여는 그곳. 이번엔 자축파티대

130 STYLE

균벌자도 한발만할 새로운 스타일의 워커, 먹여주는 스타일과 먹여야할 보양식, 수분 가득한 화장품, 10분 만에 피부 미남 되는 시술 체험기



80



79



68



131



42

MP3 FOLDER SEARCH

RELOOP/EXIT

CALL



MASTER TEMPO



PLAY/PAUSE



TEMPO



VINYL SPEED ADJUST

TOUCH/BRAKE

RELEASE/START

REV

FWD

EXPECT THE UNEXPECTED

J&B



MAXIM

SOUTH KOREA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예성

전무이사 김광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해진 / 이사 소상벽

FEATURE EDITORIAL Team

김민애 ny@maximkorea.net 김상현 psycho@maximkorea.net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유승진 sm@maximkorea.net
이영희 yb@maximkorea.net

FASHION EDITORIAL Team

고경희 kko@maximkorea.net 권해진 jim@maximkorea.net
조정진 jj@maximkorea.net

EDITORIAL DESIGN Team

이은혁 eastlocust@maximkorea.net 장미연 Berryme@maximkorea.net
김지민 dditoll@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벽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장중국 jk@maximkorea.net
김도원 146@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잔우민 wosin@maximkorea.net
CRM/ FINANCE PLANNING Manager 최정영 jy@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진 sm@maximkorea.net
홍승희 soumata@maximkorea.net

고영 신성정 kshin0111@daum.net

WEB SERVICE 도현 / IT Director 서정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ARC STUDIO

FILM MAKING Jin Wook

FINANCIAL CONSULTANT

송경화계법민 / Accountant 김광록 Consultant 조진아

인쇄 · 인쇄배쇄 / 인쇄인 유상근 인쇄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1D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주)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0년 1월호 등록번호 / 등록일자 2009년 03월 30일 / 등록번호 마로 라-00196

본지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문의 02-323-1182

가타 문의 jy@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South Korea는 세계 20개국 편집부에서 발행되고 36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 주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얼피미디어 그룹은 2009년 1월 2일부로 대한민국의 (P)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P)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급,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얼피미디어 그룹과 와이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얼피미디어 그룹에 귀속되며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0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ALPHA

MEDIA GROUP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ISK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STEVE MINNITI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EXPECT
THE
UNEXPECTED

J&B

MAXIM INSIDE

MAXIMI 우리나라에서 창간한 지 8년이 지났다. 네 해째 MAXIM 에디터로 일할 수 있던 것은 큰 행운이자 즐거움이다. 세상천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다.

어려움도 있었다. 국내 글자의 접지사가 문을 닫는 힘든 시기에 심지어 MAXIM은 발행사가 바뀌면서 에디터가 직장을 옮기는 해프닝도, 발행을 둘러싼 긴 법정 싸움도 치렀다. 지난 몇 달간 MAXIM은 독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같은 이름의 다른 두 잡지가 가판대에 진열되는 추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서서 괴롭고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제 사태는 정리되었다. 다행이다. 한편 마음이 복잡하다. 상표권 침해로 법원의 제재조치를 받은 그 업체엔 한때 MAXIM의 동료로 일했던 사람들도 몇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MAXIM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을 독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올린다.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MAXIM을 응원한 독자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보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뿐이란 걸 잘 알고 있다. 나와 MAXIM 편집부의 모든 동료들도 말이다.

얼마 전 대학생 때 처음 MAXIM을 보기 시작했다는 독자가 애 이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축하한다. 그간 MAXIMI 설파한 연애와 합궁의 교리가 이제야 결실을 맺나보다. 애기 이빠가 원한다면 아기 양모 1년간 책을 보내겠다. MAXIM을 교재 삼아 한글을 익히면 아기가 첫 말문을 뚝 때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다. MAXIM이 즐겨 쓰는 소박하고 친근한 용어, 예를 들어 섹시, 핫, 화끈, 후끈, 벌떡, 하얏...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MAXIMI 한 줄기 위리가 되는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오늘도 일용할 아식 치머머가며 밤낮없이 뿜 것을 다짐한다. 분발하겠다. 양모! 또 득남 득녀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 다음 달에도 다시 만나오. 제발!

에디터 이영비 *이영비*

편지투 애들애
지 밥은 먹고 해야지



WANTED



한 에디터는 촬영장에서 가수 임정희를 처음 본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 다리를 사진에 담지 않으면 찬밥을 받겠구나'



스타의 사진이 들어간 폴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어?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해라

- 1 MAXIM 11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었던 기사를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미투데이)에 MAXIM 11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 4 [블로그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전을 적은 메일]을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낸다.

당첨자는 MAXIM 1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연 (대조영)을 보다 흥수한테서 받았다는 인증을 독자에게 스타



Drift Your Soul SPIRRA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드쉽

스피라는 미드쉽 엔진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쉽이란 엔진과 변속기가 차량의 중간에 탑재되어
 있어 엔진의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게 합니다.
 높은 탄성성과 세밀한 컨트롤 및 민첩한 반응으로
 강동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미드쉽 레이아웃의 채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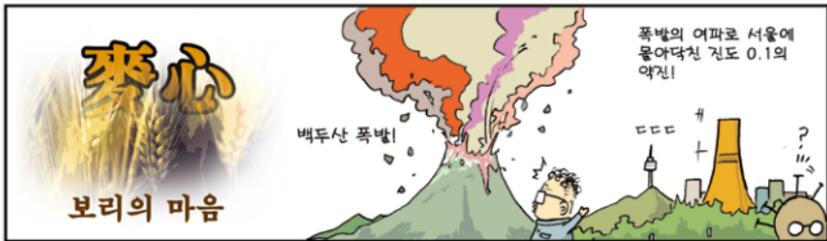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트윈-브록 구조가 아닌,
 세로 4개의 스페이스프레임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좌우 승차 및 비틀림 강성이 뛰어나
 정밀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카본 바디

스피라 공학팀의 핵심인 세로 카본 프레임입니다.
 카본 프레임은 탄소섬유를 거칠거칠 질감을
 우주 항공 기술에 최초로 사용하는 신소재입니다.
 낮은 중량에 비해 강도, 내충격성, 내열성이 뛰어나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삼 9800원 모란토건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10주년 기념 앵갈공연



Special Event

삼삼오오 직장인 할인!!
(평일공연 R석 4만원, 3인 이상시)

10년의 깊이를 간직한 명품연극 영화 <왕의 남자> 원작 연극 '이爾'

2010.11.4(목)~12.5(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작/연출_김태웅 | 배우_전수환, 김희하, 정태우, 정원영, 이승훈, 문정수, 하지혜 외 | 제작_극단우인 | 기획_(주)오디뮤지컬컴퍼니
주관_(주)오디마케팅컴퍼니 | 예매_인터파크 1588-1555 | 오픈리뷰 1588-5212 www.openreview.co.kr | 문의_오픈리뷰 1588-5212

Le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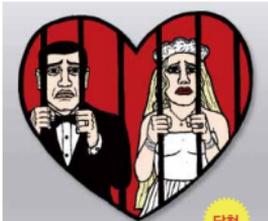
아. 11월 연말 카를질을 위한 마지막 기회.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



새통

자나가다 새통을 맞을 뻔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 좀 풀어주세요. -BFD TOLET
저의 기분부터 풀어주세요! MAXIM 빌딩 옆 건물에서 거대한 녹대로 추정되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끼가 낫이고 밟히고 만날 것어렵니다. 게다가 아주 사람 통만 한 굵은 번을 MAXIM 건물 뒤 화단에 질러놓고 씹니다. 그뿐입니까? 유승민 에디터는 아주 오래전 책상에 올려둔 빔을 허얇게 있고 있다가 갑자기 빔이 터지면서 하얀 일광이 쏟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꾸물꾸물 기어가는 구더기 여러 마리가 키보드 아래와 모니터 주변을 기어다녔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일광에는 구더기 일이었고요. 쫄꺨

리며 구더기를 소각하는 그 녀석을 편집부 전원이 모여 마녀사냥을 하듯 소각하러다 참았습니다 (아래 사진). 게다가 김민혜 에디터는 '트위스트드 쿡(u.20)' 코너 때문이라며 자기 집에 바퀴벌레와 핏뚱이를 진득 모아놓고 삽니다. 아직도 새통 따



당첨

농담인 줄 알았는데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녀는 이해심도 많고, 자상하고, 경제 관념도 뚜렷하고, 능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꿈이 집에서 살림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것도 보통 주부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들 두 부자집 사모님이 되어 살림하겠다고네요. 회사 권두고 살림하게 해달라고. 자꾸 저를 졸라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라네요. 전 어떻게 하나요? 쟁 돌이 같이 유지컬 보고 싶어요^^ 유지컬 티켓 부탁드려요! -lony/725

처음엔 둘 사이가 무척이나 심각한 줄 알고 평소와 달리 인상까지 쓰면서 lony/725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주얼 서스펙트)보다 더 큰 반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살림만 하고 싶어 하는 여자친구가 걱정이라며 당장 헤어질 기세로 글까지 써놓고 같이 유지컬 보고 싶으니 티켓을 내놓으라니요. 이런 경우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 글 초반에 늘어놓은 여자친구 자랑도 보기 안 좋네요! 사무실에 앉아 남의 편지를 진지하게 읽고 고민했던 저희는 뭐죠? 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죠? 하지만 유지컬 티켓은 드리겠습니다. 질생긴 배우들이 특

그런데 사이즈의 여친

늘 키가 180cm 이하면! 여자만 만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72cm의 통다리 여친이 생겼어요. 참고로 전 177cm, 몸무게는 70g입니다. 얼마 전 응용을 했는데 속강함이 잘 안 맞더라고요. 진짠한 호수에서 노를 젓는 기분이랄까. 여친의 그곳은 정말 그런데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끝내긴 했는데.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도와주세요. -manvelius
뭇나 뱃사공아. 사공이 어찌 호수뱃을 하는가. 노 젓는 일이 고고 수우뱃 뱃사공 일이 재미없지 않잖나.



당첨

LIVE CONCERT

BLANK⁵ SPACE 와 함께 하는

라이브열전

IN 대학로

2010.11~2011.01

11월 LINE-UP

- 크라잉넛 11.5(금)~11.7(일)
- 인디뮤직열전 11.9(화)~11.14(일)
- 장필순 11.16(화)~11.18(목)
- 김광진 11.19(금)~11.21(일)
- 동물원 11.23(화)~11.25(목)
- 한영애 11.26(금)~11.28(일)

인디뮤직열전 참가 TEAM

여성싱어송라이터_예은 · 시와 · 이아린-11월 9일(일)
 신인 쇼케이스_원빈차, 게오르 오우, 벨레플러이, GATE FLOWERS-11월 10일(수)
 FUNK_펄키프릭부스더 · 수미아라 언 몬스루베르 + feat. guest 김명길(8월31-11월 11일(목))
 3호선 친구들_3호선버디(플러이 · 휘루 · 9와 숫자들 (2010 : 09/11(목))-11월 12일(금))
 서울전자음악단 · 알렉시이스프르세스-11월 13일(토)
 록대 new wave_일계물 · 골수소년 · 코인포키보이즈 · 벨로스터즈-11월 14일(일)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1관**

평일 8시 / 토요일 6시 / 일요일 5시

제작 (주)이다, (주)엔터테인먼트, (주)아카스타 협찬 BLANK⁵ SPACE 후원 **edm**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공연정보 www.e-eda.com

www.theatergroupeda.com Twitter @liveconcertEDA

문의 02) 762 0010

edm 라이브열전



공연제작 (주)이다(www.theatergroupeda.com) 후원 (주)엔터테인먼트(www.entertainent.com) 협찬 BLANK⁵ SPACE 후원 edm(www.edm.com) 예매 인터파크(www.interpark.com) 공연정보 www.e-eda.com
 대학로 1관 (주)이다(www.theatergroupeda.com) 공연정보 www.e-eda.com 예매 인터파크(www.interpark.com) 공연정보 www.e-eda.com 예매 인터파크(www.interpark.com) 공연정보 www.e-eda.com

미운 후배

학교 후배가 자꾸 개깁니다. 원래 제 말이면 죽는 시늉이라도 하던 녀석이 말입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죠? -롯데아일랜드
이유,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영미 에디터가 후배 직원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디자인_장지영

Call Send voicemail Send Files

This chat is off the record [Learn more](#) [Cancel](#)

디자인_장지영
광고예요

디자인_장지영: 글썽거 노보

디자인_장지영
이 캡시커가 왜! 안자겨죽

Young
해님

Sent at 5:42 PM on Saturday

고객 만족

MAXM 에디터분들께 물겠시 고객 만족팀 최인영 주임은 맞 사이오? 램프의 지미를 만나면 최 주임의 나이를 물어볼 예정이요. -Talkday

문자를 자신이야?



지금 최인영 주임이 신혼여행을 떠난 관계로 그녀의 나이를 알려줄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편집부는 귀뚜나 처녀 총각들이 물어오르는 욕구를 참아

가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최인영 주임은 지금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나서 개소금질을 왕창 즐기고 있답니다. 최인영 주임의 나이를 확 공개하고 싶지만, 그녀가 신물을 꼭 사오겠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 여기서 그만.

저 이상한 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MAXM 구독자 조인희입니다. 현재 저는 신혼여행에서 대학생 홍보 대사를 하고 있으며 MAXM에 신혼여행을 홍보하고 싶어요. 저 이상한 놈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학생이라 생각해주세요. 취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자 편지 꼭 읽어주세요. 은행에 취직하면 MAXM 제테크는 제가 맡아 드릴 게요 약속 마지막으로 신혼여행 파이팅! -조인희

최희의 제테크를 알아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특정 은행 홍보를 해드릴 수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광고' 라고 부릅니다. 음, MAXM의 광고 단가는... 하하하. 광고 문안은 070-4010-9041로 해주세요. 편집부 명칭이 에디터는 숫자 개름이 없어서 한 글자 당 가격을 계산해서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혼여행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견이겠지요? 어서 광고를 걸어주세요.



옥수수를 즐테니, 광고를 내놓으시오

MAXIM ANXIETY



MAXIM은 불안하다

이번 달 모든 스태프가 머리를 맞고 스스로의 정신 상태를 체크해보았어요. (p.36 불안장애 기사 참조). 결과는 참담했다. 아, 이 머리를 뚫어줄 수도 없거야? 제 답수는요.

MAXIM SCORE

평균점 23점/63점 만점

관찰과 개인이 필요한 수준이다. 관찰과 개인은 고기와 연애질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다.

Q. 마감의 생지옥을 제외하고, 당상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여주 안은 그의 장수)

★TOP 5

김진욱 대리 (68점)-여주안군의 장수
정지현 디자이너 (28점)-변비
이영미 에디터 (26점)-랑할 놈의 가을 모기
유승민 에디터 (20점)-뽕마리랑 뽕
김상현 에디터 (18점)-말뚱한 공간

★WINNERS

고경희 에디터 (67점)-공복
이은학 디자이너 (62점)-토끼 없을 때
김종국 대리 (65점)-사정
홍승희 대리 (17점)-여주의 눈물

WANTED!

독자 사연과 사진 응모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14천원 상당의 (지필 앤 하이드) 공인택배 예매권 한장을 선물로 증정한다.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당신의 사장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 못 받기밖에 더하냐? 매일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영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당신 연상도 보고 싶다

MAXM을 탐독하는 사진을 보내래! 수업 중 선생님에게 보란 듯이 딱 해나 MAXM을 책상에 올려놓는 학생 용자는 이미 나왔으니 더 못하고 격한 상황에서 MAXM을 보는 용자의 도전을 기다리겠다.

사진 올린 블로그나 홈페이지 주소(URL) 사진 내용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내면 선물을 차치할 수 있다.

MAXIM TWITTER



팔로워인 살 길이다!

따라 와

개나 소나 다 한다는 트위터. 당연히 MAXM도 한다. 팔로워라면 실시간으로 MAXM 홍보 촬영 현장을 공개하고, 에디터가 인터넷 부 현장을 바로 트위터에 다 올 MAXM에 등장할 인물을 미리 볼 수 있다. 한 달 내내 친선공하며 다음 호를 기다리다 지친 당신은 이제 우릴 볼 김이 할 수 있네! 게다가 아무 때나 딱치는 트위터 발(發) 랜덤 선물 이벤트도 당신을 기다린다. MAXIM KOREA의 공식 트위터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twitter.com/MAXIMKOREA

FX
남자의 모든 것

UFC

UFC 양동이선수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FX 진정한
UFC를 깨우다!

tcast

Echannel



SCREEN



cinema



FOX 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반수부장 기원 天下第一一品料理

CIRCUS

곰들이 주먹밥

동통한 허벅지에 시크한 두상, 탄력 있는 몸매의 인터넷 스타 곰들이는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며 '황금빛 악마'라고도 불린다. '매뚜기는 정력에 좋다는데, 매뚜기과인 이놈도 혹시?' 라는 의문을 품기엔 당신들은 이 놈을 너무 마워하고 있다.

이놈의 정확한 이름은 '곰들이'다. 인터넷 구전 가요 '곰들이 송'에서는 곰들이가 '알고 보면 나도 귀요미'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 있다. 곰들이는 죽은 벌레를 먹는 일종의 청소와 벌레다. 당신처럼 세균을 옮길 위험은 있지만 당신과 달리 청소를 한다. 멋지지 않나!

이 멋진 놈 한번 먹어볼까? 앞서 디스커버리 채널의 <Man vs. Wild>란 프로그램에서 배어 그릴스 형아가 곰들이를 사식한 적이 있다. 이미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그에게 곰들이는 그저 귀중한 단백질 덩어리



곰봉어 초밥

1930년대부터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 대학교 학생들은 용양과 명칭함을 과시하기 위해 앞다투어 곰봉어 많이 먹기 경쟁을 벌였다. 가장 많이 먹은 놈은 한자리에서 300마리까지 해치웠다. 이 전통은 소중히 이어져 지금도 양귀족들은 담력을 과시하기 위해 곰봉어를 삼킨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자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곰봉어는 최대 1500리다. 그 이상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 즉 1500리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겠지?). 1500리까지만 '내장 야생' 속에서 버글버글하게 뉘까 봐 겁나? 걱정하지 마라. 위의 산성 성분이 곰봉어를 골로 보낼 거다.

곰봉어가 옮길 수 있는 촌충과 빈혈충은 각오하자. 영국에서는 애완용 가에게서 곰봉어를 구입, 그 자리에서 날들 먹어버린 사람을 체포한 바 있으나(장기 열 죽은 벌금 3,700만 원짜리 범죄다) 희망한 특육 생활도 각오해야지. 그럼 곰봉어 초밥 한 점, 오독오독 자시게.



RECIPE

재료: 갓 태어난 짐새끼, 좀 더 크 짐새끼, 곰봉어, 곰들이, 반 식초, 설탕, 소금, 닭고기, 파, 케란 식용유, 고추장, 무수, 오이, 당근, 김, 치즈, 드레싱

- 1 뜨거운 밥에 식초, 설탕, 소금을 적당량 넣고 손으로 섞는다. 반금 화장실 행거는 새끼 누구인가?
- 2 밥에 초 양념이 스며들면 밥알 350개를 덜어 모양을 만든다. 350개다.
- 3 밥에 고추장을 바른 후, 송덩이 보충한 나뭇잎 채기와 사시사철 재철 생선 곰봉어를 위에 올린다.
- 4 김을 둘러 고정한다. 어루반!
- 5 곰들이 주먹밥은 1의 밥에 당근, 파, 케란 등의 재료를 추가해 버무리고 동굴동굴하게 만든다.
- 6 기름에 살짝 튀긴 곰들이를 5에 올리고 치즈 드레싱으로 마무리. 여가책 김가끼를 갈뉘일까?
- 7 상이 오로 쥐, 무수, 오이, 당근을 김으로 예쁘게 감다. 김가끼도 완성.
- 8 완성이다!라!!??

MAXIMUS

A MAXIM VIEW OF WORLD



장수를 기원하는 잉어...를 준비하려다 가격 때문에 대타로 세운 금붕어. 전 국민이 아무리 씹어도 죽지 않는 서바이벌 최강자 쥐&어린 쥐. 그리고 네바 다이의 뉴 아이론 곰들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우리 장수를 기원하는 일품요리를 준비했다.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이니가. BY 料理 PHOTOGRAPH BY ARC STUDIO



쥐 초밥

〈동의보감〉(본초강목)에 따르면 쥐만한 천하의 보양식이 없다. 쥐를 먹으면 몸속 해충이 죽고(통귀), 눈이 번쩍 밝아져 어두운 밤에도 형광처럼 빛나는 글자를 읽을 수 있고(쥐 눈). 간질은 물론(쥐통) 확실도 낫고(쥐 기름). 출산까지 용이해진다(쥐 발과 꼬리). 이거, 이거 대통령감일세.

쥐를 섭취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쥐는 숫쥐만 먹는다. 둘째 쥐통은 숫쥐의 양골이 뿔쫄한 통이어야 한다. 한쪽만 뿔쫄해서도 안 된다. 셋째 쥐의 뇌는 사람 몸을 비쩍 마르게 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여자친구에게 주지 마라. 가슴만 빠질지도...

이렇게 좋은 쥐, 아직도 꺼리나? 군부대 남동 김치, 리얼 식빵, 포장된 건과류, 키레 소스, 큰 통조림, 피클 그리고 새우 맛 스낵...그렇다. 쥐가 발견된 음식들이다. 개중에는 한 마리 통쥐가 아닌 꼬리가 없는 쥐, 몸통이 분리된 쥐도 있다. 당신은 이미 먹고 있었다.



곰 등 지식 in



■ 곰등이송
아프리카 TV의 BJ '고기'가 제작한 노래로 '곰등곰등 곰 등 세 개곰등곰등 반식곰등곰등'이라는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이다. 곰등이를 마추친 안간들의 심리 상태면 아니냐 곰등을 예한까지 기사에 담아 객관성을 확보했다. 곰등이 송 2 연가 시 송 탄생을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노을이
지식인에 어떤 이가 "어떻게봐 속재로 귀뚜라미를 잡아 이름은 '노을'로 지었는데 이 귀뚜라미 종류가 뭐?"는 질문과 "채집용 속 곰등이" 사건을 옮긴 사건에서 유쾌한 광한 별명. 앓다. 성지순례 죄표
<http://kin.naver.com/qna/detail.nhn?qnaId=88&dirId=80510&docId=114044734>

■ 연가시
곰등이가 죽을 때 쫄는 기생충, 연가시는 곰등이, 새마귀 등에 기생하다 몸집이 커지면 숙주를 조종해 물가로 간다. 숙주가 물에 빠져 죽으면 유류히 범으로 나오지. 세스코는 '연가' 시가 숙주에게 감동을 일으켜 물웅에 찾게 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했다. 연가시, 사발에겐 무해하다(자) 내가 제일 나쁘다.

*사신 속 쥐, 금붕어는 촬영 전이라 사후처리에 인착한 아들이랍니다. 우는 파충류의 먹이로 냉동 판매되는 것이고, 금붕어는 수족관에서 죽을 일없는 것들 간지롭습니다. 촬영 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곰등이는 담판 에디터가 죽인 것이 맞습니다)

여친 생기는 vs. 안 생기는 관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잘난 얼굴에 여친이 안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관상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BY 김희성 ILLUSTRATION BY Jacob IMAGES Dreamstime(야)

광대뼈가 둥글고 크면 재운이 좋아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필자다. 목미끈 사슴이 우물을 찾듯 돈이 있는 곳에 여자가 모이는 건 당연지사.

입은 키가 큰 사람 중에는 부유하거나 신분은 높은 사람들이 많다. 비뚤어 말하면 숫다라닌 당신야말로 여자에게 부귀와 권세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 이제 당신도 위내

혹시 몸에서 허전 각질이 일어나나? 비듬이 따듯하게 어깨를 감싸는가? 관상학에 따르면 당신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으훗한 여성을 즐길 수 있다. 축하한다!

▶ 여친 생기는 관상

당신의 머리숱이 적은 이유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탓이다. 아랫가 뺨뺨할수록 위는 맛있다라는 뜻. 혹은 밤마다 행복찬 비명을 지르는 그녀가 머리끄덩이를 쥐어서대시잖아.

눈이 맑으면 모든 것이 좋다. 여기에 눈동자가 크고 검을수록 신광감으로 이상적인 관상이다. 순정만화 주인공이 항상 예쁜 여주인공과 사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코가 길면 테크닉이, 콧구멍이 크면 힘이 좋아 하루에 열 번도 가능하다. 코가 길고 콧구멍도 크면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 길이 나 크거나 그것이 문제라.

양쪽 입꼬리가 올라간 것은 관운이 매우 좋고 덕망과 신의가 있어 신광감으로 제각각.



여친 안 생기는 관상 ◀

눈썹 숲이 많고 털이 역세면 포악한 티입이라 있던 여친도 도망간다. 당신 성격이 X 같았던 이유는 당신 탓이 아니라 송송헌 달은 숲 감점 눈썹 탓이니 당장 육살로 가서 눈썹을 뺏아 달도록.

관상학에서는 처진 눈초리를 가진 사람은 섹스를 잘 못한다고 한다. 처진 눈이 매력적이라는 말,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니죠??

코 오른쪽 옆에 점이 난 사람은 외골수라 주위에 사람이 없다. 여신은 커녕 여자 사람 구경도 못할 판.

인중이 너무 짧은 남자는 침울성이 없고 경솔하다. 인간 관계가 재로니 성공보다는 실패하기 쉬운 관상. 단지 인중 짧은 게 이상해서 여친이 없는 건 아니고?



얼굴에 힘줄이 많으면 액이 많아 재수가 없다(그 액 말고). 다시 태어남도 여친이 안 생긴다.

왼쪽 눈이 한자하게 작은 남자는 소심하고 용기가 부족하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속담도 못 물어 봤나!

몸에 비해 손이 너무 작으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 물론 여자도 없다. 그리고 얼굴은 흰데 몸이 검은 사람은 재물운도 없고 크게 되지 못할 상이니 남편감으로도 별로다.

종이리와 양망이에 살이 없으면 일생이 비뻥기만 해 여자를 고생시킨다. 역시 남자는 하체 지 사치니 친구들, 뺨이 빼!

저리 까재

MAXIM e-Magazine e-Attack!



www.maximkorea.net



MAXIM의 모든 콘텐츠를
1,500원에 보고 싶은 자!



MAXIM을 영상으로
즐기고 싶은 자!

모두 e-Magazine와 교감하라!

- 책보다 PC가 더 친근한 당신!
- MAXIM을 사러 서점까지 가기가 귀찮은 당신!
- MAXIM을 침대 밑에 숨겨온 당신!

열람 방법

01

www.maximkorea.net 접속

홈페이지 상단키테크리 reader 항목
중 e-매거진 클릭 or

홈페이지 우측 e-magazine 클릭

02

보고 싶은 월호 고르기

이용권 구매 클릭 후 결제

MAXIM 홈페이지에서
적립한 '떡으로도 구매 가능'

알기 쉬운 AV LABEL

당신이 단백질을 배출하기에 적절한 레이블을 찾는 데 (레이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하드(?)한 정도를 친절하게 구분해 주었다. 하드기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레슬링이 적혀진다고 보면 된다. 하드 지수를 고려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레이블의 작품을 선택해 감상하도록

BY 최영한



S1 No.1 Style

AV 업계의 뉴욕 양키스

하드지수 : 🍌

일본에서 가장 잘나가는 대표적인 AV 레이블. 얼굴과 몸매가 되는 최고 수준의 배우가 악소환 모자이크를 주유 부위에 두르고 열심히 레슬링이라고 쓰고 합체라고 읽는 데에 일한다. CF처럼 세련된 스타일의 편집을 자랑하며 화면 때깔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무엇보다 레슬링을 전투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아니라서 부담 없이 즐길 만하다. 우리나라에도 자주 방문하는 푸른 하늘의 그녀 아오이 소리도 이곳 소속이다. 남자 배우가 정확을 적용하지 않고 축포를 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도(?)를 키킨다. 그래서 격한 연기와 발정의 고양이처럼 앙칼진 액션을 원하는 마니아에게는 다소 심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IDEAPOCKET

AV 업계의 보스턴 레드삭스

하드지수 : 🍌🍌

이처럼 매짱 좋은 AV를 추구하는 레이블이다. 최근에는 연출 수위가 높아져서 침대 위에서 3명이 동시에 한체하는 경우도 잦고, 잘못된 구멍을 향해 남자의 매직스틱이 돌진하는 작품도 자주 눈에 띈다. 그렇지만 AV 레이블 중에서는 여전히 압전한 편에 속한다. 2000년대 후반 비누계의 대표 주자로 유명한 유아 아이다도 이곳 소속이었다. 당신도 한 번쯤 그녀에게 뜨거운 단백질을 조금으로 바친 적이 있을 테니 잘 일 거다. 이의 배우가 식상해했을 때 한기도 시킬 겸 강도 높은 레슬링 연기를 보기에 적절한 레이블이다.

PRESTIGE

AV 업계의 워싱턴 내셔널즈

하드지수 : 🍌🍌🍌🍌🍌

AV 마니아 중 PRESTIGE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지 않은 사람이 전무할 거다. 표지와 실물 사이의 갭이 너무 커서 제각비의 대부분을 포토샵에 쳐버리는 게 분명하다는 역측이 난무한다. 각종 내용으로 남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표지와 전혀 다른 여자 수레이 나와서 신음 소리를 내며 레슬링을 펼치는 모습에 격분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 대표적인 낚시 레이블이다. 일단 이 작품을 감상하기로 결정했다면 표지보다 10배 정도는 못생긴 여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이 겠다. 손발레가 유일한 위안인 남자사람에게 여자를 빌려준다는 콘셉트의 (여치잔구를 빌려 드립니다)라는 작품이 유명하다.



MOODYZ

AV 업계의 볼티모어 오리올스

하드지수 : 🍌🍌🍌🍌🍌🍌

메이저급 AV 레이블이지만 한때 난반 이라는 AV 배우가 먹어 실렸을 정도로 짜질했던 과거도 있었다. S1이나 IDEAPOCKET과 달리 인형사정 봐주지 않는 거친 레슬링을 담은 작품들도 내놓는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AV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남자의 매직스틱을 이롭게 하는 초보미가 MOODYZ의 간판 스타다. 올해에는 10주년 기념작으로 초보미는 물론 MOODYZ에서 잘나가는 그녀들 16명이 총출동해 일반인과 레슬링을 펼치는 휴머니즘 넘치는 작품도 출시했다. 당신이 모니터를 보며 한 번쯤 합체를 꿈꾸던 그녀를 능동성이 매직스틱으로 혼내준단 얘기가 이럴 땐 진심으로 열도의 완승이 가부러지지만 어쩔 수 없다. 그곳에 있는 자기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서 벨리 휴지를 준비하는 수밖에!





PREMIUM

AV 업계의 뉴욕 메츠

하드지수:

이름만 들으면 으레 떠올라지고 알려진 작품을 주로 만드는 AV 레이블로 착각할지도 모를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격렬한 쪽으로는 확실히 프리미엄을 가진 레이블이다. 정화 선은 걸 거절할 뿐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돌격하는 일도 다반사다. 그렇다. 대중 생각만 에베루가 출현하진 않으니 걱정하지 말 것. 예뻐서만 배우가 팔자는 격한 레슬링을 보고 싶다면 정겨운 만한 레이블이다.

ATTACKERS

(귀족) 시리즈라는 강제로 유명세를 떨친 AV 레이블이다. 이름 그대로 남

AV 업계의 콜로라도 로키스

하드지수:

자 사람이 저항하는(이라고 쓰고 연기라고 읽는다) 여자 배우를 강제로 달치는 능욕계 작품을 줄기차게 만들어왔다. 여자를 굴복시켜야 하는 존재 따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전한 정서를 가진 남자라면 ATTACKER 작품을 피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색시 한 젊은 아이들을 기용하기도 하지만 기본 포맷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AV라면 모자르지 현실에서 충족할 수 없는 더러운 욕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믿는 이리만큼 이만한 레이블이 없을 거다.



SOD (Soft on Demand)

AV 업계의 클라리랜드 인디언스

하드지수: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는 덴 천재인 AV 레이블이다. 비싼 여자 배우 1명을 데리고 작품을 만들거보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렴한 애들을 여러 명 쓰는 걸 선호한다. 다비치의 노래와 같은 제목인 <시간이 멈춰라!> 시리즈는 남자라면 한 번쯤 상상 해본 장면을 실제 영상으로 옮기는 기강함을 보여줬다. 시간이 멈춘 상황에서 무량비 상태의 여자 배우를 상대로 어떻게든 레슬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수많은 모태 솔로의 귀감이 됐다. 이곳에서도 나름 열광 마당 노릇을 하던 나츠메 나나리라는 걸출한 배우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은퇴한 상황이다. SOD01말로 '아이디어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진리를 유행 가득한 화면으로 증명하는 AV 업계의 기린이다.



GLORY QUEST

AV 업계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하드지수:

금수와 레슬링을 펼치는 (수행) 시리즈로 유명한 막장 레이블이다. 흥건, 고평고(실제로 이성년자는 아니다)와의 레슬링도 예시고, 여배우의 배설물도 골질 확인시켜준다. 실제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격하지만 작품을 보다 보면 무언가 심심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다소 황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스토리, 연출력 모두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찾아볼 수는 있었지만 이 레이블의 작품을 꾸준히 감상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밖에서 없을 때 인스턴트 음식이 끝까지 곁꿨던 AV가 지겨워 자극적인 작품이 보이면 이에게 추천.

PORN QUIZ

심심풀이 일본어 퀴즈

이 단어를 AV 작품에서 심심하게 봤을 거다.

【痴女()】

힌트: 남자를 밝히는 여자를 두 글자로 하면?

【制服()】

힌트: 우리가 좋아하는 세라복도 이것에 포함된다.

【輪姦()】

힌트: 남의 여자와 강제로 레슬링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フェチ()】

힌트: 당신! 여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ぶっかけ()】

힌트: 여자에게 매직스틱의 단막질을 끼우는 행위다.

정답(차례로) 치녀, 제복, 윤간, 페티시, 부가게



아사카와 린

AV계의 헤라케인 쵸

자음은 은의 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지만 한창 잘 나갈 때는 (4월의 조)의 헤라케인 초저판 AV에 오두 걸 허탈게 불태웠다. 2003년에 30대면, 하루에 한 판으로 AV에 출연했으니 그녀가 상대한 남자 배우만 해도 30X이상 하면, 가네스복에 오른 것도 생구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신체의 주요 부위가 말짱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그40일로 명화 (창)의 명대사처럼 '하늘에서 내린 남방' 일지도 모른다.

에디터의 변



이번 기사에 소개된 레이블은 회사별로 분류한 게 아니라 스타일별로 분류한 것임을 밝힙니다. 독자 여러분이 정신건강을 배려해 노출될 작품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원하는 작품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소개한 레이블의 작품을 섰마 에디터가 다 봤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능력자 열전

당신의 잉여력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리라
BY 김성환



▶ 재할용의 달인 이것이 종이 건담일!

이 건담을 보면 처음에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 거다. 그러다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칠 거다. 잠시 후 이 작품이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할 거다. 업체에서 내놓은 완제품을 이렇게 도색하기도 힘든데 이 모든 걸 종이로 제작한 후 완벽하게 도색까지 마무리했다. 이 정도면 정말 미친놈 아닌가.



▶ 레이너 워너비 캐리건은 내가 지킨다!

능력자를 논할 때 양덕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위해서라면 시간, 돈, 노력을 아깝게도 투자한다는 것. 지금 소개할 이 녀석도 마찬가지다. (스타크래프트2)의 짐 레이너를 흉모한 것이지, 칼날여왕 캐리건을 구하고 싶은 간지는 알 수 없으나 실사이즈급의 레이너 코스프레 의상(?)을 완성했다. 이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라. 그는 이미 오덕의 한계를 뛰어 넘어 마스터로 올라가고 있다.

▶ 과수급 밀덕 방탄조끼 내가 만든다!



국방부에서 수역을 투자해 만든 방탄조끼가 후지다는 상상에 직접 방탄조끼를 만든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 정부가 그의 프로젝트에 돈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자 끝까지 자신의 사재를 털었다. 그저 계속되는 인간 대상 살청과 노가다로 최강의 방탄조끼, 드래곤 나이트 방탄복 'DKB' 가 탄생했다. M-4를 맞아도 끄떡없다. 물론 통증은 온몸에 뻗어나가겠지만 총 맞아가며 만든 방탄조끼가 뿌듯한 이 과수급 밀덕은 기쁨의 미소를 지어냈다.

▶ 마더스의 손 내 손은 약손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 2부가 새로운 공명으로 필로폰을 만들었다가 검찰에 달미를 잡혔다. 그는 미국 유학파 화학박사 출신의 고급 브레인이었는데, 국내에서 1kg에 12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화학재료를 순도 94%의 필로폰 2kg, 약 66억 원이치로 변신시켰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만약 그가 필로폰을 원했다면 거의 10,000배의 수익을 남겼을지 모른다. 이 정도면 능력자를 넘어서 마더스의 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검찰에 잡힌 순간 마더스도 나뭇잎이고 인생 증거는 가차만 일이다.



▶ 레알 뉴타입 엔지니어 자체제작 비행 플레이트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도 양덕덕후를 물리칠 만한 인재가 탄생했다. 커뮤니티 피코즈 회원인 이호석씨는 1년 6개월의 과정을 거쳐 비행 플레이트 시스템을 자체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야말로 남자가 꿈꾸는 자상 최강의 맞춤형 게임기가 아니겠는가! 물론 이 시스템이 게임 용도로 제작되지는 않았다. 스케일과 디테일 모두 항공기 B737-900 조종석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다. 이런 비행 플레이트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 몇 천만 원은 그렇다치고, 한 개인이 이걸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놀랄 노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덕후를 뛰어넘은 뉴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다. 레알!



MAXIM e-Magazine

e-Attack!

www.maximkorea.net



MAXIM의 모든 콘텐츠를
1,500원에 보고 싶은 자!



MAXIM을 영상으로
즐기고 싶은 자!

모두 e-Magazine와 교환하라!

- 책보다 PC가 더 친근한 당신!
- MAXIM을 사러 서점까지 가기가 귀찮은 당신!
- MAXIM을 침대 밑에 숨겨온 당신!

열람 방법

01

www.maximkorea.net 접속
홈페이지 상단카테고리 reader 항목
중 e-매거진 클릭 or
홈페이지 우측 e-magazine 클릭

02

보고 싶은 월호 고르기
이용권 구매 클릭 후 결제
MAXIM 홈페이지에서
적합한 '떡으로도 구매 가능'

서울 천년 타임캡슐 속 별별 물건들

때는 1994년 11월 29일, 서울시가 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4-1번지 일대 남산골 한옥마을에 25톤 무게의 타임캡슐 하나를 묻었으니. 정확히 400년 후인 2394년 11월 29일, 이 타임캡슐의 뚜껑을 연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By 김연혜**



▲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모습을 담은 CD
토끼춤을 우리 전통 가무로 오해할 게 분명하다.

▲ 최초 성인 만화영화 <불루시집>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쓰너, 낚였 다들 외치게 만든 그 작품으로 후손에게 남겨 놓을 생각이냐?

▲ 유행 농담집 <못 말리는 엉덩이>
타임캡슐을 열 후손들에게 미리 사과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학석 학들이 모여 이 책을 해독하는 시간 낭비를 저지를 테니

다들 왜 엉덩이만 좋아해?



▲ 맨디 브래지어, 슬립, 거들로 구성된 여성 속옷 세트
대체 이유가 뭐가? 이렇게 명예 묻을 바엔 MAX에 7등하란 말이다.

▲ 대중음악용 이용 모습 및 부대 시설을 촬영한 CD
정부가 하면 괜찮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아? 왜 왜

▲ 무좀 양말
발가락 양말이 아닌 보통 양말을 발견한 후손들의 놀란 기색이 벌써부터 안쓰럽다. "이 이것은 발가락이 한 개인 사람의 양말인가 봐!"



▲ 담배 끊는 약, 술 끊는 약
우리를 의지라고 쥐짤도 없는 놀로 들고 갈 작정이야?

▲ 장력 팬티
그래. 의지 따윈 없어도 좋아. 하지만 왜 우리의 권유력마저 의심받게 만드는가? 이 타임캡슐을 묻은 배후 세력이 심히 의심스럽다.

▲ 1994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건가?



표지로 보는 이달의 책 - 대소변 편

표지만 가지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나? MAXIM은 하지 말라는 건 꼭 다 해본다.



나 동이야
그레, 너 동이야



향문은 문이다
그문 으르르 문애



나 여자 퐁 뉘도 돼요?
여기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



공주도 퐁을 본다
강태희도?
강태희도?



동 문 동 들고 학교 가는 날
이런한 그 시절, 그 스물~



오줌을 마시자
자네 사적 (퐁을 먹어 아 위대해!)라도 있다. 편식은 금물



오줌 누고 신부 안고
그때여 당당 오줌을 갈기자



오줌 싸야해
장난 아니냐?

NOW YOU KNOW



그녀가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일까, 아니면 당신의 장기일까?

그녀가 관심 있는 것은...	당신	당신의 장기
그녀가 당신 등을 계속해서 쓰다듬는다.	0	0
당신이 몸이 아픈 어린 사촌 동생을 위해 곱할 한 쪽을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0	0
그녀가 묻는다. "오직 나만이 자기의 심장을 차지하고 싶어 하더라도 좋지?"	0	0
당신을 욕조로 유혹한다. 그런데...	0	0
욕조를 얼음으로 채워놓았다.	X	0

BEAT THIS CAPTION



공공칠행

IMAGE Getty Images

- 1 저 선수는, 또는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여기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말풍선을 달아보자.
- 2 응모 방법 1.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한 후 댓글을 달거나
2. caption@maximkorea.net에 이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3. (121-824)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로 편지나 엽서 등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마감은 11월 11일.
- 3 가장 그럴싸한 캡션을 보낸 독자에게는 명품 케이스 브랜드 INCASE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아이폰 케이스(아이폰3 전용)나 4만6천 원 상당의 랩 시리즈 보디슬리밍 제품을 선물하겠다.

5만원 상당의
아이폰 케이스



LAB Series
보디 슬리밍 제



LAST MONTH'S
WINNER

“맞춤 스타일” _ duck7717

등을 히가면 많이 부족한 듯이었지만 공예에 맞게 재단하는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 입피라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달엔 꼭 망상임 없이 1등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밀퐁신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



AND LOSERS...
겨우 이 정도였어?

자기가, 나도 될 줄... _ yucono

→ 사실 가장 막강한 후보였다. 하지만 yucono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무지같은 댕고다 다른 분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다. 당신이 진정한 대안네요.

넛재야 앞에 봐라... _ 9316

→ 모두들 가족으로 만드는 센스는 좋지만 인종이 다르잖아.

엄마 배는 같아오... _ 김대열

→ 아 그런 거였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코... _ skyjun1001

→ 이젠 또 무슨 드림?

위에 동양 물결은 크구먼 _ Deathknight

허공에 삽질... _ gravity45

훗! 손슨이 직아야 달릴 때 걸리
적거린다구! _ Talkclay

이번에는 오징어이다... _ Bearhyj

→ 이어 재발 중 달랑거리는 물결에 관한 캡션은 그 만 이런 것들을 100개가 넘게 읽고 나니 귀에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달랑달랑~ 다음 달에는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러 그리고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한국 남자 박영진 “소나 키워” 라는 말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BY 장민재 ILLUSTRATION BY 이은락

자, 어떻게 죽고 싶나?

해 폭발, 소행성 충돌 등의 지구 종말로, 잠을 자다 그냥 날아가는 거다. 모든 사람과 함께 현.

<개콘> 코너 ‘두 분 토론’의 박영진 대표는 늘 언짢은 표정이다.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잠든 날 깨우는 모든 것. 잠귀가 밝아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캔다.

결혼 후 마누라가 깨워도 화날 건가?
자부 부스럭거리면 각방 쓸 거다.

오, 남자답다. 당신이 가장 남자답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수컷인 나를 발견할 때. 여자도 뽀뽀할 때나 사귀는 내 모습을 볼 때.

사귀하는 모습이 자신이나 보다. 자신이 없진 않다.

반대로 당신이 가장 여성스럽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빠질 때. 난 빠지면 밌을 안 한다.

당신을 가장 오래 빠지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박성광. 박성광이 다른 연예인과 친하게 지내느라 나한테 많이 소홀해졌다. 티는 안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4년째 빠져 있다.

요즘 박성광보다 팬이 많다. 마니아 층이 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 혼자 술 사다 먹고 그런 사람들 있잖나. 독특한 사랑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는 건 같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경계부터 한다. 처음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리를 뜬다. 박성광이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을 때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본인의 여친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사회 활동을 못하게 했다. 클럽? 말도 안 된다. 보수적인 게 아니라 아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가연 꼭 사고 가 나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냐

악성 댓글을 받아본 적이 있나?

“재미없다”는 말이 가장 무섭다. “죽어라”는 말은 별로 안 무섭다. 니더러 죽으라는데, 죽지 말라고 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다. “그만둬”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재미없다”는 말은 어쩌랄 수가 없잖나.

당신은 개인기나 몸 개고 없이 말로 탁월하게 웃기는 개그맨이다.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론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웃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때, 예전엔 동뎨 뉘새가 날 미치게 했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괴롭더라. 지금은 언제든지 동뎨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럼 죽기 전 마지막 식사는 통뎨? 제삿밥. 내 손으로 당국. 나를 무뎨을 만들어서 먹고 갈 거다.

‘박대박’에선 영동투게 말도 안 되는 걸 들어 우기는데, 다 그럴싸했

다.

뜨거운 땅에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고 하지? 궁금해서 비슷한 예를 찾아봤다. 무뎨 꿏고 서 있어? 무뎨 꿏는데 어떻게 서 있나? 차린 건 없지만 땅이 먹어라? 차린 게 없는데 뎨 먹으라고? 이런 예를 모아서 우겼다.

소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캐릭터에 썼다. 보니까 저절로 나왔다. 캐릭터가 옛날 어르신이고, 당시 사람들의 보물 (호가 바로 소다. 가부장 캐릭터가 ‘소’ 덕분에 완성됐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어떤 코너를 공연하고 싶나?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만든 코너 ‘박대박’

마지막으로 여자들에게 한마디한다면?
“남자를 믿지 마세요.” 남자의 친절함 뒤엔 분명 공짜가 있다. 이름 없다고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름당지도 않은데 왜 이름당다고



트레이너 강의 ONE POINT FITNESS

두꺼운 옷을 입은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양상한 팔을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찬스다. 트레이너 강민고 따라와라. 어느새 당신의 팔뚝은 그녀의 골백지만큼 훌쩍 올라 있을 거다.

BY 강민고 WORDS BY 트레이너 강민고 PHOTOGRAPHS BY ARC STUDIO

Dumbbell Curl

덤벨 컬



운동 목적

이두근의 근육량을 늘려 셔츠가 기어이 터지는 꼴을 보고 싶은 당신!

- 1 다리를 어깨-비인근 2 고정된 자세에서 호흡을 벌이고, 팔은 곧게 편 상태에서 앞손에 적당한 무게의 덤벨을 든다.
- 2 고정된 자세에서 호흡을 내쉬며 덤벨이 가슴 상부나 쇄골 위치에 오기쯤 팔꿈치를 굽힌다.

주의 사항

덤벨의 중량은 1세트를 마치기 버거운 정도가 적당하다. 팔을 굽힐 때 손목을 살짝 틀면 이두근에 더 큰 자극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2회씩 3~5세트 반복 진행한다.

Hammer Curl

해머 컬



운동 목적

상완근, 상완요근群, 이두근의 근육 크기를 키우고 싶은 당신!

- 1 다리를 어깨-비인근 2 고정된 자세에서 호흡을 벌이고, 팔은 곧게 편 상태에서 앞손에 적당한 무게의 덤벨을 든다.
- 2 고정된 자세에서 호흡을 내쉬며 덤벨이 상완근에 오기쯤 팔꿈치를 굽힌다. 이때 덤벨을 든 손바닥은 땅을 향하게 한다.

주의 사항

개인의 체력에 따라 12~15회씩 3~5세트 반복 진행한다.

Concentration Curl

컨센트레이션 컬

운동 목적

이두근의 바깥쪽 근육을 만들고 싶은 당신!



주의 사항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인의 체력에 따라 12~15회씩 3~5세트 반복 진행한다.

- 1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린다. 왼손은 무릎에 올려두고, 오른손은 편 상태에서 덤벨을 쥐고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늘여드린다.
- 2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팔을 굽힌다. 이때 이두근이 충분히 수축하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EAT IT

살을 빼고 싶다면 자방을 먹어라!

전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지방 섭취는 필수다. 눈앞에 펼쳐진 쓰레기 도넛을 쳐다볼까하면 게 아니다. 몸에 좋은 지방을 골라 먹으란 소리다.



불포화지방

'불(不)' 자가 들어갔다고 몸에 나쁜 거란 편견은 버려라. 이유를 설명해주겠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UP 나쁜 수치는 DOWN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요소이지만 지나친 건 부족한 것만 못하다. 콜레스테롤 당치가 커지면 혈관 막힘을 하는 주범으로 변신한다. 불포화 지방은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게, LDL 수치는 낮게 만들어준다.

중성지방 DOWN

중성지방은 몸속 지방 조직에 축적된 녀석이다. 몸이 쓸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내 식을 이용하는데, 당신이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놈을 쓸 일이 없게 되니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진다. 불포화 지방은 이런 중성지방의 증가를 막아주는 피마초 친구다.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DOWN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을 억제해준다 건 그만큼 심장근은 심장 질환의 발병이 줄어든다. 한티도로 당신이 그나마 리듬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세상이 하직할 가능성이 줄어든 뜻이다.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라. 몸에 좋은 지방은 식견의류, 카놀리유, 올리브유, 대두유 등 식물성 기름에 많다.



몸에 나쁜 지방을 섭취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패스트푸드점에 뛰어가라. 대부분의 음식이 트랜스지방 같은 게 잔뜩 끼여져 있다. 트랜스지방은 고지방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몸에 가장 안 좋은 기름중 하나다.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LOVE

DIRTY TALK in BED

발 없는 말이 침실을 지배한다.
낮말은 잡어치우고 일단 밤말부터 조심하자.
그리고 그녀의 밤말에는 더욱 귀 기울이자.

BY 이영미 PHOTOGRAPHS BY TOM CORBETT

“청소하게 걸레 좀 빌려줘, 입술레이!”

남아일언중천금

당신의 말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 침실에서.

그녀가 높다. 당신의 깊은 감언이성에 납취해 그녀를 놓고 드디어 (온몸으로) 울었다. 그녀가 높다. 당신보다 더 빨리 분위기에 취해 놓고 울던 그녀. 아, 그런데 당신의 입놀림에 목소리는 분노가 터진 그녀가 당신보다 먼저 일어났다. 쟁쟁.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들이 남자의 '침실 토크'에 대해 입을 열었다.

1 김빠지는 소리

좋은 게 오래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듯 좋은 섹스 토크에 대한 기준도 달랐다. 하지만 분명함, 진지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이다.

섹스가 끝나면 10명 중 8명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지. "좋았어?" 그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권가를 확인하고 싶은 걸까. 솔직히 별로였다고 대답하면 한 일주일도 멀도 안 할 정도로 빠질 거면서 K(27세. 항공사 승무원)

아무 말 없이 색색거리는 승승리가 좋다. 거친 승승리 정도로 좋다. 남자는 과묵해야 제맛. K(27세. 학원 강사)

남자들은 왜 사정할 때 "크해(경우에 따라) 크는 식 제되고, '혹은' '어항이 된다'과 더불어 '간다'라는 예고를 할까? 본인의 사정이 베이비 루스의 예고 풀린과 같은 격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S(25세. 광고회사 AE)

자신의 흥분 상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남자가 있었다. 평소에도 말이 많진 했다. 그런데 침실에서까지 수다스러워 가리곤 상상도 못했다. "나 들어간다"까진 이해한다지만 "와, 포인더"에서 흥분했다."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라고 5번 삼십 하여 말했다. 그 후로도 "그래, 거가야" 혹은 "니가 숨이 좋아" 등 입을 다치지 않았다. 입에 모더 단 줄 알았다. 모더는 아멘드르메만 제발. L(28세. 사회복지사)

그냥 민망하다. 섹스하면서 상대방 얼굴 쳐다보는 것도 웃긴데, 어떻게 대화까지 하나? K(25세. 대학원생)

2 속터지는 소리

가끔 적절한 양념은 약간의 긴장감을 준다. 그러나 말에서 비롯된 요한 좌책감이 흥분을 더욱 고조시킨다. 하지만 생각없이 내뱉는 너무 거친 섹스 토크 때문에 일어타지는 수가 있다.

순진하게 생기고 학벌도 좋고(만원급이아) 외국물도 적당히 먹은 연하 남정체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대한민국의 친한 지분주의와 자신이 꿈꾸는 혁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그는 예고가 강한 놀이였다. 그 이색, 현대에서까지 혁명을 꿈꿨던 것일까?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그가 입에서 "잘해", "참나" 그리고 "유 피킹 호어(You fucking whore 이 더러운 창녀)" 등의 다극적 욕을 쏟아냈다. 뽀끼지 때리려 했다. 나는 "이런 개새끼"를 외친 뒤 "내가 너보다 살도 몇 년을 더 살았어. 어린 생리가 미쳐가고 까 붙고 지빠러하네. 이 애런건 통같이 생긴 자기를 들고 나가 그동안 얼마나, 라이크 어 슈엣 엄?X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나가 사바, 살기도 피킹, 피킹 현대에 갈래서 어린한테 생음까지 먹어야겠냐? 유 피씨 슈엣통 같은 새끼"이라는 감동 남치는 연설을 늘어놓았다(집에서)라고 하니 곧 순화했다. 하지만 곧 분노를 가리었다. 벌인 일은 끝내야 하니까. 그러나 어린 녀석은 데미지를 회복하지 못했다. 2. 앤얼링하는 보고 욕할 걸 그랬나? J(31세. 대학원생)

심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착한 남자와의 첫 합공. 그런데 일기 힘든 말들이 이 남자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나는 "X나 맛있는 여자"에 "사바"이었다. 이렇게 10하다가 채찍까지 드는 게 아닌지 무서웠다. 섹스가 끝난 후 이 남자가 단 말들처럼 후련한 표정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좋았어?" 난 그냥 한 마리의 이누스를 보았다. H(21세. 대학원생)



3 흥분을 고조시키는 소리

어떤 말이 그녀를 달아오르게 하는지 그녀들에게 물었다. 열애? 의외로 간단하다.

나는 남자친구가 절정에 도달해 결국 입에서 "간다"라는 말을 터뜨리는 순간 희열을 느낀다. 내가 이겼다는 묘한 느낌? 사정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나마 약해 보이기도 하고 사정 비슷한 감정이 솟는다. R(24세. 직장인)

남자가 섹스 중 흥하는 버릇이 있다. 나는 욕을 듣고 흥이하는 착한다. 그가 심방할까 봐(그리고 내가 맞장구치던 더 열심한 한다. O(20세. 재수생)

섹스는 교감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난 그녀의 몸뚱이만 본. 남자가 사정을 달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다. 전혀 시간보다 "OO야 사랑해" 이 한 마디가 더 흥분된다. K(21세. 대학생)

나를 칭찬하는 말이면 더 좋다. 엉덩이가 색사하다. 가슴이 예쁘다. 귀엽다 등의 말이 기분 좋다. 그 칭찬 한마디에 많은 고민이 사라진다. 내 뽀끼 때문에 심방하지 않을까 위에서 내려오는 내 얼굴이 뽀끼 같은 얼굴까, 속공학이 안 맞으면 어쩌나 등등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남자의 칭찬 한마디면 그런 걱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섹스에 더 집중할 수 있다. C(22세. 대학생)

LANGUAGE SCHOOL

그녀의 진짜 속내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아빠?”



“좋아?”



DR. MAXIM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

정신과 건강 불안장애

공에 있는 당신 여자친구를 보여 느끼는 바로 그 감정 말이다.

BY 김민혜 WORDS BY 이종현 원장(푸른마음 신경정신과)



정신과 전문의 이종현 원장은?

- 푸른 마음 신경정신과 원장
- 단국대학교 병원 정신과 전문의
- 영동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공황장애클리닉) 운영
- 부부클리닉 후 원장
(프로말이 너무 깊어서 다 못 울겠다)

푸른 마음 신경정신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2 과천대성빌딩 3층 304호
www.purumainum.com 02-607-0770

고독한 도시 남자만 스트레스, 강박증 등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질환은 사냥하고, 먹고, 싸고, 꼬이고, 자고, 낚는 일만 반복했던 원시시대부터 있어왔습니다. 신석기시대와 고대 아메리카의 두개골은 몸무게가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한 두통이나 이상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방법은 원시적이지만, 당연하겠죠? 정신 질환의 고통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머리를 뚫었겠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MAXIMO 정신과 건강 검진을 준비했다. 머리통을 돌렸고 그 안에서 연성근 장시 내려놓도록, 11월의 주제는 불안장애다. 인간은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당시는 고대 원시인이 속 편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때도 그들은 천재천과 맹수 등 다양한 위협 속에서 고독했다. 현재 우리는 보다 나은 생체를 위해 항상 긴장하고 조금해한다. 우락부락한 근육 놀이 당상을 향해 재벌처럼 걸을 때, 딱딱할 후 여자친구가 쿡쿡 귀를 때 때이나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은 불안하다.

'불안장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실시했다. 그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히스테리'란 병명을 부여했다. 라틴어로 '히스테리'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 즉 불완전한 태도와 행동은 여성의 자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는 히스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생활로 자궁을 달라랴하 한다니 뭐라. 당시에게 불안은 야기하는 '결혼'이 불안은 없애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니 놀림을 따먹지만 당시에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잘 먹였다고 한다.

현대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불안은 보다 포괄적이다. 정신과에서 '불안장애'는 막대한 불쾌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있고 이로 인해 신체 변화와 행동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어떤가. 몸과 마음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나? 편지 모래가 부자연스럽고, 피로하고, 피로하고, 사람 만나서 일이 싫다면서야 여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수시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며 답답하고 타질 것 같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불안에 기인한 신체적 증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무엇인가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말해주겠다.

수능 불안, 예기 불안: 시험 전날 갑자기 잠이 안 오고, 시험 당일엔 테스트 본 조절이 안 된다.

무대 공포증: 평상시 이빨 하나를 죽여주게 잘 있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허가 굶어버린다.

심안성 비뇨기 장애: 여친과 결혼을 약속했다. 그 뒤로 고추가 안 쓴다.

공황발작: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강박증: 지갑 속 이빨과 이미 할베가 모두 정확하게 줄을 맞춰 서 있어야 안심이 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릴 적 병들었을 시킨 놀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구체적인 예는 다 들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다. 미우리로 오른쪽 위의 테스트로 당신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이때? 머리에 꽃 다는 것만이 정신병은 아니냐? 정신병은 우리 가까이 있다. 치료해보고 가까이 있다. MAXIMO 질문을 보내라. 원장님이 구체적인 치료법을 알려주신다.

HELP ME, DR. MAXIMO

MAXIMO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불안장애를 알고 있나? 아래 주소로 증상과 고민을 보내라. 사소한 것도 좋다. 친할 답장, 침묵 비답을 보장한다.

이메일 접수: ny@maximokorea.net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O KOREA 빌딩 4층 편집부 DR. MAXIMO 담당자 할

불안장애 자가 테스트

각 문장을 잘 읽고, 오늘을 포함한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를 체크하라.

전혀 느끼지 않았다. 0 조금 느꼈다. 1 상당히 느꼈다. 2 심하게 느꼈다. 3

1. 가끔씩 뱀이 자리고 후시때 갑자기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	1	2	3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고 한다.	0	1	2	3
4. 편안하게 쉬 수 없다.	0	1	2	3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6. 여러리워(한)기증을 느낀다.	0	1	2	3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	1	2	3
8. 침착하지 못하다.	0	1	2	3
9. 자주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0. 신경이 과민해졌다.	0	1	2	3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0	1	2	3
12. 자주 손이 떨린다.	0	1	2	3
13. 안정부정맥이다.	0	1	2	3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5. 가끔씩 숨 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0	1	2	3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17. 불안한 상태다.	0	1	2	3
18. 자주 심회가 잘 안 되고 멍cut이 불편하다.	0	1	2	3
19. 가끔씩 기침할 것 같다.	0	1	2	3
20. 자주 얼굴이 붉어진다 한다.	0	1	2	3
21. 땀을 많이 흘린다(대쉬로 인한 경우를 제외).	0	1	2	3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자. 총 63점 만점이(대쉬점 제외)라고 좋아하지 말고, 1996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장애 환자들의 평균 점수는 22.4점이었고 비환자들의 평균 점수는 14.3점이었다.

◎ 22~26점: 불안 상태(패시브 관철과 게임이 포함되다)

◎ 27~31점: 심한 불안 상태

◎ 32점 이상: 극심한 불안 상태

MY OBSESSION

스타의 강박증 보봐. 저런 애들도 불안장애구나.

데이비드 베컴

웃음 색깔로 정리해야지 생각이 풀린다. 음류수는 백수로 정리해라 한다. 음류수 3건이 있다면 해는 버린다. 그러면 병영하고는 3개다. 음류수 3개도. 음류수 4개도 병영하고는 버리기 아깝다?

케이머리 디이즈

'문소집이'는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팔꿈치로 돌린다. 그녀는 말했지 세균이 무슨 게 아니라 사람 몸의 침이 싫은 거라고. 그럼 치는 게 뭐?

↳ 수도해야 해

매간 폭스

공중 화장실은 물론이고 음식점에서 주는 포크도 사면 기가 캐시 시트가 없으면 불만이 못 났다. 여러 사람의 인식을 둘러싼라했던 포크를 자신의 입에 넣을 생각을 하면 좋아바리겠다. 뭐든 넣고 빠는 건 깨끗해지지 않

노홍철

베컴과 같은 정리 강박체가 있다. 그럴 거라고 베컴과 다른 구석을 만들고 싶었다.

공중 화장실

가난한 것들, 오, 오자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무중 때론 식초에 발을 담가볼 적 없나? 운동 전 스트레칭을 꼬박꼬박 해왔나? 큰일났다. 당신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백에 동참할 때까지 사시는 방법을 배우보자. BY 김희정

1. 건강에 관심이 각별한 당신이 정기간진을 통해 전립샘염을 조기에 발견했다.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옆에 걸렀다는 두려움에 발벌 떠나라 수염이 딱딱 줄어든다.
 ② 수술은 성공했지만 오줌 싸기가 힘들어진다.
 ③ 수술은 성공했지만 발기가 잘 안 된다.
 ④ 전립샘염을 치료했지만 당신의 근육같은 생명은 연장되지 않는다.

정답 ② 수술 후 당분간은 오줌이 찜찜할만큼 새어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오줌을 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답 풀이 ④ 전립샘염의 초기 발견과 생명 연장의 상관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자녀에게서 나쁜

2. 호날두는 경기 전날 사우나하면 섹스 퍼트너와 붕가붕가를 했다. 다음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날 과도하게 힘을 쓴 나머지 경기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② 섹스할 때 발생한 남성호르몬이 그를 거칠게 만들어 경기력이 올라간다.
 ③ 선수들이 경기 전 섹스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해놓은 CCTV에 딱 걸려 감독에게 까인다.
 ④ 섹스 도중 심장박동을 일으켜 경기도 치르지 못한 채 사망한다.

정답 ① 섹스로 인한 체력 소모는 2시간이면 회복된다.
 오답 풀이 ④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5,599명을 조사한 법의학자들들에 따르면 이들 중 34%가 섹스 도중 발작을 일으켰으며 그중 28명은 남성이었다. 이들 중 25명은 호텔에서 자신보다 평소 수자야랑 어린 섹스 퍼트너와 딱을 치다가 사망했다. 반면 배우자와의 섹스는 안전하다. 왜 그런지는 말 안 해도 알 거다.



3. 어느 날 갑자기 흡연자인 당신에게 알고 지내던 이쁜이 여자 후배가 비타민 C 한 통을 선물했다. 그녀의 숨은 의도는?

- ① '돈 값어 싸까'
 ② '너 같은 색하는 암이나 걸러 줘라.'
 ③ '오늘밤 혼자 있기 무서워요, 선배.'
 ④ '소순히 남자를 겁이든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이다.'

정답 ② 담배 연기 한 모금에 들어있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 카드롬은 발암성이 가장 강한 금속이다. 카드롬이 비타민 C와 결합하면 발암성은 100배나 더 강력해진다. 카드롬은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35년이나 남아 있으니 담배를 끊고라도 비타민 C 드렁거 했다가 저승행 고고상~
 오답 풀이 ③ 이쁜이가 당신한테 그림 리 없잖아?

4. 다음 보기 중에서 수염을 더번 더 늘리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골라라.

- ① 머리카락을 자른다. ② 문명하고 함께 시간여행을 한다.
 ③ 손톱을 깎는다. ④ 고추를 자른다.

정답 ④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질수록 수염은 줄어든다. 거세한 남성은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난다.
 오답 풀이 ③ 수염 연장의 대가가 고추 손톱일까?

5. 마라톤이 취미인 김 씨는 시합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깜박 잊었다. 경기 중 김 씨에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 ① 부상 위험 증가 ② 발기 지속
 ③ 사망 ④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④ 스트레칭이 운동 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된 바가 없다. 역효과나 안 끼치면 다행이다.

오답 풀이 ① 지나친 스트레칭이 오히려 근육세포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통이쳐서 지못미

난도46 정크맨?



6. 화식 자리에서 당신 옆에 앉게 된 상사 최 씨가 자신은 평소 술을 마시던 속이 쓰리다며 당신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귀싸대기를 피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적절한 말은?

- ① "우유를 좀 드셔보시고 속 쓰린 데는 우유가 왜대려요."
 ② "평화 조약 버전을 불러냈어요."
 ③ "담배는 위산을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담배 이리 주시고 굶산님"
 ④ "혹시 실시장이 나오면 아무것도 쳐드시지 마세요."

정답 ③ 흡연자의 위양양 발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귀싸대기는 못 면할 수, 술자리에 담배 없으면 쓰.

오답 풀이 ①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수는 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우유에 포함된 칼슘이 다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을 더 쓰리게 만든다. 후, 귀싸대기 당할

7. 흥부네 집엔 왜 자식이 많았을까?

- ①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② 심심해서 먹히 할 게 없었기 때문에
 ③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④ 흥부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답 ① 우리에게는 생식 본능이 있어 위기 상황에 놓이면 여자는 배란을 서두르고 남자는 발기가 더 잘된다. 섹스를 하려면 밥을 먹기 전에

오답 풀이 ④ 찍으려면 좀 그럴싸한 걸 찍지.

8. 그럼에도 배방한 김빠를 장착하고 싶은 당신은 본격 짐승성 되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다음 중 당신의 몸장 되기 프로젝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는?

- ① 피망 돌려 운동한 뒤 닭가슴살을 처방처묵한다.
 ② 피망 돌려 운동한 뒤 우유를 처방처묵한다.
 ③ 피망 돌려 운동한 뒤 닭 손다.
 ④ 그냥 피를 흘린다.

⑤ 일단 뺏살을 빼는 게 급해 주강장 줘똥 일으키기만 한다.

정답 ⑤ 특등 부위 지방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의 몸은 전신의 지방을 같이 비율로 감소시킨다. 똥똥일으키기만 한다고 해서 뺏살 지방만 속속 빠지는 건 아니란 말썬. 체중 감량과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 안 그럼 살빼는 꼴밖에 안 된다. 뼈가아로!
 오답 풀이 ②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된 근육을 빨리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다. 단백질 공급에 딱 어울리는 연료로군.

요새이러 강 진짜?



9. 살팍다고 핑방대는 여친에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당신 이 해를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동하세요." ② "공부하세요."
- ③ "잠이나 주무세요." ④ "똥을 싸"

정답 ③ 똥을 적게 지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증가한다. 체중은 칼로리의 문제기보다는 호르몬의 문제란 말씀.

오답 풀이 ① 우리 몸을 한 번 도달한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운동을 했었다 돌아오는 건 요요현상뿐. 핑방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다 죽게 될 거다.

10. 다음 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남성의 유형은?

- ① 광범남 ② 스키남
- ③ 근육남 ④ 통통남

정답 ① 여자들이 근육질 몸매를 좋아할 것만 같아 편견은 버려라. 여자들은 갈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범남한테 가장 호감을 느낀다.

오답 풀이 ③ 자기 만족이 아닌 여친 만족기 목적이었던 근육에 대한 집착은 이제 그만~



광범남?

11. 다음은 당신이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이다. 이 중 진짜 맞는 말을 골라라.

- ①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쁘니까!"
- ② "시름 먹으면 이 썩는다!"
- ③ "어릴 때 친 실은 다 카로 킨다!"
- ④ "대학가면 애인 생긴다!"

정답 없다. 우리 그들의 누님에게 무뎠던 당한 희생양이었다. 오답 풀이 ③ 고학년 오히려 성장호르몬 분비를 약화한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 말만 발동시키면 그냥 "에-에~" 하고 넘겨라.

12.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은 당신은 감기에 걸리게 로 결심한다. 다음 중 당신이 해야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오는 날 우산 없이 돌아간다.
- ② 감기다 감기 걸린 여자를 보면 담뭍고 무작정 키스한다.
- ③ 감기 걸린 여친의 콧물을 마신다.
- ④ 머리를 적신 채 머니츠마냥 돌아다닌다.

정답 ③ 가장 쉽게 감기에 걸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손을 자주 얼굴에 갖다 대면. 누르기나 악수를 하고 나선 반드시 그 손을 당신의 얼굴에 갖다 대라.

오답 풀이 ② 감기 환자의 침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다. 그녀와 당신의 입술 사이를 가로막는 핑개라 되지 않는다! 격한 키스로 콧물까지 오는 경우만 아니라면.



chun~?

13. 어느 날 여친이 수줍은 얼굴로 "나 무좀 생겼다" 고 고백했다. 여친에게 해줄 수 있는 일로 적절한 것은?

- ① "무좀은 못 고치는 병이라 하오"
- ② "누런빛 식초 물에 두 발을 담가보실?"
- ③ "할기 뜨개운 모래밭을 일몰오로 걸으면 낫는데"
- ④ "발가락 양말 한번 신어보실?"

정답 ④ 다다다다 붙어 있는 발가락 사이를 최대한 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② 식초에 발을 담그면 오히려 피부가 무시한다. 말 잘 듣는 무좀 약은 약국에도 많다! 소문을 퍼뜨린 건 분명 식초 공중 화장 놀이였을 거다.

14. 탈모에 대처하는 당신의 자세로 옳은 것은?

- ①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한다.
- ② 수술로 머리를 심는다.
- ③ 존슨이 뿔뿔하게 난 살까봐 탈모 약을 먹지 않는다.
- ④ 빗으로 머리를 두드려준다. 머리털이 머리털이, 고개를 내밀어라.

정답 ② 수술로 심은 머리는 시간이 지도 안 빠진다! 수술 후 두세 달 정도가 지나면 심은 머리카락 자체는 대부분 빠져지만 모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재발 정도가 자연히 당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추가하여.

오답 풀이 ④ 두피가 점점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되면 탈모가 예방되니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 게 좋다. 고만 좀 두들기소 그러다 대두들라.



꼭꼭 숨어라, 머리칼이 보일까?

15. 그렇게 해서 결국 감기에 걸린 당신. 하지만 이번엔 감기 한 내어서 걱정없이 이 번기로온 자식! 다음 중 당신이 해야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타민 C를 처방처한다.
- ② 알약 싫어. 기루약은 더 싫어! 어린이용 시럽을 먹는다.
- ③ 감기엔 소주. 술을 질펀하게 마신 뒤 감기약을 먹고 한숨 푹 잔다.
- ④ 쪽쪽뿜방 간호사 누나한테 주사를 놔달라고 영언이를 들이댄다.

정답 ② 약효가 나타나는 속도가 빠른 건 시럽. 기루약, 알약 순이다. 시럽제는 약제 상태라 흡수와 효과가 빠르다. 감기엔 푸루민!

오답 풀이 ① 비타민 C는 감기에 예방해주지만 감기에 걸리고 나서 복용하는 건 효과가 없다. 감기 환자가 비타민 C를 처방처해다가는 오히려 설사나 오메갈로스에 걸릴 수도 있다. ④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단지 감기로 인한 기침, 고열 순전히 간호사 누나가 해해서 생긴 미스터리한 기적이지!



니롱뿜방

당신이 색소를 해야 하는 이유
이전 중요하니까 따로 썼다. 색소만큼은 절대 게을리하지 말 것

- 1 심장 박자를 일으킨 횡자 맥 약 2배는 박자를 일으키기 전 약 두 시간의 색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적으로 색소를 하면 구위항성이 혈로 줄어든다. 꼭 안 해본 분이 복싱사로 죽는다.
- 2 한 달에 2차례정도 사정하는 20대 남성은 5~7차례 사정하는 또래 남성에게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33%나 낮다. 낮았다 빼는 운동도 전립선암의 원인 되는 분비물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어디에 넣든 피스트 운동만 하면 상관없다. 당신에게든 트든 한 두 팔이 있잖나.
- 3 색소를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 심장을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색소가 격렬해질수록 심장박동이 더 빨라져 운동에 피가 잘 돌고 당신은 말 그대로 활기장해버린다.
- 4 색소의 강도는 테크닉에 따라 다르지만 적절한 색소는 최대 200cal의 열량을 소모시켜준다. 땀샘을 빼고 삼다면 당신이 위로, 엉덩이에 붙어 있는 군살을 빼고 삼다면 그 녀를 위로 보낼 수 있다. 남피도 추운데 따뜻한 항구에서 색소 다이어트나 해볼까? 아, 여친이 있는 당신을 위해 하나 더 색소를 상생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는 소비된다.
- 5 정기적으로 색소를 하는 사람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 여친 얼굴이 동년배였던 이유가 호, 흑사!
- 6 색소를 많이 할수록 일에 대한 성취욕도 강해진다. 만족스러운 성취물은 직무 수행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가 있기 전날 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지?



자기가 살아보?

커플 발 마사지

같이 어울 수 없다면 튜닝이라도 하자. 여친의 걸과 속을 엮글해줄 발 마사지법을 소개한다. 남자를 위한 발 마사지법도 준비했다.

지카이, 세상엔 공짜 없다. 이미지? by 김연애 ILLUSTRATIONS BY 정지현, 장미연

오른발

1 여자친구 성질 죽이기

● 변비

15, 16, 17, 25, 26, 29, 30, 31, 32, 34, 37, 38

똥이 안 나오면 이유 없이 짜증난다. 일주일간 먹기만 하고 배출은 안 한 그 기분을 아는가? 위 부위를 주물러 주자. 며칠 후 그녀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게 된다.

● 신경질

12, 18, 21, 34, **엄지발가락**

짜증이 심한 그녀의 성질을 도둑 거러주자. 마귀 걸던 그녀가 한 마귀 온순한 양이 되어 이양을 떨 거다. 아잉!

● 생리통

4, 22, 23, 24, 36, 54

마법에 걸리기 전 일주일 동안 주물러준다. 생리 기간에 마사지는 절대 금물. 더 이상 당신은 마법에 걸린 그녀가 무섭지 않다!

● 불면증

1, 2, 3, 4, 12, 13, 15, 16, 22, 25, 33, 34, 25

잠도 없이 밤을계 돌아다니는 그녀 라면 발모기자가 아니라 발바닥을 노려야 한다. 올빼미 그녀도 밤 10시만 되면 귀가 본능이 작동할 거다. 장 안 먹하면 자금을 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여자친구 외모 가꾸기

● 다크서클

2, 5, 7, 8, 18, 21, 33, 34, 55

그녀에게서 그녀의 눈 아래 가득 찬 수심을 제거하자. 특히 18, 21번 부위를 정성스레 주물러라.

● 뺨살

15, 17, 18, 16, 19, 20, 25

그녀가 식사 후에 아저씨처럼 피부를 풀어 내라!면(어떤 면에선 명류자만) 위 부위를 자극하여 속을 편하게 둔다.

● 코끼리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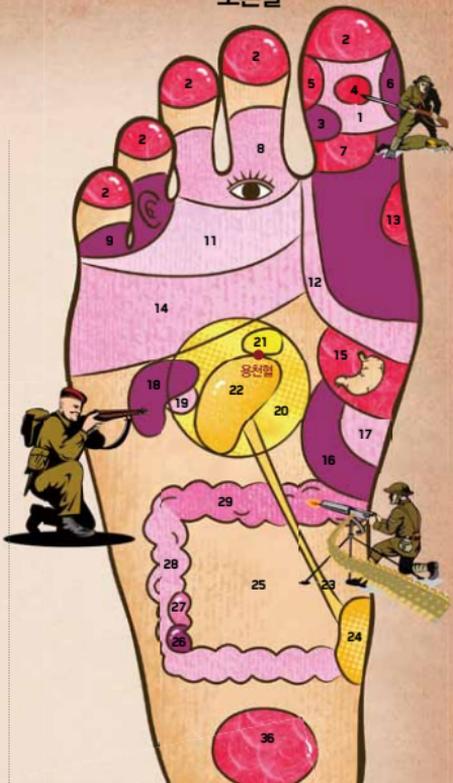
2, 4, 21, 22, **종아리**

짤라죽을까 봐 겁나니? 겁도 없이 살 빼라고 말하지 말고, 말없이 마사지나 해주자. 종아리도 같이 주물러주면 좋다.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피를 뿔뿔 끌어당겨 올려줘야 한다.

● 가슴

4, 36, 39, 40, 53, 54

촉 처진 할매 가슴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더 열심히 주물러라. 마사지 결과가 좋다면 MAXIM Girl Next Door 콘테스트에 응모하는 것으로 보은하라 (안 그러면 다시 친다!).



머리 : 이마 · 뒀 · 소뇌 · 뇌해수액
 심장신경 : 코 · 목 · 눈 · 귀 · 승모근
 감각신경 : 목 · 가슴 · 손 · 팔 · 손목 · 손가락
 심이신경 : 허 · 경 · 간 · 쓸개 · 위 · 창
 신경총 : 부신 · 흉 · 오 · 장 · 방광
 심은장차 : 경 · 장 · 쓸개 · 위 · 창
 원안 · 오장 · 기 · 구 · 장 · 방광



발 마사지에 앞서 당신이 알아두야 할 것들

준비 과정

- 1 이발, 올빼미 우선 손톱부터 자재
- 2 발을 씻는다. 이중에 당신도 일렉스가 되어 여친의 발을 정성스레 씻겨줘라. 여친이 거품을 풀어 준다 (단 여친의 발 냄새에 당신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 3 다 씻었으면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스레 발을 닦고 말린다. 물기가 남은 채로 마사지하면 피부가 찢어질 때를 대양생산한다.
- 4 이제 발을 부드럽게 주무르고 비벼 따듯하게 해주자. 차가운 발에 마사지 몇 시간 해보자 진어 효과 있다.



죽음

- 1 발 마사지가 귀찮다면 죽음을 6시간, 물의 온도는 40°C가 적당하다. 여친의 발이 유난히 차면 45°C 정도, 여친에게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면 (곧 송경을 치유해주고) 36°C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한다. 냉욕을 원한다면 8°C 정도가 좋다.
- 2 물은 여친의 목뼈에 위 약 3cm 정도까지 채운다.
- 3 채워 지키고 앉아 대(1)러라. 물의 온도를 체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물을 교체 온도를 유지해라.
- 4 여친의 몸이 땀으로 촉촉이 젖어있을 중단한다. 죽육은 보통 15분 정도면 적당하다.
- 5 이왕 땀 흘린 김에 더 땀 좀 내고, 발을 씻은 김에 더 큰 도넛 사지고 고뜨고자. 이불까지도 노예짓 했는데!

창용 불패

선동열의 일본 진출 기록

1996년 38경기 54타점, 평균 자책점 5.50, 33타이브, 82피안타, 4피홈런, 22볼넷, 3사구, 67삼진, 5승 1패

→ 일본에서 적응하는 데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닝당 탈삼진 수는 2.0 정도

1997년 43경기 631타점, 평균 자책점 1.28, 38타이브, 36피안타, 0피홈런, 12볼넷, 1사구, 69삼진, 1승 1패

→ 선동열의 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 피홈런이 제로다. 이걸 뵈

1998년 42경기 42타점, 평균 자책점 1.48, 29타이브, 33피안타, 4피홈런, 11볼넷, 55삼진, 3승

→ 피홈런이 없고, 탈삼진은 5.0에 달했다. 평균자책점은 여전히 양호하다.

1999년 38경기 310타점, 평균 자책점 2.6, 28타이브, 31피안타, 피홈런, 10볼넷, 34삼진, 1승 2패



통산 기록 162경기 1970타점, 평균자책점 2.70, 98타이브, 55볼넷, 228삼진

→ 4년 동안 10년당 탈삼진이 1개가 넘고, 평균 자책점은 2 장대에 통산 40대일뿐 성적 기준이다. 그 기간에 거둔 사이브는 10개에 육박, 주니치 드래프트의 팬들이 괜히 그를 '나그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다.

임창용의 일본 진출 기록

2008년 54경기 510타점, 평균 자책점 3.00, 33타이브, 3홈런, 55피안타, 6피홈런, 9볼넷, 몸에 맞는 공 2개, 50삼진, 1승 5패

→ 일본 데뷔 때부터 화제를 불러들였다. 삼성 라이온즈에 애용 때도 이렇게 흥 했다

2009년 57경기 570타점, 평균 자책점 2.50, 28타이브, 5홈런, 40피안타, 4피홈런, 9볼넷, 몸에 맞는 공 2개, 50삼진, 5승, 4패

→ 볼넷은 늘었지만 피안타, 피홈런 모두 줄었다. 일본 타자들 지못미

2010년 53경기 5520타점, 평균 자책점 1.46, 35타이브, 6홈런, 32피안타, 3피홈런, 16볼넷, 몸에 맞는 공 3개, 50삼진, 1승 2패

통산 기록 164경기 18320타점, 평균 자책점 2.14, 96타이브, 44볼넷, 55삼진

→ 승보다 패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 하나를 잡을 데가 없다. 요이우리의 강구수 마우리 투수 코르도 요코야마 베이비페이스 시절 34년 동안 8440타점을 올리는 데 그쳤는데 임창용은 96타이브를 쳤다. 지난 34년 동안 총합이 임창용은 일본 야구를 지배했고 코르도는 그렇지 않았다.

Maxim Sp

BRAVO, PARK!

박 사장, MLB 아시아 최다승 기록 경신!



길고 긴 시간이었다. 박찬호(37세, 피츠버그 파이 어리츠)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지 17년 만에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샌디에고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의 원정 경기에서 5회에 2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해 301년 동안 탈삼진 6개를 곁들이며 끝까지 불어막으며 마침내 시즌 4승(3피홈런) 개인 통산 124승(98패)을 달성했다. 박 사장의 절친이자 라이벌이었던 노모 히데오(123승)의 기록을 넘어서 대기록이다. 물론 피츠버그 구단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도유망한 고교 선수를 쉽게 스카우트하기 위한 떡밥으로 박찬호를 시즌 중에 영입해 최다승 기록을 달성하도록 도와준 건 사실이다. 존 러셀 전 피츠버그 감독은 "박찬호의 124승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날 3대 1로 앞선 경기에

서 5회에 선발투수를 내리고 박찬호를 등판시켰다. 중간 계투의 소진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선발을 조기 강판하는 일은 메이저리그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파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 사장의 기록을 폄하할 이유는 없다.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극도의 부진으로 먹튀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며 핏팅이 같은 후배와 훈련을 하면서도 메이저리그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 사장의 기록을 쫓아 올린 아시아권 투수는 뉴욕 양키스의 에이스로 활약하던 대만의 왕펑밍이 유일했다. 그러나 큰 부상 이후 부진을 거듭하면서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일본의 자랑 마쓰자카도 4년 동안 46승을 거두는 데 그쳤고, 지금의 나이(31세)를 고려하면 100승을 넘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박 사장의 124승은 대단한 기록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뿐이다. 만약 올 시즌 필라델피아의 필라소에 진주했다면 속원을 볼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신은 아직 그에게 우승의 달콤한 맛을 보아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도 마운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광속구를 뿌리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다. 그간자나 박찬호가 응원하는 경기 때마다 우리나라 팬에게 평생 등을 육을 다 먹던 당시 LA 다저스의 1루수 에릭 캐포스는 최다승 기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통산 기록 17시즌 평균 자책점 4.36, 124승 98패

로 교수님의 명강의
포스트시즌이라고 다를 건 없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투수는 바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로이 할러데이(33세)다. 그는 정든 팀 토론토 블루재이스를 떠나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투수인만큼 보통 포스트 시즌 데뷔 경기에서 떨 법도 한데, 타자에게 진짜 투수란 무엇인지를 강요하는 일이 일일일 로 교수님은 떨기는 커녕 상대 팀을 압살하랴 마했다. 그는 지난 10월 7일 시애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서 9이닝 8삼진, 1볼넷으로 포스트시즌 역사상 2번째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다. 1966년 양키스 투수 돈 라센이 월드시리즈 5차전 샌프란시스코 다저스를 상대로 퍼펙트 피칭을 선보인 이후 54년 만의 대기록이었다. 정말 로 교수님은 누가 말려

BY 김상현 IMAGES Getty Images

11월은 야구 특집으로 결정했다. 12월은 그림 농구 특집이 되겠지?

굿바이 로이스터

장담하건대 롯데 팬은 그를 잊지 못할 거다.



게드 로이스터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1973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데뷔한 후 LA 다저스를 비롯해 5개 팀에서 뛰다가 연이처럼 1988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돌아와 은퇴했다. 선수로 뛰던 동안 포수와 1루수를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다. 발은 빨랐는데 도루 센스가 부족해서 도루보다 도루사가 더 많았다(발이 빠르다고 도루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뛰고 있는 난닝 나카슈 마크 데 로시의 마이너 버전 정도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다. 한마디

로 요약하면 로이스터는 그저 그런 선수였고, 우승이나 개인 수상 기록 따위는 없었다. 그렇지만 로이스터를 허접스럽다고 짚는 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KBO에서 찾기 힘들 거다. 그가 선수로 데뷔할 때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존재 하지도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는 올 시즌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 맞전? 리버스 스위프를 선물하고 유니폼을 벗었다. 그동안 숫자 8과 친했던 롯데 자이언츠를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으로 체질을 개선시키는 데

는 성공했지만 단기전에서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 경질 이유였다. 롯데 양상문 코치의 말따라 그가 정말 고집불통이고, 전략이 부재한 감독이라면 이번 결정은 팀에 득이 될 거다. 하지만 그의 빈자리를 김재박 전 현대 감독이 차지한다면 롯데에게는 또한 번의 압축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름이 '박'으로 끝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듯 그는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심 타자 이대호에게 거칠게 번트를 요구하는 희대의 명장?이니까 말이다. 그때가 되면 롯데 팬들은 고집불통이고 뭐고 강대 로이스터 감독이 정말 그라워질

롯데 자이언츠의 08~10년 포스트 시즌 성적

08년 0승 3패
→ 팀 원만 못 써보고 말았다.
09년 1승 3패
→ 실책으로 자멸했다.
10년 2승 3패
→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리버스 스위프를 당한 뉴욕 양키스의 심정을 알게 됐다.

유혹의 용찬신

두산의 '달감독'도 결국 이용찬이라는 트랩카드를 발동시키고 말았다.



롯데 자이언츠와 협찬을 마친 김경문 감독의 머리

속은 이용찬2번으로 가득했음 거다. 정재훈을 비롯한 불만은 하나같이 못 미더운데 상대팀 심성은 철벽 불펜으로 두산 타자를 옥죄일 테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시즌 중 세이브 1위를 달린던 투수를 못 쓰는 답답함에 김경문 감독은 이용찬을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집어넣었다. 플레이오프를 한 달여 앞두고 음주운전+팬소니 2중 세트를 저지른 선수를 말이다. 김 감독은 "젊은 선수고 지속의 시기를 충분히 보았으니 속직 투구로 팀과 팬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최 지는 선수만 일단 쓰고 보겠다는 논리는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범죄지도 일단 쓰고 보자는 말과 다르

40p 왼쪽 하단 이어서 >>



일본에서의 통산 기록만 살펴보면 선봉열보다 임창용이 근소하게 더 앞선다. 선봉열 감독 역시 주니치 드래곤즈의 수호신으로 활약할 때 리그에 적응하던 첫해를 제외하고는 일본 타자를 완벽히 틀어막았다. 특히 4시즌 동안 9개의 홈런백에 허용하지 않았던 사실은 충격과 공포다. 하지만 1998~99년의 호성적은 팀 내 중간 계투의 덕을 많이 본 것도 있을 법한 반면 임창용은 홈런 팀의 뒷문을 책임지며 3년 만에 선봉열 감독의 기록을 따라잡았기에 더욱 놀랍다. 지금의 구위리던 메이저리그 타자를 상대해 폭풍 삼진을 잡을 때의 강변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34세)와 고간의 수 수 경력, 실존적인 환경 스캐폴드를 고려하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소속팀의 파격적인 대우(현재 야쿠르트가 3년 계약에 12억 원을 배팅할 기사)를 받고 장기 계약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올해 일본 프로 야구에서 30세이브를 넘긴 마이너 투수 중 1등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건 임창용과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수호신 마하라 다카히로(평균 자책점 1.63, 32세 이브, 5승 2패)였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도망치듯 일본으로 떠날 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무시하던 이들을 머쓱하게 만들어 일본에서 불패 신화를 만든 그가 대단할 따름이다.

자이다. 반대 여론이 급증하자 슬그머니 이용찬 대신 성영훈을 집어넣었던 야구팬들은 김경문 감독의 선택에 몹시 실망했다. 물론 이용찬이 아저런 선수고, 이번 시즌이 실제로 부풀려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사실이고, 윤이중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년 12월 음주 사고로 선수 생명이 끝난 두산 베이스의 김경재처럼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과적으로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이용찬에 대한 악명만 높였고, 그 때문에 이용찬은 불합리한 연봉 동결 및 두산과 KBO의 중복 징계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됐다.

SPORTS

도전! 클라이밍

예로부터 오르고 내리기를 잘하는 남자가 여자를 독차지하는 법.

BY 김아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성동구 서불관리공단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 담벽 또는 실외 암벽을 안전 장비를 갖추고 등반하는 스포츠다. 등반하는 사람, 안전을 확보하는 사람 2인으로 움직인다. (이전 임파서블 강의 톱 크루저처럼 절벽을 맨몸으로 기어오르는 무식한 짓은 클라이밍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 것)



로프

당신의 명줄을 지켜주는 필수품! 실내 등반에서는 탄성이 부족한 로프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야외에서 등반할 때는 떨어질 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탄성이 좋은 녀석을 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실내 로프도 없이 클라이밍에 도전할 용기는 없었지?



퀵드로 세트

길이가 서로 다른 웨빙 스트랩의 양쪽에 카라비너(매우 강한 철제 연결 고리) 튼튼하고 강한 확장 볼트를 로프를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하며, 직선형 곡선형 잠금형이 있다. 가 달려 있는 걸 퀵드로 세트라고 부른다.



초크통

등반 중 손의 땀 때문에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초크 기구를 담은 주머니다. 보통 하니스 안젤벨트 뒤쪽 에 매달린다.



암벽화

일반 운동화와 달리 창이 얇고, 바디가 뻐질뻐질하다. 암벽의 홀드(등반할 때 몸을 지지하는 포인트)를 밟을 때의 느낌이 발에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신었을 때 땀은 나지 않는다.



하니스 안젤벨트

로프를 당신에게 장착하기 위해 착용하는 벨트다. 장비를 가는 고리가 있는 것과 암벽 루트 확보용 장비 세트들 가는 슬링가늘고 둥근 강한 재질의 끈을 사용하게끔 된 것이 있다.



오르는 남자 조규복

서울 운동 암벽클럽 관리이자 조규복 실내 클라이밍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일단 실부터 배고요!”

클라이밍에 도전하려면 겁부터 난다.

계속 부딪히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들다. 높이에 익숙해지면 장비에 대한 불안이 감소한다. 이때는 꼭 두 자정을 점점 높여가며 장비를 믿게끔 한다.

몸에 잔근육이 없으면 안된다

다른 스포츠 선수보다 몸이 훨씬 좋다. 손발이 썩고, 출도를 잡을 때에다 동맥이 바루니까 자연스레 몸에 근육이 생긴다.

야외로 갈 때는 시력저하가 불안하진 않나?

암벽을 오르려면 실물 수위에 예민하다. 병균 잔여액은 밖 한 공간의 외치 이까지 느껴질 테니까 해보라 안다.

클라이밍 시합은 어떻게 진행돼?

연습은 암벽에는 테이퍼가 붙어 있다. 시합할 때는 출도만 붙인다. 한눈에 길을 전부 훑는 루트를 공략해 올라간다. 예선에서 80명 정도 등록했다면 준결승까지 4명으로 추린 후 결승에서 1~4위를 가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처럼 느린 사람도 부상 당할 때가 있나?

오른 루트만 안봐서 뒷자 운동은 6개월 전 적도 있다. 클라이밍 자체가 손 관절 변형, 타박상 같은 지점만 부상을 피할 수 없다.

영화처럼 야외에서 안전 장비 없이 등반하는 사람도 많은가?

드물다. 하지만 야외에서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루트도 많다. 클라이밍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클라이밍에 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높이기 때문이다.

MAXIM 독자가 클라이밍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달라.

밖에 매달려 다리를 벽에 붙이고 오르니까 보면 당신의 숨겨진 복근이 튀어나온다. 몸의 세세한 근육까지 사용하니 몸통 도는 건 일도 아니다. 손발도 강해진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OMNI-HEAT

STAY WARM IN WINTER

열반사해보는 기능을 갖춘 옴니히트 테크놀로지!

라이프 테크놀로지

-최첨단 기술과 만난 아웃도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볍고 따뜻한 자카드 소재나 플리스 소재의 인기가 뜨겁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아웃도어코리아는 이번 시즌 자체 개발한 '옴니 히트(OMNI-HEAT)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 가볍고 쾌적하면서 따뜻한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옴니히트 기술이란 컬럼비아만의 독창 기술로 자체 개발한 안감의 온색 침이 몸의 온기를 반사해 신체 사이에 머무르게 한다. 게다가 일반 안감보다 20% 향상된 보온 효과를 자랑하기에 추운 날씨에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열기나 땀을 옷 밖으로 배출해 쾌적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며 겨울의 불청객인 정전기 발생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다. 옴니히트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히트 엘리트 재킷', '부거서머 진기가림 윈터부츠' 등이 있다.

따뜻함을 20% UP!

히트 엘리트 재킷
(Heat Elite Jacket)

히트 엘리트 재킷은 부피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제격인 아웃도어 재킷이다. 3D 구조처럼 입체적으로 퍼지는 옴니히트 테크놀로지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공기를 축적해 뛰어난 보온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옴니힐드 테크놀로지가 적용돼 발수와 오염 방지 기능도 탁월하다. 한더플!

가격 198,000원
문의 02-540-0277
www.columbiakorea.co.kr



히트 엘리트 재킷(Heat Elite Jacket)



2010년 11월 독자 모델

김선한

뇌쇄적인 눈빛을 발산하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수줍은 소녀로 돌변하는 묘한 매력의 티투이스트가 MAXIM을 찾아왔다. 오, 그대의 이름을

내 몸에 새겨주오! BY 91894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S 김희정, 조정민

HAIR 강주원 / MAKE-UP 김우연(세홍무드)



PROFILE

생년월일 1988년 4월 9일

키 165cm

몸무게 50~60kg 사이

혈액형 O형

종교 무교

취미 음악 듣기

특기 그림 그리기

주방 랜덤

출몰 지역 이대, 작은실, 안양

www.loywars.co.kr

www.cyworld.com/loywars14

촬영 소감

다음에 또 찍고 싶다. 험

내 몸에서 가장 예쁜 곳

눈. 초췌, 아니 초롱초롱하다. 남들이 예쁘다고 해서 그런 줄 안다.

이상형

키 크고 마르고 눈이 옆으로 찢어진 생김새 없는 남자. 여기에 콧수염이 꼭 있어야 한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취미

문제 인형한테 말을 건다. 가끔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하는데 최근에 지어준 이름은 팔순이다. 이유는 돼지 인형이었기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는 나만의 기술

계속 눈을 마주친다. 그리고 웃는다. 한 50% 정도는 넘어오지 않을까?(웃음)

첫 키스

음, 언제 했더라?

주로 마시는 술

참이슬 프레스. 설탕하게

남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타투

내 이름. 절대로 바람 못 피우게

다음에 하고 싶은 코스프레

바니걸이나 게이트 코스

나에게 MAXIM이란

남자친구는 안 보여주고 나만 보는 잡지. 예쁜 여자들이 나오니까 내가 나온 페이지만 보여줄 거다.

MAXIM 독자들에게

나나 티투에 관심이 있으면 작업실로 놀러와라. 그리고 MAXIM 많이 사서 보라.



PROFILE

생년월일 1988년 4월 9일

키 165cm

몸무게 50~60kg 사이

혈액형 O형

종교 무교

취미 음악 듣기

특기 그림 그리기

주량 랜덤

출몰 지역 이대 작업실, 인양

www.toywars.co.kr

www.cyworld.com/toywar2



MAXIM 표지 모델처럼 판타스틱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2010 MAXIM 걸 넥스트 도어 콘테스트



최고의 남성 잡지 MAXIM과 함께하는 독자 모델 콘테스트 상금 2백만 원과 모델 데뷔 기회를 잡으세요!

세계 최고 남성 잡지 MAXIM에서 여성 독자 모델을 찾습니다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010 MAXIM Girl Next Door 콘테스트는 MAXIM에서 주최하는 독자 모델 콘테스트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타프가 당신에게 멋진 하루를 만들어 드립니다.

최종 우승자는 상금 200만 원을 받으며 2011년 MAXIM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독자 모델의 후보는 MAXIM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방식 및 우승자 선정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를 참조하세요.



2010 걸 넥스트 도어 콘테스트는 MAXIM 독자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MAXIM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GIRL-NEXT DOOR를 클릭하세요. 콘테스트에 참가한 독자 모델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맘에 드는 차차의 후보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많은 다운로드수를 기록하여 위를 차지하면 2011년 MAXIM에서 그녀의 자태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본인 사진, 연락처, 기타 프로필과 함께
modal@maximkorea.net로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분동지안 있고, 임의 없는 분심할
신청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은 사함합니다.

촬영 일정 협의

콘테스트 참가 신청자 중 축적받은 매력의 소유자를 MAXIM 편집부가 선정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선정된 독자 모델은 담당 에디터와 사전 미팅을 하고 촬영 콘셉트와 일정을 논의합니다.

우승자 선정 방식

독자 모델의 후보는 www.maximkorea.net에서 고화질 사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모델이 우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_QNA@maximkorea.net



불량남녀

웬 마친 여자가 30분마다 전화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른다던? 그런데 그녀가 엄지원처럼 예쁘고, 새참하고, 도도한 애교쟁이더라면?



매끈하게 빛나는 세하얀 팔다리와 어깨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속 엄지원은 전형적인 미인이 아니라 더욱 돋보이는 여배우다. 특히 상대

남자 배우를 타이르거나 나무랄 때 싸울 때 폭 발하는 콧소리는 그녀의 매력 중 뽀뽀다. 원조 우웃웃깔 엄지원이 이번엔 성격 파란자로 돌아왔다. <불량남녀>는 빛 독축이 직업인 성격 불량녀 김유정엄지원이 집요한 빛 독축에 대비할때처럼 버티는 신용 불량 형사 방국현임창정을 만나 벌이는 코미디를 담았다. <사랑은 빛을 타고>라는 제목으로 개봉할 뻔했다고 하니 적절한 로맨스가 있는 모양. 예사에 억울한 오해를 받고 서러워하는 피질남 연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임창정의 연기가 시궁글하다. 영화 내내 예쁜 누나가 돈, 돈, 돈 하는 모습을 보고 싫다면, 그리고 30분마다 빛 독축 전화를 거는 집요한 여자가 하나도 무섭지 않고, 신경질적인 여자가 딱딱 질러대는 콧소리를 즐기는 용자라면 <불량남녀>를 극장에서 만나보자. 사실 예쁘면 다 용서할 수 있잖아? **11월 4일 개봉**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나가 있을 뿐



예고면 보기



신용 불량

신용 성격쟁이

영어 SF <불청객>의 감독 이용일과의 조우

BY 이용일



예고편도, 감독도... 뭐 이런 게 있나 싶었다.



영화 정보 더보기

당신이 2006년부터 반지하 자취방에서 치지 비슷한 택수와 인생과 잉여물과 짝은 SF 영화가 디디어 개성했다. 간격투랑하고 얼얼할때 내가 한때만 봉이 김선달 같기도 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촬영 시작할 때 내 돈 4백만 원 아버지 돈 1백만 원 부웠는데 나중에 돈이 없어 후반 작업을 못 했다. 올해 부라부라 영아에게 손 벌려 차용증 쓰고 착수금을 준비했다. 차용 조건은 2년 안에 상환할 것 이지는 약정하지 않았다. 대신 다 큰 놈이 손 벌린다고 한소리 없었다.

고시 생활은 어땠나? 2008 대졸을 실다가 재채하고 번사시공을 했다. 다 불고 2에서 떨어졌다. 동시에 사운기가 애도. 부모 가슴에 못 박고 가슴도 했다. 결국 고시 포기하고 고시원 방바닥 굶으며 잠만 자는 잉여인간이 되었다.

하는 줄았나? 서울대 출신이 맞긴 맞는데. 사람들이 나를 '잉어의 딸을 쓴 엘리트'라고 부른다.

패션 생활 동안 무엇을 즐겨 먹었나? 주로 피자. 특히 꽃게랑과 콘플레이크.

영화 속 무대가 된 적이 실제 실연과도 같았나. 두 배우도 고시생 때 같이 실연 형들이다. 실연으로 등장했다.

출연료는 어떻게 정산했나? 노가타이다. <불청객>으로 손익(수익이 아니죠) 발생하면 공연도에 따라 배지를 주겠다고 공연했다. 근대 다들 반응이 그냥 그렇다.

시청발달이니까 그런 거냐 배우와 스태프의 일정을 매진 역설 장부를 만들어 내 컴퓨터에 저장해뒀다. 진짜 줄 생각 있다. 물론 내 제자리 4백만 원을 갚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주변인 도움은 '후원'이다. 투자가 아니다. 그러나 생활의 의무가 없. 어렸거나 '영실이 해라' 차원의 후원도 없었던 걸로.

고시 생활에서 가장 인생 퇴색하는 시점 일이 뭘었나. 고시보도 다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지원금액이 높다. 이해된 면도 있고. 미련이 끝만 푸는 영화만 주변 사람에게 원한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이유는? 도?도 힘들고 성공하기 더 힘들다. 대한민국 상업 영화 감독 수가 국회의원보다 적다.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상

향력 리더십 끈기 지식 미래와 인연을 보는 안목을 반드시 갖춰야한다. 자격이 있는데 영화감독을 하겠다? 그런 능력 없는데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 모겠다면 단편영화도 만들어보고 스스로를 객관화해야 한다.

오, 그럼 당신은 그 조건을 다 가졌나? 좀 부족한 건 있지만 다른 것으로 커버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SF 다음은 호러인가? 난 호러를 안 좋아한다 정보보다 참신한 이야기가 때때로 영화를 만든다. 백남 키에에 맞아 시 'SF 해라' 때때로영아영아 나온(불청객) 역시 돈 스타 때문에 화가 난 게 개개 시작했다.

스트라가 좋은 예로물이 될 수도 있겠군. 음, 그렇지.

그.자.자. <불청객> 속 외계인포인트맨은 왜 영어를 쓰나? 카툰에서 영어 육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 미국 영화를 주로 보니까. 핑지 육은 영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국어 일어 다 했었는데 애용했다.

누군가 당신을 '잉어의 희망'이라고 칭했나. 잉어의 희망이여, 여전히 있나? 없다. 없어. 너무 오래 잉어로 살아서일까? 하버튼 늘 재밌단 것이다. 그리고 인제나 오픈되어 있다.

THE UNINVITED



불청객

반지하방에서 사는 민선 고시생 진식 취업 준비생 강영. 30살의 패인은 잉어에게 하루를 보내다 가 갑자기 은하인방 혼리 스타에서는 우주총장자 포인트맨의 침략을 받는다. 집과 함께 함께 우주주에 날려진 잉어인간 3인이 고향별로 굳이 좋아하기 위해 용 쓰는 내용이다. 조진환 CG 배우들이 보여준 극강의 잉어인간 1인가 돋보인다. 감독 이용일 배우 김진식, 최영준, 이용일 <http://blog.naver.com/bulchungsaek>

MOVIE GEAR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의 비결

카메라: SONY PD 170, SONY HVR-Z61 | 액션의 (40특공) 대에서 제일 많이 쓰인 건데 요즘 잘 안 쓴다. 나중에 보충 촬영할 때는 화질이 더 좋은 카메라를 썼다. PD 170으로 낮춰서 촬영을 일사천일했다."

조명 공간: 일본전 300000원 원자식, 삼광시스템 | '삼광시스템'은 비주얼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넣었다."

달리 카메라 이동차: 엔드루프 삼광시스템 | "같은시점에서 자주 쓰는 바퀴 달린 삼광이다. 한테 달리라 하면 레이어가 이동까지 달리라 하는데 그래픽은 자원이 너무 부족했다. 마야도 3D로 렌더링하는 사람이 없어 삼광때에 그냥 놓고 촬영했다."

후반작업 컴퓨터: 윈도우 2007, 2TG, 편집은 프리미어 CS 1 | "액션에 홍보 영상 삽입을 하기엔 프리미어의 달인이 됐다. 이상하게 가기도못한 CG는 내가 직접 했다. 예를 들어 삼광에서 집을 일고 무료로 빌려서 올라가는 장면이다. (부동산의 포인트맨 차의 같은 것. 차내 내 이야기 가되나만?)"

PREVIEW

월 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



22년 전 개봉했던 올리버 스톤의 <월 스트리트>가 돌아왔다. 1987년 코스닥에 수렴했던 고든 게코(마이클 도글라스)가 호호할때가 돼 출소했다. 인간의 탐욕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식의 교조적 영화는 아니나 걱정 마라. 탐욕은 죄가 아니다. 10월 27일 개봉

된장



된장 바른 잠진 감독 사건의 영화가 왔다. 무시무시한 살인마가 된장을 먹다 결국 5년 만에 감옥으로 PD 최유진연출 봉이 그 기이한 된장을 만든 된장재조합요원을 찾아 나서면서 온갖 미스터리한 사건이 터지는 이야기다. 경찰서에 된장을 팔아야하? 10월 27일 개봉

참을 수 없는



일본으로 300000원 임대. 불리는 T.O.P.A. (성공작)의 썸겨운 것이 좋아하는 권환인 감독이 감독. 금쪽같은 1800명 영화를 쓴 감독이다. 애워의 친구, 직상 선배, 선배의 아내, 뭐 하든 주변을 굴복하면 뭐든 이슬이슬한 러브라인을 담았다. 설마 이 예고편이 진부한 게 없겠나? 10월 27일 개봉



추천! 하반기 신작 미드

BY 김희영

(로스트)와 (24)가 끝나서 허전한 당신의 마음을 달래줄 신작 미드를 골랐다. 세 개만 추리느냐 힘들었다.

워킹 데드

미드에 좀비가 나온다니까!



좀비를 소재로 한 미드를 본 적이 있나? <데드셋>을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영국 드라마며 좀비가 꼬여야 하는 미드라니. 레이첼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흥분이라고나 할까. 좀비들이 늘 그렇듯 (워킹 데드)에도 좀비 때와 소수의 생존자가 등장한다. 여기 에 사면 많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도 꺼졌었으니 적어도 지루할 일은 없을 거다. 게다가 (쇼생크 탈출)의 감독과 (타이타닉) 제작자가 뭉친 만큼 더욱 기대 된다. 좀비 때가 30로 달려드는 영화도 좀자인 컴컴한 방구석에 차박서 보는 좀비드라마가 아예 더 그럴싸하지 않나? 시즌 10 방영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시즌 2 제작이 들어갔다는데 더 이상 무소 일이 필요하냐 이런 시즌 단 하루의 미드를 보아 한다면 바로 이거다. AMC(10월 31일부터 방영 예정)

로스트 걸

매혹적인 서류버스의 등장



일단 남자의 기를 쪽쪽 빨아먹는 여자가 주인공이다. 단순 접촉만으로도 상대를 홀리는 게 가능한 능력 '보'는 상대방의 기를 섭취해야 할 수 있다. 그녀는 본의 아니게 자주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살던 곳을 떠나는 생활을 반복한다. 자신이 어찌든 '남의 기' 빨아먹는 기를 모기 같은 생각인 여자 가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그녀가 자신과 관련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간다는 게 대략적인 줄거리. 보 역을 맡은 여주인공 애나 실크의 나이는 무려 37세지만 갱년기 등장하는 생색 유래를 보면 그녀가 불혹을 앞둔 나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어쨌든 롬메는 합격점. Showcase(방영중)

노 오디너리 패밀리

슈퍼히어로 가족이 온다



비행기가 아이폰 강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가족의 이야기. 간신히 목숨을 건진 가족들이 사고 후유증을 극복해나기며 진정한 가족에게 깨닫는 휴먼 드라마. 일단엔 추천 따윈 안 했겠지? (노 오디너리 패밀리)는 구시상생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뜬금없이 슈퍼파워가 생긴다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한마디로 드라마판 (인크레더블). 아빠는 엄청난 힘과 초능력, 엄마는 스피드, 딸은 타인의 생각을 듣는 능력이 생겨, 엄청난 아이들은 갑자기 초대가 된다. 뻔하던 뻔하던 초능력 드라마와 달리 아직까진 이야기가 잘 이름이 나가고 있다. ABC(방영중)

IT'S REAL

리얼리티 프로그램 최고 VS. 최악의 순간

우리를 웃게 하고, 화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리얼리티 쇼 그래서 더 재밌다



Mnet (슈퍼스타K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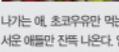
굉장히 범안 되던 오늘 덜컥지는 누가 제일 궁극해진다. 케플러 역사상 최초로 두 저力士 시청률을 기록한 리얼리티 쇼. 반박이 기다려지는 케플러 프로는 나가 처음에! Best Moment 마음에 드는 여자 출연자가 나왔을 때 Worst Moment 60초 후에 공개한다. (2초 후) 첫치고 열 배리얼리티프로그램비리얼리티프로그램이 겹치기 겹치기 겹치기 겹치기~ 겹치기 겹치기 겹치기 겹치기 레조고 외아~ 이름은 외모드하게 뭉은 멧게~ 그레이트미스트 제로수가 XX 골라 제로~



김정아 비열했어!

MBC (우리 결혼했어요) 쇼시 멤버를 두 명이나 유 부녀로 만든 결혼 프로그램. 어디까지가 가실까 어디까지가 리얼리티 당치

Best Moment 사연이 등장하는 때 순간 Worst Moment 조권, 정유하에 의문해 하(레이다 프로그램) 끝나는 순간 김광민 방구석에 혼자 차박하 있음을 깨닫는 때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빠의 약 잔들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애, 울 누드 로 문네를 산책하는 애, 집

나가는 애, 초코우유만 먹는데 애, 어른 뽀 때리는 애 등 무서운 애들만 잔뜩 나온다. 영하. 나 장가 안 갈래

Best Moment 애가 드러내 경정하는 순간 Worst Moment 그 외의 모든 순간

MID-CLASS

몰라도 되는 미드 상식

어디까지나 미드 보는 남자라고 가정하게 읽히게 삼?

지금까지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는 미드 주인공은 (허우스의 후 로리허우스 박사)로 한 시즌 4억 6,4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1983년 방송된 인기 미드 <베아> 시리즈의 최종화는 1억 597만 명이 시청해 미국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그 후로 깨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2월 8일)에 열린 제44회 슈퍼볼에 자리를 내줬다. 이날 슈퍼볼 경기는 무려 1억 660만 명이 시청했다. 미국 예매는 할 일이 없?

욕망의 달인 석출품은 (프린스 브라이드) 시리즈의 단골이다! 백작 패까지도 감독에게 절대로 나온다. 프린스를 브라이드(38회)까지도 다른 감독에 갈린다. 심지어 최근 영화 (샤프트)의 이블 4에서에도 같은 채 등장한다. 이게 뭐하는 사주에니?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퍼시픽)은 HBO의 잔작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후광을 업고, 계가 제비꽃을 린 당도 줄고 영이나 몰라도 줄고 저쪽은 시청률을 유지했다. 그리고요 애(상생)는 최우수 TV 마(사리) 작품을 받았다. 불행해서 상이러도 꺼낸애준 잔?

인생 퇴겔 게임 3종 SET

BY 김성현

이건 뭐 타임머신도 아니고 OTL



게임 동영상
보러가기

문명 5

문명하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기종 PC 제작사 2K GAME 장르 전략 시뮬레이션 발매일 10월 19일 가격 40,000원



타임머신을 타고 싶나?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문명 5》를 질러라. 게임 설치가 끝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2071년 10월 즈음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거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실시간 시뮬레이션 게임이 대세인 요즘에 고대부터한 단체 시뮬레이션 게임을 누가 해주고 비웃기려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럴 땐 대꾸하지 말고 그냥 ‘씨익 웃어줘라. 《문명》이란 악마의 게임에 영혼을 판 수많은 잉여 인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 말이다. 게임의 틀은 간단하다. 자신이 선택한 문명을 선사시대부터 우주시대까지 발전시켜서 다른 문명을 쓰러지거나 정복하면 된다. 문제는 당산을 귀찮게 하는 주변국을 정리

해서 세계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다 보면 어느새 동이 터지고 출근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거다. 게이머들이 왜 세계 5대 문명을 《문명 1~5》라고 부르며, 이 게임을 만든 시드메이어를 회대의 악마라고 부르는지를 말이다.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영어와 한하지 않은 언어에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비자본한 우리나라의 능력자들이 한글 패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이 나올 즈음이면 한글 패치가 완성됐을 거다. 저지식 거북이를 광범하게 보내고 싶다면 《문명 5》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시작과 동시에 당신의 2010년은 물론 2071년도 ‘문명’ 할 지요 모르나마 말이다.

COMING SOON

와우: 대격변

있을 만한엔 나오는 게 바로 확성백



그날이 다가온다. 당신의 정처고 있던 와우 계정을 캐워라. 부활의 두루마기를 미리 정겨두고, 친구 초대도 작정히 활용해서 (와우: 대격변을 함께 즐기기 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며 게임에서마저 고독한 슬로가 될 수는 없겠어) 이번 확성백 (와우: 대격변)에서는 최고 레벨이 85로 상향 조정되며 얼라이언스 전쟁에는 녹대간인. 호드 진영에서는 그보런이 새로운 종족으로 추가된다. 기존 캐릭터를 비롯해 새로운 종족을 만렙까지 키우다 보면 당신에게 악몽이나 다름없는 크리스마스도 손익에 지나지 않겠다. 오븐 시기도 12월 7일 소를 키워줄 여간간수도 없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적절한 시기다. 행쟁, 너무 적절해서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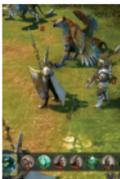


FM 2011

미안보다 지독한 게임이지?

기종 PC 제작사 2K GAME 장르 전략 시뮬레이션 발매일 10월 19일 가격 40,000원

유럽에서는 이런 사유로 거론되는 중독성 강한 게임 《FM 2011》이 우리 곁을 찾아온다. 《FM 2011》이 각각의 리그 정보와 풀리들이는 순간 당신은 명의 신임 감독으로 변신할 거다. 잔적과 큰 차이점은 없다. 대신 독일 뉘른베르크 SV 팀에 소속된 손흥민 선수의 포텐셜 넘치는 유망주로 등재해 그를 영입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 게임의 무서운 점은 (FIFA)나 (워닝윙맨)처럼 단기간의 플레이로 만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해진 예산으로 선수 수급하고, 당산편의 팀을 완성해 각 리그를 제패하는 과정은 점점 강해지는 적을 차례차례 꺾어나가는 소년 민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팀이 경기 후 반이나 연습장에서 극적인 한 골을 넣는 순간 하딩크처럼 하늘을 향해 어버졌을 여러 번 날리던 게임 오버. 이미 당신은 《FM 2011》의 끝수 노예다. 여차천구가 소를 키워둔 지 알든지 방에 채워져 축구를 운영하고 있을 거면 해가다. 당할야 당신의 노력은 이미 2011년을 가리키고 있었지. Goodbye 2010!



마이트앤매직 히어로즈 6

단체시뮬레이션 게임의 끝판왕

기종 PC 제작사 블리즈 엔터테인먼트 장르 전략 시뮬레이션 발매일 10월 19일 가격 40,000원

《문명》 시리즈는 초상자가 게임임을 즐기 위해 광명해야 할 것이 그나마 많은 속했다. 반면 《마이트앤매직 히어로즈 6》(이하 히어로즈 6)는 《스타크래프트 1》을 비롯해 시뮬레이션 게임의 줄기 강함이 있는 시뮬레이션이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데다 중독성은 《문명》 시리즈 못지않다. 그래서 단체 시뮬레이션 게임의 진정한 끝판왕으로 불린다. 싱글 플레이보다 다른 게이머와의 멀티 플레이에서 게임의 즐거움을 배가 되는데, 특히 소수의 강한 유닛으로 자신의 부대가 상대의 밀가지 부대를 학살할 때의 쾌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번 작품은 (원래: 미크 오브 키오스)를 개발한 블리즈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해 RPG 요소가 한층 강화되었다. 새롭게 재탄생은 커뮤니티 만타메이스트로 플레이어가 콘텐츠를 등록하거나 온라인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하니 전략의 팬이라면 기대해도 좋을 거다. 히어로즈 (다마 3종)를 기다리는 게 한겨울 한기중이 아니라 《마이트앤매직 6》로 6개월 정도의 1년째 게임 타임워프를 할 수 있으니 작별도 드록! 대신 그 기간에 당신의 삶은 확실히 양산스러워질 거다.니 신혼이 선택하라. MAXIM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달의 음반&공연

MUSIC BY 김성환 THEATER BY 김민욱

11월에 이슈가 될 만한 녀석들만 추려봤다.



JYJ

The Beginning

스타트랙도 아닌데 다시 시작하다!

동방신기는 오래나라 남자 아이돌 그룹의 예뻐게리 온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신神雜貨가 될 거란 소리다. 과도한 칭찬 아니냐고? 동방신기 4집 《미로》의 방송 영상을 찾아봐라. 지금까지 나온 남자 아이돌 그룹을 통틀어 이만한 비주얼과 실력을 갖춘 그룹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게다가 그들은 더 이상 동방신기로 활동하지 않는다. 신화가 될 필수 조건에 마진표를 찍었다.

그렇다고 남자인 당신이 카시오편이 회원처럼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보컬을 담당한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모여 JYJ란 팀을 결성했다. 하지만 그들이 SM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에이전시 품을 떠

나 만족스러운 음반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컬로서 능력은 검증 됐지만 작곡과 프로듀싱 능력은 별개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이 해체 후 인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도 JYJ에게는 부당하다. 다행히 국내 음반시장이 일본 시장의 음반 도매업자에게 바로 넘기는 형태라면 일부 유통은 가능해졌지만, 이종계약 문제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사람들이 신인(?) 그룹 JYJ의 월드와이드 음반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JYJ가 헤르모인 아이돌 그룹의 성공 스텝과 사베레 같 수 있을지 음반을 들으며 당신이 직접 판단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다.



에릭 클랩턴
Clapton

기타의 신이 신보를 끼었다.

지금이야 스티브 잡스를 낳은 동네 아저씨로 보자면 밴드 '크림(Cream)' 시절에는 현란한 기타 에로상으로 사랑의 혼을 쏟는 기타의 신이 바로 에릭 클랩턴이다. 자신의 이름(클랩턴)은 내용은 이번 음반은 과하지 않고 여유가 풍어는 음악을 들려준다. 블루스의 파스트템포로 감미로운 블루스 곡들은 물론 재즈를 비롯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팝 음악까지 총 14곡이 담겨 있다. 세릴 크로로의 편이리던 그와 함께 부른 '다이아몬드 메이드 프롬 레인(Diamonds Made From Rain)'이 특히 마음에 들 거다. 그동안 음악 같지도 않은 음력으로 싸든 귀를 청하는 데도 인정스러웠다. 당신도 가끔 하늘을 보듯 건강한 음악을 듣고 싶어야 하지 않겠나? 그럴 때는 거장의 관록이 묻어는 신보를 고르는 게 최고다.



존 레넌
탄생 70주년
디지털
마스터링 음반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예나 지금이나 명곡이 주는 감동은 변하지 않는다. 존 레넌이 세상을 떠난 지 30여년이 지난날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음악에 열광한다. 그를 대신할 음악가는 등장하지 않았고, 경망한 강요하는 자들이야말로 국가와 기존 체제에 출연이 반기를 들던 그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번 기념 음반은 8장의 스튜디오 음반 외에도 CD, CD+DVD 7가지 버전의 베스트 히트곡을 포함한 2중 박스 세트가 새로 추가됐다. 비틀스가 아닌 존 레넌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라면 이번 음반이 더욱 반기를 거다. 2009년 비틀스의 리마스터링 음반을 구해본 사람은 영국 런던의 EMI 에비로드 스튜디오 엔지니어들이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도 70주년 기념 음반을 지을 이유는 충분하다. 음미! 정말 끝내주어진다.

REVIEW



뮤지컬 《특식 히어로》

피질이 멜리안 환경운동 헌신하고 싶었다 유독 화학 물질에 빠진 후 파워 넘치는 복색 괴물로 변신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의 뮤지컬. 무대에 절찬된 옥쇄와 선혈이 낳았지만 다양한 레퍼토리 티그 코드가 잘 버무러져 부담 없이 즐길 만했다. 여기에 미국 뮤지컬 특유의 가벼움과 경쾌한 유머가 시작질하게 끼어들어 시계를 볼 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당신이 공포영화 (히어로) 스토리를 좋아한다면 뮤지컬 《특식 히어로》도 분명 마음에 들었을 거다.



뮤지컬 《스캅어캣》

연제 9월 28일~10월 2일
어디서든 11월 1~4일
문의 02-6399-5202

아내가 원하던 기와 함께 생애를 구하려 가는 생애를 평화가 출거나. '최초로 애가 열광한 세상에서 가장 긴긴 삶'라는 수사대명어 2인간 내내 배꼽이 붙어 있어 힘들 정도로 웃게 된다. 이웃을 안헤 숨은 문자 코드를 찾아내는 것 역시 스캅어캣의 즐거움이다 애당초 역을 맡은 백영규, 정성화, 불꽃 튀는 연기 대결도 볼 만하다. 참고로 '스캅어캣'이란 이름도 이 뮤지컬의 원작 (포터 미의 상에서 스캅 캔을 낚사하는 장면에서 비롯됐다. 뮤지컬을 보다가 캔이 라는 책을 읽고 싶다면 싸여라.



연극 《아》

연제 11월 4일~12월 5일
어디서든 세종문화회관 MM아트
문의 02-6399-5202
www.oopentheater.co.kr

극적이 들어사자마자 풍기는 강력한 항행는 조선시대 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연극 00는 요즘 유행하는 4D 영화의 콘셉트를 이미 10년 전에 구현한 셈이다. 영화 《왕의 남자》의 원형으로 더 유명한 00는 영화에는 볼 수 없던 생동감 넘치는 경쾌함이와 친숙한 고향 정감을 더해 당신이 연극에서 눈물 낼 수 있게 만든다. 특히 무대를 낚아치는 공기와 강령의 안는 20여의 예크라베티 인무를 개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만든 정돈느는 크게 뜨고 지켜볼 것

송자호(적룡) > 김혁(주진모)

쇼 브러더스가 흥풍에서 60~70년대 무협영화를 암산하던 시절 송자호 역을 맡은 적룡은 당대 최고의 꽃미남 스타였다. 그러나 <영웅본색>에서는 반대머리의 이저씨로 출연 세월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영웅본색2>의 장국영 주연 발이 보여준 미친 존재감 때문에 긴축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웅본색>의 주인공은 엄연히 적룡이다. 적룡이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의 연기가 아니었다면 범죄자 형과 경찰 동생이라는 애증의 관계를 그리기가 어려웠을 거다. 영화 후반부에서 송자호가 동생 주아-의 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채우는 장면은 진짜 남자의 모습 그 자체다! 주진모가 연기한 김혁도 나무랄 데는 없었다. 그는 얼굴만 클로즈업해도 조각처럼 보이는 뛰어난 외모에 수준급 연기력도 갖춘 배우니까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 적룡이었다. 안성기급의 포스를 내뿜는 배우 앞에서 아직 덜 명군 주진모의 연기는 빛이 바랬다.

송자호(장국영) > 김철(김강우)

강한 척 하지만 내면에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감성을 가진 남자를 연기하는 덴 장국영만한 배우가 없다. <영웅본색>에서도 마찬가지. 송자호는 경찰로서 범죄자인 형을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으려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경찰직을 망설임 없이 포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적자>에서 김강우가 연기한 김철이라는 캐릭터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김혁 주진모와 대치하는 순간 그가 보여준 눈빛 연기만큼은 <영웅본색>의 장국영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였다. 극중에서 형에게 쌍욕을 하는 패륜적 행동도 별달없이 애교롭게 소화했고 말이다. 골라.



삶도 죽음도 함께 한다!



동영상 보기

소마(주윤발) >> 영춘(송승헌)

<영웅본색>의 주인공은 소마(주윤발)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화팬은 그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되지 않은 분량이지만 그만큼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예이다. 특히 워즈비에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장면(천민자본주의를 비꼬는 거만 이자)도 있지만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장근석의 어설은 하세 따위 가볍게 놀려주는 진짜 남자의 폭풍 감자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때는 지금의 주윤발이 다시 출연해도 당시의 포스를 보여주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말할 만큼 진정한 전성기 한미디로 리즈 시절이었다. 송승헌이 연기한 영춘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정도로 아슬아슬 않았고, 하얀 슈트도 멋지게 소화했지만 그게 다였다. 김희 누가 흥풍 느리리 영화에서 주윤발과 상대할 수 있었냐. 그는 생방송을 버린 것만으로도 화보가 되는 흥풍 누오르의 전설이 아니겠!



BEST OF BEST

- <영웅본색>: 주연배우 모두!
- <무적자>: 주연 배우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시투리의 연금술사 김지영

BATTLE 2 악역

아성(이지웅) << 태민(조한선)

〈무적자〉는 조한선의 재발견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그의 연기가 돋보였다. 〈폭발전선〉에서 유지태의 악역에 비견될 만큼 악질 양아치 긴자가 온몸에서 팔팔 흐르다는 얘기는 예기다. 〈영웅본색〉에서는 그저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진 악당 아성(이지웅)이지만 〈무적자〉에서의 태민은 영화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배우를 다 합쳐도 조한선의 포스를 넘기지 않았다. 극장을 나선 후 한참 동안 조한선의 격한 아이러니한 기분에 남는 관객들도 적지 않았을 거다.



BEST OF BEST

그러나 최고의 악당은 〈영웅본색〉의 송자결장국영(정동성) 형을 동배처럼 때는 패풍의 최고봉을 보여준다. 극중 악역도 이 정도까지는... 〈영웅본색〉에서 장국영이 적명에게 친할때만 건디 이유가 있다. 자기도 사랑인데 그간의 미안함이 가슴속에 가득 찼을 테니까 말이다.



BATTLE 3 엔딩

영웅본색 >> 무적자

돈 가방을 들고 흥공으로 탈출한 주윤발이 보트를 타고 되돌아와서 의뢰 맺어진 형제를 구하려고 총을 난사하는 장면은 노르리 역사상 최고의 한 장면이다. 여기에 흘러나오는 OST '당연정'은 그야말로 감독의 쓰나미! '강호에 의리가 명예에 떨어자도 남자는 역시 의리다'라는 요즘 시대에는 싸일도 안 먹히는 이야기로 죽음으로 증명하는 그의 모습에 7~80년대에 발을 딛고 살아온 남자의 가슴은 끓어올랐다. 〈무적자〉도 엔딩 장면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살벌한 총격전을 벌였지만(총격전만 놓고 보면 훌륭했다) 불행히도 총기 사유화가 금지된 날기 좋은 우리-나라의 한계 때문에 화끈함과 비례해서 몰입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안타깝게도



BEST OF BEST

〈영웅본색〉에서 주윤발이 정렬히 신화하는 장면. 아 우리의 진정한 띠개(참!)

BATTLE 4 영상&사운드



BEST OF BEST

고민하고 지치고 할 것도 없다. 당연정을 찬양하랴!

영웅본색 > 무적자

영성은 〈무적자〉의 압승이다. 24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영상의 매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어두운 실내 총격 장면에서도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될 만큼 실감 나게 화면을 잡아냈다. 〈영웅본색〉의 팬이라면 격세지감을 느낄 거다. 하지만 사운드는 녹음된 음질이 필리핀만 제외한다면 단연 〈영웅본색〉의 승리다. '당연정'이라는 불세출의 OST는 물론이고 작과 대치된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효과음은 극적 긴장감을 한층 더해준다. 〈무적자〉는 '당연정'을 비롯해 〈영웅본색 2〉의 OST도 들을 수 있던 게 장점이지만 이와 동시에 〈무적자 2〉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암시하니까 반가우면 서로 웬지 아쉬운 감정이 교차한다.

BATTLE 4 감독

〈영웅본색〉 >> 〈무적자〉

〈영웅본색〉으로 오우삼은 홍콩 노르리의 정점을 찍었다. 할리우드에서의 행보는 아쉬움이 가득 묻어나지만, 이때의 오우삼은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을 비롯해 수많은 비디오 감독들이 칭송하는 하이라이트였다. 빈번 송해성 감독은 〈무적자〉를 통해 (파이낸)이 소 뒷걸음치다 만든 걸작이란 사실을 증명했다. 〈무적자〉를 보면 때때로 좋은 화면, 배우의 연기 이외에는 칭찬해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나까 말이다. 때로는 좋은 프로듀서와 잘 찍힌 원작의 힘만으로 좋은 영화가 나오기도 하는 법이다.



BEST OF BEST

〈영웅본색〉의 느릿한 속도로 날아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총알! 그 덕분에 우리는 BFM 총을 들고 무던하도 동배를 싸돌아다녔다.

결 론

리즈 시절의 오우삼 감독 + 쇼 브라더스의 적자 송자결 + 노르리의 황태자 주윤발 + 우리 같은 남자 장국영 = 〈영웅본색〉, 홍콩 노르리 역사상 최고의 영화

(파이낸) 우려되는 송해성 감독 + 관철은 연기력의 주진모 + 패 쓸 만한 김강우 + 웃방은 잘 받는 송승헌 + 레일 빛는 악역 조한선 = 〈무적자〉. 원작의 틀에 갇힐 지경도 안지 못한 그저 그런 리메이크작.

BY 2010 PHOTOGRAPH BY ARE STUDIO

시모카와 미쿠니

오덕들의 여신 시모카와 미쿠니가 MAXIM을 방문했다. 모르는 척 하지만, 애니 덕후인 당신이 그녀를 모를 리 없으니까 말이다

우리나라 오덕에게 당신은 여신이다.

여신이라니 기본은 좋은데 앤지 최송한 마음이 든다(웃음). 이왕 여신이라고 불렸으니 끝까지 여신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오덕이 아닌 MAXIM 독자도 있으니까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플 메달 패닉)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노래하는 가수다. 라디오 및 뮤지컬에도 출연 중이다.

가수만으로 밥 먹고 살기 힘든 건가? 이것저것 참 많이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갯조>, <코라스리안> 등을 보러 다니면서 곡 한 번 뮤지컬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망설이지 않고 도전했다. 배우, 스태프 모두가 훌륭했어.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본격적으로 부르게 된 언제인가?

5번째 싱글 음반을 발매한 후 애니메이션 <환상기전 서유기>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후로 싱글 음반은 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다.

아이돌그룹 체인지 멤버로 데뷔한 지 벌써 2년이다. 당신은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으니까?

자급자립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당신이 부르는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세련된 제니퍼(J-POP)가 느낌이 든다. 특히 <영창마노스>를 듣고 고운 음색이 매력적이다.

애니메이션 주제가와 일반 노래를 구분하지 않지만 멜로디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라 고마를 따르겠다.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나 혼을 담아 부르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번엔 내눈은 애니메이션 커버 앨범(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음반도 마찬가지다.

연전과는 미국 록 페스티벌 무대에 곡 한 번 시보고 싶은 아이기를 들었어. 감동의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이 온다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나의 오리지널 곡 'それが愛でしょう'가 그렇게 사랑이예요! 이 좋겠다. 록과는 담을 쌓은 노래지만 팬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를 거다. 그들이 없었다면 가수로서 내 삶도 없었다.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달라. 당신 눈앞에 있는 남자 에디터를 골라도 좋겠지 않겠어?

겐 새! 우!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다. 너무 멋있다. 배려심이 출만하고, 늘 한 사람에게 바라보는 바람이 없는 남자!

총! 그랄군! MAXIM 촬영 소감은? 최고다.

늦었다. 난 이미 상처받았던 말이다!

그녀 목소리가 궁금한가!

이름에 검사사 애니메이션도 행해보는 거다.

플 메달 패닉 그녀가 1~3까지 오픈닝, 엔딩 송을 부른 애니메이션 기본 틀은 메카닉이다. 진화한 속의 피에는 게그 요소가 빛을 발한다. 어쭙한데 카. 세베르다 주인공의 여자 상대라고 쓰고 로리콘의 결정체라고 읽는다! 옛(사)이탈로 당신시 (플 메달 패닉)을 장우행해야 하는 이유다.

MAXIM's Choice (플 메달 패닉) 3기 오픈닝 南風(남풍)

한타헌터 OVA 그레 바로 그 작품이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 발매와 동시에 연재 중단으로 이어지는 그래픽 작가가 토카시마 그린 (한타헌터)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OVA)이다. 쉬쉬쉬임 출가는 게 종종 거다. 여차치면 천적의 연재 속도는 자료가 기어가는 수준이니까 말이다.

MAXIM's Choice (한타헌터) OVA 2기 연딩 Popcorn(팝콘)

키노의 여행 한타헌 '마린왕자' 이기다. 생활비도 남비에 부백 외로워진 당신 마음을 자유해애 애니메이션을 갖는 다른 작정할 선택이다. 원작의 스토리가 탄탄하니 만큼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일은 없으니 안심

할 것. 보고 나면 새상이 참으로 밝고 따뜻하다고 느낄 테. MAXIM's Choice (키노의 여행 오프닝) 'All The Way(을 더 웨이)'

해피피피 클로버 갈래 이 애니메이션을 스마트폰에 담아 다치지 말 것! MP도 마찬가지다. 이 애니메이션을 굳이 보고 싶다면 참해서 조용히 감상한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 같은 남자가 쇼(세)화에서 강만해 귀여운 동등 애니메이션 을 보는 걸 아깝다고 바라보지 않을 테. 이기다. 진심이다. MAXIM's Choice (해피피피 클로버) 연딩 '藍色の空の下で(남색 하늘 아래)'

WOMEN OF THE WORLD

INDIAN BEAUTY MAXIM INDIA

PHOTOGRAPHS BY RAKESH SHRESTHA



내 폰에 사진 받기

악마의 게임 <문명 5>에서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우리의 옥수수를 금과 바꾸자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오고, 거칠하면 숨겨둔 활기를 출동시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무리 평화 협정 제안 버튼을 눌러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만행을 벌여도 (비폭력주의가 아니라 비평화주의임), 우린 인도를 사랑한다. 인도판 MAXIM의 이달의 이쁜이(HOTTIE OF THE MONTH) 코너에 등장해 한국 MAXIM 에디터의 혼을 빼놓은 그녀, 마두리 바타차라 때문이다.



인도에 관한 이상적인 사실 5가지

- 1 카페는 맛있다는 뜻의 힌두어 쿠리쿠리에서 비롯했으며, 특징 향신료가 아니라 여러 향신료를 섞어 맛을 낸 것이다.
- 2 인도 동부 비하르 주에서는 여자가 일몰으로 해미론 발을 감게 하는 기우제를 지낸다. 주민들은 비가 올 때까지 미혼 여성을 목표로 뽑아 기우제를 지내며 땅이 젖어들길 기원한다.
- 3 세계에서 가장 큰 차천은 인도에 있다. 얼마 전 스리랑카에서 잔에 4천원, 컵할 400g이 들어가고 끓이는 데만 5시간이 걸리는 차천을 만들어 기네스북에 올린다.
- 4 전 세계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회사는 인도 철도청이며 직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 1명당 1m의 철길을 깔면 10km, 서울과 부산, 열두 번 왕복하고 다시 부산에 갈 수 있는 길이이다.
- 5 전 세계에서 우체국이 가장 많은 나라도 인도다.
- 6 인도 국기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는 다르마, 차크라질서의 바퀴를 형상화한 것이다. 곰팡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Q 두리 바타차라니의 고향은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주도이자 옛 마이소르 왕국의 수도인 벵갈루루다. 세계적인 IT 기업이 많이 모여 인도의 IT 수도로 불리는 이곳에서 그녀가 태어났다. 현재 몸바이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36-25-36(전환번호 아니네, 이 사람야)의 완벽한 몸매로 인도의 위용을 뽐낸다. 이상형을 묻자 그녀는 마음과 몸을 흥분시키는 남자 라고 답했다(참고로 마음, 몸 순서여야 한다고). 그녀는 응석받이 기질도 있다고 하니, 당신에게 넉넉한 통장 잔고가 있다면 그녀라는 새로운 문명이 더욱 쉽게 열릴지도. 약간 교전적인 방법의 포옹과 키스는 어때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육체적인 공감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인도도 웃고 한국도 웃었다.



상상력의 승리 MINI

감성 마케팅이란 바로 이런 거다. by 유승민



0번엔 미니가 따로 몰려 나왔다. 그냥 미니, 뒷문 열리는 미니 클럽맨, 두
 쟁 열리는 미니 컨버터블까지 누가 더 주목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
 로 크게 인기 있는 미니 패밀리가 한꺼번에 리뉴얼되었다.

이번 뉴 미니 패밀리의 출시 행사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열렸다. 보통의 신차 발
 표회가 호텔, 전시장 등 차를 빼가면 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열리는 점
 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장소 선정이었다. 그러나 미니는 주차장이라는 장소
 마저 미니답게 만들어버렸다. 주차장의 갯빛 콘크리트 벽 마저도 재미있는 풍경
 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은 뭔가? 무엇보다 어떤 장소와 매치했을 때에도 익살스러
 운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미니의 디자인적인 아우라이팅 것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
 게 미니의 이미지 메이킹에 기여한 것은 미니의 과감한 홍보 전략이다.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전국을 강타한 적이 있다. 카트라이더 이후로 수많은 게
 임이 PC방을 평정했지만 여태껏 카트라이더만큼 많은 여성 게이머의 사랑을 받
 은 게임은 없다. 그 카트라이더가 한참 사람들의 눈을 빼앗아갔던 2000년대 초
 반, 가상의 자동차로 가득 차 있던 카트 아이템 중에 미니 쿠퍼가 있었다. 해석선
 변기 문어 모양 등의 만화적인 카트를 틀에서 미니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어
 울리며 물리력을 맞고 미사일 방어용 풍선을 달고 수많은 맵을 달렸다. 미니의 파
 격적인 국내 마케팅 전략의 신호탄은 바로 이 카트라이더에서 시작되었다. 자동
 차라고는 두껍게 열리는 차와 열리지 않는 차로만 구분하는 여성 소비자들이 유

료로 판매하는 미니 쿠퍼 아이템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어대는 가족을 이끌어낸
 거다. 물론 게임에 실제 차량을 집어 넣어 홍보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
 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홍보 책임자는 '시티 레이스'처럼 실제 차량들이 등장하는
 게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미니가 거뒀던 성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미니의 파격적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프라이구에서 구원투수는 미니를 타고 미운뜨에 올라선다. 미니
 택시가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최근에는 100만명의 피사객이 몰려든 해운
 대 해수욕장에도 등장했다. 아이 이페에도 백사장에 차를 몇 대 가져다 놓고 그
 저 그런 도우미가 마이크로 판매 박힌 엔트를 올려놓으면 피사객에게 불편만 주
 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니는 땅이 아닌 물 위에 등장했다. 순식간에 해운대에 운
 집한 모든 피사객의 눈길을 빼앗은 미니는 조스와 추격전을 벌이는 퍼포먼스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카트라이더에 등장했던 때에 비해 미니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
 만 소비자들은 미니에 익숙해하긴 커녕 더 친근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여성 드라이버에게 미니는 하나의 로망이 되었다. 여자를 사로잡아야 하는 사령
 을 띠고 태어난 우리 남자들은 더 이상 미니를 외면할 수 없다. 현실 세계에서 가
 상현실로, 딱딱한 육지에서 바닷물 위로 마케팅 상상력을 확장해온 미니가 앞으
 로 또 어떤 파격을 행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감성 마케팅이란 바로 이런 거다.



MOTOR TEST DRIVE

MAXIM 비교 시승기 #4

아기자기한 2천만원대 중반의 소형 수입차는 언제나 당신의 마이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무시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방법 있다. 타 보는 수밖에.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COOPERATION SMART Korea, 한솔 모터스



2010 SMART
For2 Passion Cabriolet

2790만원



3020 PEUGEOT
MILLESIM 207GT

2590만원



2010 SMART For2 Passion Cabriolet

FROM BENZ

당신도 한 번 씬은 스마트에 시선을 빼앗긴 적이 있을 거다. 과정 조금 보태서 마저츠의 반 정도는 크기에 벤츠의 로고를 단 신카하리만큼 조만간 자동차에 눈이 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스마트는 많은 사람들이 알 듯 벤츠의 하위 브랜드다. 경차, 그것도 극단적으로 조그만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커로 스마트를 꿈꾸는 데에는 분명 벤츠의 후광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미 오버해 스마트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BMW가 하위 브랜드 MINI를, 도요타가 Lexus를 성공적인 독자 브랜드로 모 브랜드 못지않게 키워낸 데 반해, 아직까지 스마트는 그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스마트 오픈더를 살 때 스마트 로고보다는 벤츠 로고를 달아서 출고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DIFFERENT

MAXIM의 테스트 드라이버로서 수많은 사치차에 올라봤지만 스마트만큼 충격적이고 색다른 차는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시승기를 쓰면서 고만고만한 성능의 자동차를 제다 색다른 게 싸야 한다는 건박관념에 시달리고 했는데, 스마트는 대체 어디부터 이야기를 끌어올릴 지를 정교로 너무나 다르다. 처음에 마이키를 갖게 되는 운전자리면, 게다가 특히 여성 운전자리면 스마트는 별로 경하지 않다. 생긴 것과 다르게 운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스마트의 단점이자 최대의 장점이 바로 이 '색다르고 어려운 조작법'인데 처음 차를 갖게 되는 운전자리면 이 출거움을 하나도 만끽하지 못하고 단점으로도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편안한 차를 타고, 요즘 나오는 차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을 경험한 후해야 비로소 스마트의 장난감만 독특함을 이해할 수 있다.

HUMOR

스마트를 정의하려면 '거의 진짜 자동차에 가까운 최고급 장난감'이라고 하겠다. 실내용 버튼, 에어컨 레버, 방향 지시등, 와이퍼 레버 등 조작 장치들을 조금만 작동해 보면 당신도 에디타가 그랬던 것처럼 '깜깜!' 웃게 될 거다. 일부러 조작감을 극도로 나쁘게 했다. 잘못 세계 하면 부러질 듯,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이런 거의 자동차의 그 맛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의 느낌이다. 벤츠가

어떤 장난감으로 차를 만들었는지 대번에 이해하게 된다. 심지어 깜빡이를 껐을 때는 스퀘터에서 나는 깜빡이 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난다. 기어레버는 황당하게도 P파킹 기능이 없다. 차를 세우려면 N중립에서 사이드를 채워야만 한다. D드라이브나 R후진에 변속기를 놓아도 어느 자동차처럼 숨기 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가속페달을 밟아 좌우만 차가 움직인다. 딱딱한 스마트의 브레이크는 발보이면 누구나 깜짝 놀란다. 살짝 밟아선 가법도 안 간다. 핸들링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차체 때문에 핸들링이 가벼워져서 거라고 생각했다간 오산이다. 스마트는 에디타가 몰아본 어떤 차보다도 무거운 핸들을 자른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려 할 때 약한 여자는 아예 돌릴 엄두도 못 낸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의 핸들을 파워핸들로 바꾸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벤츠의 개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할까? 스마트라는 최고의 장난감이 평범한 경차로 변하게 하는 건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다. 주행시 노면의 요철은 자전거를 탈 때만큼이나 노골적으로 몸에 전해져 온다. 거의 스포츠카 수준이다. 그 흔한 전동식 사이드미러도 없이 플러스티 같은 손잡이로 수동 조작하게 되어 있어 스마트지만 누구도 이 녀석을 가리켜 '가솔린이 없어서 그렇다'라거나 '싸구려 자동차라고' 하지 않는다. 고급차를 몰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아닐로그적인 감성어이랄로 스마트의 매력이란 말이다.

POTENTIAL

그렇다고 스마트가 온통 불편함만으로 무망한 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다.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방향지시등 레버는 사실 원래치 방향지시등이라는 기본 옵션이 숨어있다. 뺄 줄린 길에서 가속해보면 더욱 놀라게 된다. 티코처럼 속도를 내면 달달거리며 부서져버릴 것만 같던 녀석이 속삭이기에 150km/h까지 안정적으로 치고나가기 때문이다. 변속기 앞에 컨버터를 버튼을 누르면 전자식 소프트 밟이 부드럽게 열리며 푸른 하늘을 보여준다. 고속 주행시 공기 저항이 심한 때에도 무리 없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만들었다. 물론 완전 개방 후엔 창문 프레임은 조립식 프레임처럼 손으로 쳐서 분해해야 한다는 말에도 한 번 뺄 타진 수밖에 없었다. 고급 기능과 이렇듯 그적인 번거로움의 극단적인 조화가 바로 스마트적 인유머의 결정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20.4km/h의 코를 같은 연비에 대체선 도로 연급할 필요도 없었지?



3020 PEUGEOT MILLESIM 207GT



200 YEARS

푸조가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존 207GT 모델보다 500만 원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선언한 밀레짐은 푸조의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게다가 밀레짐이 국내에만 출시되는 200에 한 정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건 푸조가 얼마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체 측면엔 200주년 기념 Millesim edition 엠블럼이 멋있게 박혀있다. 프랑스로 '유서 깊다'는 뜻. 말 그대로 유서 깊은 프랑스의 자랑 푸조, 고급 명차를 지칭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차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왔다. 지금이야 저렴한면서도 두껍기 열리는 바로 옆에 스마트차량 모델들이 꽤 생겨났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 오픈카의 간지를 누리려면 사실상 상 포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비싼 차 값과 날씨에 까탈을 연비를 들이대며 '살 태운 사 바리' 식으로 돌아대는 다른 수입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높은 연비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었기에 이제 푸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인식됐다.



DETAIL

3일 동안 물이 본 푸조 밀레짐 207GT는 예쁘고 실용적인 그야말로 '갖고 싶은 차'였다. 이 녀석도 기본 옵션으로 원터치 방향 지시등이 내장되었는데 이 원터치 기능이 뭐냐고? 한 마디로 말하면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키고 나서 다시 가운데 도로로 치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살짝만 터치하면 세너 차폐 안 깜빡인 후 자동으로 꺼진다.



비오는 날 후진할 때 자동으로 후방 와이퍼가 작동하게 하는 세심한 기능. 어두운 곳에 주차했을 경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동을 끈 상태에서라도 하행등이 일시적으로 켜져서 집에 가는 길을 밝혀주는 'Follow me home'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와이퍼 스프레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현재 연비 및 평균 연비를 확인하면서 주행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REASONABLE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테리어에는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플한 컬러와 단순한 센터패시아, 가죽이 아닌 직물로 모든 시트가 감싸져있고, 원래는 있던 EPS 기능이 빠져있다.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라는 가격 인하가 가능했던 걸 생각한다면 관점은 개량이다. 덜 하던 명차다. 다이얼을 좀 했다고 푸조가 프라이드가 되는 건 아니다. 고속도로에서 풀 가스를 해보니 속도가 160km/h까지 말살않았어 치고 올라간 다. 소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이크에 가까운 소음의 스마트를 타고 나니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게 느껴진다. 차체 찬장은 전체가 시원한 파노라마 선루프로 이루어져 있다. 찬장 전체가 유리라 되어있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지만 등받이를 한껏 재치면 별거 없을 하면서 담배를 한 대 맛나게 빨 수 있다는 건 정말 말 못하기 어려운 매력이다. 안전성은 걱정할 필요 없다. 차가 대굴대굴 굴러도 절대 깨지지 않는 특수 유리라니까. 망치 어딴지?

CRUISE CONTROL

웬만한 고급 중형차 이상에는 갖추어져 있는 크루즈 컨트롤 정속주행 요새 라세티 프리아미가 밀고 있는 바로 그 기능. 조수석의 미녀가 게슴츠레하게 눈을 뜨며 "운전하면서 해 본 적 있어?"라고 물어보는 그 CF(밀키티)이 정착되어 고속도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고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복잡한 서울 도심 속에서는 이 기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영종도 활영지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훗하 유감없이 발휘했다. 100km/h로 설정해놓은 중간 중간에 브레이크로 감속해도 발을 떼면 다시 서서히 100km/h로 속도가 올라간다. 지정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고 싶으면 핸들이 붙은 변속 다이얼로 손쉽게 조작하면 된다.

스마트를 고급차 운전자가 갖게 되는 줄거음 세컨카라고 표현한다면, 푸조 밀레짐 207GT는 수입차의 프리미엄과 경제성을 모두 누리고 싶은 드라이버를 위한 경제적인 애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스마트 주요제원

엔진	2.0리터
배기량	99cc
변속기	자동 5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후륜구동
최대출력	8마력
최대토크	12.9kgm
공인연비	20.4km/l

푸조 주요제원

엔진	직립 4기통
배기량	1598cc
변속기	자동 4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대출력	120마력
최대토크	19.3kgm
공인연비	13.8km/l (2등급)



STUFF

GAME IS MY LIFE

우리의 진정한 소울메이트!

게임기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징그럽다는 닭살 키편도 능히 이겨낼 권능이 생겨나도대!

BY 김장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권혜진 HAIR 이도우 MAKE-UP 조영은 MODEL 서유라
COOPERATIONS 기이아이(02-340-1099) 탑걸 지프 액소이(02-545-7764)





패딩 조끼 지프
검정색 비키니 에디터 소장
구두 기아이어

MICROSOFT KINECT

카넥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서 Xbox 360용으로 내놓은 모션(동작) 인식 카메라다. MS가 카넥트와 함께 내건 슬로건 'YOU ARE THE CONTROLLER'처럼 컨트롤러 없이도 게임 및 Xbox 360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카넥트에 탑재된 2개의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가 당신의 움직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하기 때문이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카메라가 잠시 동안 키, 얼굴, 근육 등을 스캔하지만 기다리기 지루할 정도는 아니다. 당신을 번거로운 컨트롤러에서 해방시켜주니 이 정도의 귀찮음은 건더주자.



단점

아직까진 카넥트의 반응 속도가 내 마음 같지 않다. 실제 동작과 화면 동작 사이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일반처럼 명궁이 비싸 집이 좁아졌다면 카넥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동작을 크게 할 수 없다면 제아무리 모션 인식을 잘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인가. 치마처럼 다리를 가리던 동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과 카메라와 유저 사이의 적절히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징

카넥트는 Wii와 가장 모션 인식 게임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생각이 없다. MS는 Xbox 360과 카넥트를 결합해 흥미 디어를 구축할 생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카넥트도 ESPN 스포츠 채널을 감상하면서 음성 채팅도 즐길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Xbox 360을 가진 사람은 카넥트를 지를 이유가 충분할 거다. 영화 방송도 Xbox 360 유저끼리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MS는 궁극적으로 카넥트로 집에서 확실 채팅과 가상 현실 체험스크린 상의 당신에게 다양한 옷 등을 같이 입히기 등이 가능하게 만들 작정이다. 한마디로 카넥트는 혁신적인 게임 주변기기의 옷을 빌려 입을 MS 홈미디어 전략의 핵심이다. Wii와 피타지는 싸움 따위는 고려해본 적도 없던 거다. 이런 무사는 놀랄

MICROSOFT KINECT 주요 스포츠



카넥트 스포츠

Xbox 360+카넥트+카넥트 스포츠만 있으면 집이 체육관으로 대변된다. 카넥트 게임은 당시 몸무게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니 컨트롤러를 잘못 눌러 집 안의 TV를 박살낼 염려도 없다. 특히 공예 스펀지우리가 '취재'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배를 먹이는 세밀한 조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 버전을 누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거다. 덩어로 실드 빠져나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카넥트 어드벤처

당신이 인디애나 존스처럼 거친 골무를 탐험할 수 있고, 마린보이처럼 물속의 다양한 관측소도 탐험할 수 있다. 게임 타이틀에 붙은 '어드벤처'라는 단어를 보고 '이런 무슨 개소리냐'라고 말하는 유저도 있을 거다. 하지만 막상 플레이하면 정말 모험하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그나저나 이 게임이 정말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안타깝다.

BEST OF BEST



댄스 센트럴

댄스 전문가가 개발한 600가지 이상의 게임 동작과 90가지 이상의 댄스 패턴을 친절한 설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댄스스콜이 춤을 배우러 가서 몸치라고 오히려 꾸며받던 시절은 기억은 지워버려라. 이런 집에서 레이디 가가와 노 다무 등 댄스, 힐링 및 R&B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춤에 대한 열정을 불사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댄스머신으로 거둬내는 일 뿐이다.



김정애 비키니 에디터 소장
경성색 호피무늬 레깅스 합법
빙글과 구두 모두 가이아

SONY PS MOVE

PS 무브는 SONY에서 내놓은 아심찬 모션 인식 컨트롤러다. PS 무브는 PS3, PS3용 카메라, PS 무브 컨트롤러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사용할 수 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당신이 PS3가 없어서 삼위일체 세트를 구입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주변 기기를 2부나 사서 Wii처럼 즐기고픈 유저는 그리 많지 않을 거다. 하드 코어한 성향의 게이머는 이미 PS3와 WM을 같이 즐기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PS 무브의 포지션은 더욱 모호하게 되어버렸다.

특징

늦게 나온 모션 인식 컨트롤러답게 성능은 발군이다. PS3 카메라는 화면, 사용자의 거리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3축 자이로 센서'와 '3축 가속도 센서', 그리고 '자이로 센서'를 탑재한 컨트롤러 덕분에 지금까지 나온 모션 인식 기기 중 가장 빠른 반응 속도와 모션 인식 능력을 자랑한다. 조작감도 뛰어나서 기존에 발매된 FPS인칭 슈팅 게임, 어드벤처 등 다양한 게임에서도 PS 무브를 적용할 수 있다. Wii처럼 도트가 돌는 게임이 아니라 PS3의 HD급 화질 게임을 모션 인식 컨트롤러로 새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단점

그런데도 Wii와 다른 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결국 3가지 아이템을 다 한체이차리리 WM을 구매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지도 겨우 Wii처럼 모션 인식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예기다. 삼위일체가 되면 무얼 하나 결국 PS3를 HD급 WM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SONY PS MOVE 주요 소프트웨어



콩푸 라이더

사무실 의자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설정은 신선한데 생각보다 스피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조작법도 너무 복잡해서 이 게임은 정말 PS 무브로 즐기려 하는거리는 고민이 들 정도다. PS 무브로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싶은 이라면 하드 트레이닝용으로 지르는 건 문제 삼지 않겠지만 온전히 이 게임을 즐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다면 '10일'이라는 기간이 짧아 질투나게 될 거다.



스타트 더 파티

제작처인 여러 사람이 모여 플레이할수록 재미있는 미니 게임이다. 게임을 시작할 때 PS3 카메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얼굴에 마스코트를 끼입거나, 목소리를 바꾸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2인자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형식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쟁할 시간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다. 한마디로 참재운 게임이다.

BEST OF BEST



바이오히즈드 골드 에디션

WM에서 플레이가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던 PS3에 따르면 (바이오히즈드 골드 에디션에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거다. PS 무브로 플레이에 시원한 절절은 물론 손으로 조준한 후 나머지 손으로 사격하는 짜릿한 손맛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PS 무브 컨트롤러의 압박 때문에 장시간 플레이할 수 없을 거다. 당신에게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가족 재킷 열스아이엔스
국방세 민스메 티셔츠 에디터 소장
검정색 짧은 반바지 에디터 소장
독립이외 구두 기어마

NINTENDO 3DS

입체 안경 없이도 3D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 800×240 픽셀 해상도의 액정에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각각 400픽셀의 영상을 나누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체 영상을 만든다. 제품의 우측면에 위치한 3D 효과 버튼으로 입체 영상의 깊이감을 조절할 수 있다. 기존 십자 버튼에 아날로그 패드, DS 유저가 그토록 바라던 SD 카드 슬롯이 추가됐다. 내장된 2개의 카메라로 3D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여기에 모션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탑재해 Wii와 NDS의 기능도 잘 이어받은 훌륭한 게임기다.

■ 특징

3DS는 태그 모드를 지원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3DS는 와이파이가 접속된 A나 주변에 3DS가 있으면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가령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3D 에디션》을 열성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주변에 같은 게임을 즐기는 3DS 유저가 있다면 오락실처럼 바로 난입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뿐만 아니라 슬림모드 상태에서도 와이파이가 자정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게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 단점

가치형 게임기와 맞먹는 비싼 가격인 30만 원대 이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 물론 이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흠일지도 모르겠지만



■ NINTENDO 3DS 주요 소프트웨어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이전 장편 당해낼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온 《젤다의 전설》 시리즈 중에서도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시간의 오카리나》가 3DS로 돌아온다. 그래픽은 최근 나오는 게임들에 비하면 허접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게임은 그래픽이 전부 아니다.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3D》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잊는다면 사람들이 왜 이 게임의 리메이크를 그토록 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메탈기어솔리드 스네이크리터

코지마 감독의 연출력에 3D 입체 영상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중년의 나이를 넘어 반백의 노신사가 된 주이공 솔리드 스네이크가 3DS 나뭇잎에 나섰다.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는 잠깐 맥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3D 입체영상을 활용하면 한층 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의 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고면 영상 퀄리티만 유지해줘도 3DS의 필구 타이틀이 되는 건 시간문제일 거다.



슈퍼 스트리트파이터4 3D 에디션

2D에서 3D 게임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꾀한 《슈퍼 스트리트파이터4》가 3DS로 출시된다. 이번 작품은 3D의 캐리커가 전편 출동하며 그래픽 역시 아케이드용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퀄리티를 자랑한다. 앞서 말한 3DS의 태그모드를 이용해서 다른 3DS 유저와 언젠대 대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 당신에게 3DS와 이 게임이 있다면 그곳이 곧 오락실이 될 거다.



얼굴만 무늬 수영복 에디터 소장
종이무늬 레깅스 합성
반지, 목걸이, 구두 모두 가이어

NINTENDO Wii

Wii는 사람들이 모션 인식 컨트롤러(Wii 리모트)에 익숙해지기쯤 만든 게임이다. 더 이상 설명하는 건 굳더더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TV 광고에서 유명 스타들이 출동해 모션 인식 컨트롤러인 Wii 리모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친절히 소개해줬으니 말이다. Wii 리모트는 컨트롤러 내부의 3축 가속도 센서로 중력을 계산해서 움직임에 파악한다. 하지만 쓴 게 비저펙이라고 SONY 무브와 MS의 키넥트처럼 빠르고 복잡한 움직임은 잡아내지 못한다. 닌텐도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Wii 모션 플러스를 추가로 발매했다. 모션 플러스에는 자이로 센서를 탑재해 Wii 리모트의 각도와 회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이미 SONY 무브에 내장된 기능이다).

특징

MS의 키넥트가 출시되기 이전까진 가장 사용하기 쉬운 모션 인식 컨트롤러가 바로 Wii 리모트였다. 터치, 센서, 모션 포함, 닌텐도는 Wii 리모트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으로 여성 유저를 비롯해 게임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Wii의 고객으로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이미 Wii는 전 세계에 7천만 대 이상 팔렸고, 닌텐도 입장에서는 바쁘면 바빠서 스포츠만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말 무서운 녀석이다.

단점

최근에 나온 게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성능이 떨어진다. 이것이 Wii가 모션 인식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라이트 게임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다. 풀 HD급 영상은커녕 과거의 유명한 PS2 시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때문에 차세대 게임으로 눈이 높아진 게이머에게 Wii용 게임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NINTENDO WII 주요 소프트웨어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Wii

당신이 Wii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전세계 2억 4000만 이상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작품답게 재미 하나는 끝내준다. 무엇보다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Wii는 클래식 패드가 아니라 Wii 리모트도 슈퍼마리오를 매끄럽게 조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최대 4명의 동시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함께 즐기기에 더욱 손색이 없다. 슈퍼마리오는 전디로 진리다.



슈퍼마리오 갤럭시2

또 슈퍼마리오다. 지금까지도 울고불고 짜도 소용없다. Wii는 슈퍼마리오로 시작해서 슈퍼마리오로 끝난다. 젤라의 전설 시리즈는 상에 살짝 손가락을 얹는 정도일 뿐이다. 이번 슈퍼마리오 갤럭시2에서는 전작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필드를 비롯해 다양한 필드와 재미있는 파출을 만날 수 있다. Wii 리모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임으로도 유명하다.

비운의 기기 모션 파워글러브

닌텐도가 패미컴시절부터 약 20년 전이므로 모션 컨트롤러를 출시한 사실이 알고 있-? 파워글러브라는 정감형 컨트롤러는 팔과 손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하기 위해 TV 주변에 센서를 끼얹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를 지원하지는 게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이걸 왜 개발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비운의 기기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을 했다. 그것 자체가 대박일 따름이다.



화이트 셔츠, 검정색 비키니, 에디터 소장
방글과 구두 모두 기이아

RUNNERS HIGH TECH

:마라톤 기어 3종 세트

마라톤을 편안하게 뛴다간 42.195km를 달리고 세상을 하
 직한 고대 그리스 병사가 될지도 모른다. 일단 장비부터 확
 실하게 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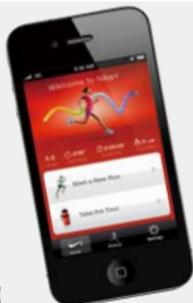
BY 김성현 PHOTOGRAPHS ARC STUDIO

NIKE

NIKE+ SPORTBAND

나이카+ 스포츠 밴드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이
 카를 지원하는 라닝화가 더해지면 아가는 달라진다. 밀착에
 삽입된 센서로 러너의 동작 데이터가 스포츠 밴드 USB에 무선으
 로 전달된다. 이것으로 주행거리, 주행 페이스, 소모 칼로리를 확
 인할 수 있다. 열심히 땀까지 흘린 후 집에 있는 컴퓨터로 스포츠
 밴드의 USB를 연결해 나이카플러스닷컴에서 러닝 데이터로 기
 록 추적, 목표 설정 및 다른 사람과 기록을 비교해볼 수 있으니 플
 코스 마라톤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가격 60,000원대. 문의 www.nike.co.kr 1666-6453



NIKE

NIKE+ GPS 앱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터치가 있다면 NIKE+GPS 앱으로 자신
 이 달린 코스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할 뿐 아니라 속도, 거
 리, 칼로리 소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달리고 난 후 어
 는 런스 인스트롱 같은 운동선수나 코미디언 트레이닝 시 모
 건의 재미있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 러닝이 즐거워진다.
 나이카플러스닷컴의 접속도 물론 가능하다.

ADIDAS

MICOACH

마이코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음성 지원이다. 당신이 계획
 한 운동 목표에 따라 실시간 음성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 조절은 물론 효율적인 러닝이 가능하다. 달
 리는 동안 적적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대화는
 하지 마라. 무서우니까. 마이코치 페이스 패키지는 MP3
 와 함께 사용 가능하며 삼박수 모니터, 보폭 센서로 구성되
 다. MP3 종류를 가리지 않으니 집에 골라다니는 아무 제
 품이나 사용해도 상관없다. 마이코치 사이트(www.adidas.com/micoach)에서 삼박수, 목표, 생리적인 통계치(키, 나
 이, 몸무게 등)를 고려한 훈련표를 할 수 있다. 이제 열심히
 땀까지 흘린 만큼. 물론 그게 가장 난코스겠지.
 문의 www.adidas.com/kr 02-547-2771



POLAR

RS 800 CX

당신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할지 감이 오는 거다. 그렇다고 <링크
 레더>를 찢고 찢어 심박기를 차고 여자와 격하게 러닝러브
 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 오해하지 마라. 폴라의 심박기 RS
 800 CX는 가슴에 펠트형 트랜스미터(송신기)를 달면 내장
 된 폴리스(스), 마이(스)스-1 전극이 심장박동을 감지해 시계
 형 리시버에 무선으로 쏜다. 이걸로 당신의 심박수를 정
 확히 체크한다면 적정 수준의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심장이 폭발 직전인 것도 모르고 달려다가 자세상까지 달
 리가는 걸 막을 수 있단 얘기다. 가격 710,000원
 문의 www.polarikorea.co.kr 02-3473-5270

RUNNERS FOOTWEAR

: 러닝화 3종 세트

무턱대고 땀까지 흘리는 무릎 나가기 십상이다. 건강도 지킬 겸 당신의 스타일도 업그레이드할 겸 러닝화 같은 걸 꺼없이도 나쁘진 않을 거다. BY 김현 PHOTOGRAPHS ARC STUDIO

러닝+아웃도어



COLUMBIA SHASTALAVISTA™

한눈에 봐도 안정감이 넘치는 SHASTALAVISTA™의 스포티한 디자인은 4륜구동 자동차에서 영감을 얻었다. 4부분으로 나뉜 뒷축이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바닥과의 접지력은 높여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신발에 덧씌워진 염선이 발의 옆면을 잡아주기 때문에 한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컬럼비아에서 자체 개발한 경량 소재 테크라이트(TechLite)로 만든 밑창이 신발의 원래 모양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무게도 한결 줄였다. 단단한 생김새와 달리 러닝화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이다.

러닝+패션화



NIKE LUNAR MARIAH+

질 빠진 디자인 덕분에 공급이 모자라서 해외 공급량까지 우리나라 시장으로 끌어올 정도로 인기 넘치는 정통 러닝화다. 착용감도 뛰어나다. 아기 엉덩이처럼 폭신촉촉한 쿠션감 덕분에 루나 마리아를 일상화로 쓰는 사람도 많다. 나이카를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앱으로 러닝 시간, 거리, 소비한 칼로리 체크는 물론 전 세계 러너들과 자신의 기록을 비교할 수 있다. 달리기 예 목숨을 건 열혈 러너가 아니라 가벼운 러닝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격렬한 트레이닝



ADIDAS BOUNCE TITAN

생긴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새로 나온 바운스 타이탄(남성용)은 신발 아래에 위치한 바운스의 위아래가 하나로 합쳐졌다. 여기에 사이즈와 성별에 따라 다른 크기의 바운스를 적용해 최적화된 쿠션성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발 사이즈에 따라 6%씩 바운스의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든단 얘기가. 게다가 무지박자한 생김새와 달리 남성용 타이탄은 36g, 여성용 바운스는 24g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러닝을 가장한 격렬한 트레이닝을 즐기는 이에게 적합한 운동화다.

GIRLS DAY



GIRLS
: Today is

S DAY

Girl's Day

예능 프로그램에서 폼바 춤을 추던 걸스데이의 잊어라, MAXIMO에서 그동안 숨겨온 매력은 마음껏 뽐낸 그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당신도 걸스데이느낌의 노예를 자처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BY 김장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은우 MAKE-UP 최영진 STYLING 오윤선
ASSISTANT 조혜진

이번 촬영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민아) 즐겁게 촬영해서 힘든 줄 몰랐다. 눈이 작아서 렌즈를 오래 끼고 있었다니 눈물이 날 뻔했지만 말이다(웃음).

MEC 예능 프로그램 <꽃다발>에 출연 중이다. 화보 촬영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중 어느 것이 더 편한가?
(유리) 화보 촬영. 예능 프로그램 녹화는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머리를 엄청 굴러야 해서 힘들다.

방송에서 모습보다 실제 모습이 훨씬 매력적이다. 데뷔 때의 아가자(자)한 콘셉트는 집어차워다. 지금처럼 시크한 스타일이 딱 있다.

(해리) 방송에서도 우리 진짜 모습이 나와야 하는 데 말이다. 요즘 대세는 시크한 스타일이니까 조금만 걸그룹의 대세가 걸스데이가 될지도 모르겠다(웃음).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있다면? 좋아하는 가수를 말해도 괜찮다.

(지혜) 빌리드는 물론이고 힙합, R&B도 즐겨 듣는다. 남자 가수는 세련된 R&B의 대표 주자 에릭 베넷(Eric Benet), 여자 가수는 핫한 푸시캣 돌스(Pussycat Dolls)를 좋아한다. 최근에는 시아라(Ciera)에게 꽂혔다.

이번 음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소진) 시원한 가창력과 멋진 무대 퍼포먼스

그녀(나) 몸매가 하나같이 끝내준다. 요즘 친구들은 다 그런가? 아니면 당신들만 그런가?

(모두) 다들 타고난 몸매가 예쁜 것 같다. 몸매 관리의 비결은 끊임없는 인무 연습이다.

만약 당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해 당신을 내향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민아) 괜찮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본인만 잘 챙기면 되지 내가 뭐 더 바라겠다. 예휴.

그럼 혹시 부실한 남자친구를 보호해줄 수도 있나?

(소진) 물론이다. 비록 새끼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발버둥치는 모양새처럼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렇군. 걸스데이에게 대실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모두).



Min Ah

당신에게 스튜디오 남자 스태프가 모두 반했다.

이런 뻔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후후후.

'깁깁'이라는 별명 때문 집어던져라.
MAXIM에는 완전 소중한 귀염둥이다. 귀여움의 비결을 알려달라.
츄. 이긴 타고 나는 것일지도(웃음).

심심할 때 당신의 소입거리리는?
내 보물단지 MP3에 담긴 영화를 본다.

몸매, 얼굴, 가창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가창력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당신은 걸스데이의 _____ 이다
매력덩어리

다른 멤버들의 장단점

소진 **장점** 누구보다 속이 깊다.

단점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보일 때가 있다.

지혜 **장점**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한다.

단점 생각이 너무 많대어린... 내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건가, 쿨해.

유라 **장점** 성격이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하다.

단점 지나치게 낙천적이다.

혜리 **장점** 막내답지 않은 행동? 솔직히 나보다 더 어른스럽다.

단점 애늬은이다.

Yu Ra

당신 다리는 정말 최고다.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들었다.

부끄럽지만 보험에 가입한 건 사실이다 (웃음).

뒤늦게 팀에 합류했는데 어색하지 않나?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는데 팀원들 모두 친절하게 대해줘서 며칠 만에 적응을 끝냈다.

심심할 때 당신의 소일거리는?

주로 먹는다. 하지만 요즘은 다이어트 중이라 폭풍 운동을 한다.

몸매, 얼굴, 노래 실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유도 말해달라.

다리 보험도 들었으니 몸매를 선택하겠다(웃음).





당신은 걸스데이의 _____ (이다
재간등이

다른 멤버들의 장단점

소진 장점: 리더답게 멤버를 잘 챙긴다.

단점: 많이 먹어도 실이 빠질 않는다.

지혜 장점: 착하고 몸매 유연하다.

단점: 기분 변화가 심하다 그럴 땐 내가
항이 나도록 해줄 거다.

민아 장점: 눈웃음이 최고다. 성격도 밝고 워

트 열심이 한다.

단점: 한이 없대웃음!

해리 장점: 활발하고 애교가 많다.

단점: 장꾸러기다.



Hye Ri

걸스데이의 막내다. 언니들이 막내라고
구박하지는 않나?

언니들이 평소엔 장난은 많이 치지만 늘
예뻐해주고, 챙겨준다.

사진 찍는 게 제일 무섭다고 말하는 걸 들
었다. 그렇게 말한 것치고 포즈가 아주 자
연스럽다.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포즈를 잡는 건 좋아하는데 표정을 짓는
게 아직은 두려워서 무섭다고 말한 거다.

몸매, 얼굴, 가창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노래 실력! 몸매, 얼굴은 이미 만족스럽다
(웃음). 농담이니까 돌 던지지 마라.



당신은 걸스데이의 _____이다
잠꾸러기

다른 멤버들의 장단점

소진 **장점** 이해심 많고 책임감 강한 최고의 리더다.

단점 너무 멀리서 살을 싸우려고 먹는다.

지혜 **장점** 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긴다.

단점 살짝 기분따다.

유라 **장점** 밝은 성격에 순수하기까지 하다.

단점 너무 낙천적이다.

민아 **장점** 순수하다. 웃는 얼굴이 정말 예쁘다.

단점 가끔은 동생처럼 느껴질 만큼 장난꾸러기다.

Ji Hae

몸이 좋지 않아 촬영하는 데 애먹었다고 들었다.
힘들었다. 화보 촬영할 때는 제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이다. 우리도 당신의 랩 스타를 듣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에는 랩은 물론 춤, 노래도 다 보여주겠다. 걱정 붙들어 매래!

심심할 때 당신의 소일거리는?
나 홀로 쇼핑을 즐긴다. 피부 관리실 받는 것도 좋아한다.

몸매, 얼굴, 가창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3가지 모두!!! 어떻게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겠냐! 모두 잘해보려고 노력하겠다.

당신은 걸스데이의 _____ (이다) 여자

다른 멤버들의 장단점
소진 장광 예쁘고 노래를 잘한다.
단광 직설적이라 가끔 무섭지만 뒤 끝은 없다.

유라 장광 긍정적인 성격에 자기관리도 잘한다.
단광 가끔 소소한 일에도 걱정을 크게 할 때가 있다.

민아 장광 귀엽고 색스텐데 착하고 밝기 까지 하다.
단광 욕심이 많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나그래서 인스럽다.

해리 장광 순수한 데다 예쁘니까 애니 믿고 잘 듣는다.
단광 안무 연습을 빠하게 해야 한다.





So Jin

만인니이자 팀의 리더다. 동생들 챙기느라 고생이 많겠다.

진정은 많은데 무뎠직한 성격이다. 동생들을 자상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할 따름이다.

가장 말쑥부리는 동생을 1명만 꼭 짊어지면?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강아지처럼 정신 없이 떠드는 말괄량이다.

심심할 때 당신의 소일거리는?

먹는 걸 좋아해서 먹을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웃음). 새로 나온 음악을 듣거나 틈틈이 미니홈피도 관리한다.

몸매, 얼굴, 가창력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가창력. 나는 노래하고 싶은 소진이니깐

당신은 겸스데이의 _____이다
진소리꾼

다른 멤버들의 장단점
자체 장황 줄을 잘 친다.
단장 강경 기복이 크다.

유라 장황 예쁘고 재미있다.
단장 너무 긍정적이다.

민아 장황 귀엽고 엉뚱하다.
단장 청결가림 대아옹이다.

해리 장황 애교가 넘친다.
단장 마음이 여러다.

ICON KIM CHANGHWAN

90년대를 주름잡은 미다스의 손이 아이돌 그룹을 데리고 돌아왔다. 붕어처럼 입만 번갯거리는 걸그룹은 긴장 바짝 해야 할 거다. By 김광현 PHOTOGRAPH BY ARC STUDIO

반갑다. 아이돌 그룹을 내놓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SM 엔터테인먼트나 YG 패밀리는 연습생 중에서 잘하는 예들만 뽑아서 그룹을 만든다. 우리는 처음부터 팀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뽑아서 배는 더 고생했다. 마음에 드는 보컬이 있으면 이 친구의 목소리에 맞는 래퍼를 구해야 했고, 이 둘을 뽑아둔 상태에서 화음을 맞춰 친구를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V-82만 팀을 만들어 음반 녹음까지 마쳤는데 막판에 멤버 한 명이 탈퇴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당신이 누구구백해서 탈퇴한 건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유명해지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따뜻한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다. 실제로 내가 물어보기까지 했다(웃음). 김진모, 신승훈을 키울 때와 다르다. 그때는 할거랑상한 사람이야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이해심이 넉넉해질 나이가 됐다.

올해 심장 수술을 받은 후 부러러운 남자로 변신했다는 소문도 있다.

지금까지 내가 뽑은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이었다. 친구 만나고, 술 마시러고 연습을 빠지게 할까니 내가 엄하게 수색에 그런데 요즘 어린 친구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도 연습하느라 밤까지 일한다. 자이 오늘 배운 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 했다고 밤을 새우는 이야기에 우습게 대할 일이 있겠냐?

가수 이창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할 정도인가?

이창도 대학할 당시 대학생이었다.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당연히 지금 어린 친구처럼 밤을 새우며 연습하는 경우도 없었나(웃음).

그리고 보니 이창도 군비대에서 탈출했다. 신보는 언제쯤 만·출 수 있?
책이 나올 때 즈음이면 발매하는 거다. 군대를 다녀오더니 철이 제대로 들었

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속도 한층 빨라졌다. 이번 음반은 이창의 매력에 진독 몰아넣을 거다.

당신과 이창이 생각하는 음악적 방향이 달랐다는 건가?

언론은 제의 김진모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이창을 니코(Nico)처럼 매력적인 R&B 가수로 만들려고 했다. 데뷔 곡 '다시와 2집 타이틀 곡 '나를 봐'를 부를 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창은 저스틴 팀배레이크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 했다.

이창과 저스틴 팀배레이크라니 내 둘둘 이가 빅스에 긴 것들이니 흥격자이다.
내가 봐도 도저히 기가 나오지 않았다(웃음). 그때 이창은 아저씨인지 저스틴 팀배레이크처럼 화려한 음악을 하고 싶어 했다. 군대를 다녀와서야 내가 자신을 어떤 가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다.

이번 음반 정말 기대해도 좋은 건가?

물론이다. 둘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학을 친 김진모의 1~3집을 만들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김진모가 비슷한 판매 신기록을 세울 때 언론은 정말 환성이 벌어졌다.

그때는 10만 장은 기본으로 팔았다. 지금의 SM 엔터테인먼트처럼 음반 매니아들은 김진모처럼 수 있던 걸 보여준 게 바로 나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에게 고생할 가수. 매니저와 수익을 나누는 걸 아끼워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회사 보너스가 1400%였다. 상상보다 많이 준다는 소리도 들었다. 가수에 로열티도 최초로 지급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가?

1400%의 보너스는 사려났다(웃음). 당시에는 기업가가 모인다는 부족했다. 지금에서야 하는 예까지진 정권이 바뀌면서 예전 회사가 세무조사로 공중분해했다. 그때 신승훈, 노이즈, 빅이

경 등 대부분의 소속 가수가 회사를 떠났다. 클론만 유일하게 남았다. 당시 공동 경영하던 사람의 질질뿔을 따지고 싶진 않다. 우리 회사가 뛰어나는 못 처럼 유달리 눈에 띄었던 것 같다. 그때 할만한 꼴을 많이 당해서 죽어도 1등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오죽하면 늘 2등만 하면 좋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나.

최근에 고향한 사단에 존척급 가수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인가?

채연 이창은 1등을 밥 먹듯이 하는 가수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 채연을 살벌하게 홍보해서 이효리랑 리아벨로 엮고 싶진 않았던 소리다. 채연의 2집 '물'이서가 히트할 때도 3집에 대한 부담 같은 전혀 없었다. 노래가 안 뜨면 다는 거지. 채연에게 늘 욕심이 없다고 솔직히 얘기했었는데 흔쾌히 이해해주라. 그렇다고 곡을 대중 만드는 건 아니냐. 이창도 1~2집에서 음악적인 방향에서 부딪치기에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게끔 내버려뒀는데 3~4집이 폭발망했다. 이창도 인정했다(웃음).

도라도 다했나? 너무 미음미 좋은 사장님 아닌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겁다. 내가 하는느의 아이돌도 아니고 늘 데뷔할 순 없다. 시업이 망가치나 힘들게 만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상황 아이돌로 진짜 슬픈 거다.

하긴 당신은 음악가에서는 더 이상 욕심 낼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욕심 낼 필요가 있더라.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했고, 히트곡도 꾸준히 냈는데 언론에서 맛이 간 사람으로 취급했다. 채연의 5집 '흔들려가 나왔을 때'도 JYP,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노래는 좋은데 채연이 불러서 아깝다고 말했다. 좀더 잘해서나 소녀사에게 받았으면 매출 지체가 달라졌지. 이게 쇼크였다. 내가 뽑은 가수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어떻게든 이 친구를 키우

려 보니 상업적인 생각을 못했. 틀을 바꿔야 했다. 요즘 가요편은 10대가 잡고 있으니 채연처럼 이모 같은 가수가 흔들 수는 없다. 그래서 아이돌을 키우기로 했다. 이수만 씨에게 '아이돌이 없으니 회사 운영하기가 너무 무겁군다. 내가 아이돌 그룹을 만든 것에 반감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더니 자유경영 사대니깐 괜찮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이들은 소녀시대, 카리처럼 외모 위주의 아이돌은 아니었다. 음악적인 색깔이 강하게 붙어나는 그룹이다.

당신들은 이제 그런 아이돌을 원한다.

2인1집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뜨면 아이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질 거다. 이 정도는 불량하 아이돌만 생각이 들지 않겠다. 가수가 목적이 아닌 예술은 그냥 좀 할 거다(웃음). 90년대의 김진모, 박기영처럼 노래와 춤 실력을 모두 갖춰 듣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아이돌을 기대해도 좋다.

물론 중 반기는 소이다. 안 그래도 비슷 비슷한 아이돌 음악에 질려 있던 청이다.

우리 팀은 S.E.S를 예로 들면 유진미싱이고, 유진 유에 비다가 아·라·비·김·정·수준으로 노래를 심플하게 접하는 친구가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친구들이 팝송 부르는 걸 어떤 리모브 매달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로 될 거다. 노래하는 친구의 총 실력 역시 이효리와 비교해도 안 밀린다. 모 아니면 도다. 우리 스타업이 막한데도 지금 유행하는 노래들이 모두 하접해 보일 거다.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다. 마지막으로 MAXM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어설피게 노력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운과 기획하는 건진 노래도 사랑에 관한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KOUR
NIKOVA**



**SUPER
NOVA**



섹스 심볼, 스포츠 아이콘, 인도주의자, 편집걸...
너무 완벽한 그녀, 설마 러시아 스파이? 지금 그녀가 당신을 원한다!

BY DAVID SWANSON PHOTOGRAPHS BY JEFF OLSON

인류가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만든 이유

는 인나 쿠르니코바 때문이라고, 우리 믿는다. 그녀는 MAXIM과 뽀뽀한 코트 위를 오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멋진 여성이다. 몸매도 착하고 심지어 머피 때도 고운 그녀는 해외 파병을 나간 미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군바리의 심장에 하트를 새기는 중이다. (잠깐만, 근데 러시아야 태생 아니었어?) 그녀가 왜 국방색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착한 일을 하는지 한번 들여보자.

러시아보다는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는데 이제 야 미국 시민이 되었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난 내 스코어가 받은 러시아인. 빈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여권의 국적이 아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미군 위문 활동을 하기 전에 제 국적을 정하려는 게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물리요 하나에 올인하는 데 소질이 없어요(웃음).

지금은 미국무원단(USO) 활동에 헌신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협회에서 파병 군인들을 위해 하는 일이 정말 멋져요. 2008년에 광에 있는 베이스를 방문한 게 처음이고 그 뒤로 독일 터키 이라크,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왔어요.

전방터에 간 소스는 어떤가요?

모두들 신문이나 TV에서 읽고 보는 걸로 많이 접하겠지만, 실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것은... 정말 엄청나요. 그리고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만큼 친밀하고 정감은 분분은 앞으로도 평생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군인의 연인이 되었으니 가늠이 남다르겠어요. 정말 좋아요. 최고의 팬들이예요. 내가 테니스를 치던 시절 사진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내 MAXIM 화보를 봐에 걸어놓은 것도요.

지금까지는 당신의 연애를 언론에서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지요. 이왕 만난 김에 또 물어보아주세요. 지금 당신은 싱글인가요?

사적 생활의 미혼 이란 뜻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예인은 있어요.

음, 그... 라틴 팝 스타와?

맞아요.

"엘레나 이글레시아스: 축구 선수에서 가수로 전향해 월드 스타가 된 미남 라틴 가수 쿠르니코바와 8년째 열애 중."

얼마 전에 엔리케가 일몰으로 수상스키를 타는 동영상 본 것 같은데요. 조국 스페인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일몰으로 수상 스키를 타겠다고 내기를 친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영상 속 영영이가 당신 예인 것이 맞나요?

긍정도 부정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주죠. 엔리케는 수상스키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킬 줄 아는 남자다.

애인의 고향 스페인은 결혼에 진출하고 당신 고향 러시아는 일찌감치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니 스페인은 응원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난 미국을 응원했어요! 질했는데도 떨어져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결승전 맨 스페인을 응원했어요. 내가 수적으로 열세라서 상대 팀을 응원할 수도 없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나 봐요?

네. 특히 마이애미 히트를 좋아해요. 홈팀이거든요. 르브론 제인스가 마이애미 히트를 이끈다고 해서 다들 진짜 기뻐했어요. 이제 결과를 지켜볼 일만 남았죠.

올해 월드컵에서 라켓을 잡았어요. 일로서는 알다시피 아닌 양다리를 걸친 셈인데 요즘 테니스 선수들과도 친하게 지내나요?

아직도 많은 여자 선수와 연락하고 지내요. 테니스를 위한 일이라면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거든요.

얼마 전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사상 최고의 여자 테니스 선수는 세레나 윌리엄스"고 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너무해 미르타나 나브라틸로바나 슈테피 그라프는 영웅이 있는데도? 슈테피를 겪은 그 순간에 난 생애 최고의 행복을 느꼈죠. '이직 댁밖에 살지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어' 하고 말이예요. 하지만 세레나의 꾸준한 성취, 성공을 보면 그녀가 최고죠. 성격도 좋고 서로 친하게 지내요.

"미르타나 나브라틸로바: 1999년 체코 태생으로 윌리엄스 2회, US 1회 우승을 거머쥐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테니스 최고 국가 대표로 나선 여자 테니스의 전설"

"슈테피 그라프: 안드레 애거시의 아들이자 세레나 윌리엄스의 투어(WTA) 통산 17승에 빛나는 미묘의 테니스 선수" "세라나 윌리엄스: 전 17년 동안 US 오픈부터 윌리엄스 피서계 모든 테니스 대회를 휩쓴 사상 최강 테니스 명키이며 언니 나비스타와 함께 자매 테니스 선수로 유명하고, 압도적인 남성미를 풍기는 여자 선수"

남자 선수예요? 테니스 훈련 복식 파트너를 고르던 면 누가 좋았어요?

안드레 애거시요. 어릴 때 볼레타에러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친구들과 난 늘 그의 연습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인간적으로도, 테니스 선수로도 사랑해요.

인나 체프코(미녀 러시아 스피아이)에 대한 화제였어요. 당신이 러시아 스피아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하하. 나는 평화와 진실, 정직을 원해요. 만약 내가 스피아이라고 해도 정체를 못 숨기고 그냥 통통날 거예요. 내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눈만 보면 다들 알아요. 음, 이렇게 말하다 보니... 진짜 내가 스피아이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른쪽) 비키니 상의 Melissa Odabash 비키니 하의 Charlie by Matthew Zink 목걸이 Sisco Family Jewels (왼쪽) 비키니 Kardashians for Beach Bunny Swimsuit Collection (왼쪽 우측) 개털과 벨트 Galaxy Army Navy 귀걸이 L*Space CC 신발 Cesare Paciotti

ANNA KOURNIKOVA

“내가 섹시한 러시아 스파이였다면 금방 들통났을 거다.
내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속내가 다 드러난다.”



서조 Current/Elect. 비키니 등의 Karoshens for Beach
귀염이 Dean Davidson

MAXIM REPORT

KISS ME!
BY 김성현 PHOTOGRAPHS BY 이종미
KISS ME PLZ!

Do it do it, Chu~♡ Do it do it, Chu~♡





들어가요 하나? 알아야 하나? 그것이 고민이로구나

11월호 마감이 한창이던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에디터는 그곳을 찾았다. 뽀뽀하기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에디터지만 사람이 북적거리는 현대 거리 한가운데 위치한 그곳에 들어가서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곳은 바로 키스방.

도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우수죽순처럼 늘어나는 핑크빛 키스방 간판과 거리에 내놓기는 아한 색깔의 키스방 명함을 보았나? 호기심이 발동한 에디터는 적절한 기사 아이템이라고 판단하여 그곳에 잠입취재를 결심했다. 외모용으로 지쳐 한 마리 위험한 수컷이 도아고 있던 에디터가 갈바더에 굴러다니는 핑크빛 명함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이곳으로 향한 것은 절대 아니다! 갈바더에 뿌려진 키스방 명함을 잡는 일부터 냐트

거음이 물려왔다. 일단 특정한 명함을 들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길 확인한 후 거기에 적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담당 실장이 대뜸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부터 던졌다. 무뚝 여자인 '나보다 예뻐면 된다'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관대한 에디터는 "전 잘 몰라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대신 재미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라고 순진하게 답했다. 실장은 "OO 매너저로 스케줄을 잡겠습니다"는 말과 함께 "손님이 많은 시간이니 예약 형크내지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 요즘 키스방은 마감시간까지 손님이 붐빈단다. 에디터가 연락한 곳도 체인점인 10개가 훌쩍 넘어서는 프랜차이즈 키스방이었다. 이놈들이 흥대 거리를 자기네 업소 명함으로 도배하는 이유가 있었다. 키스방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예약하셨나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키스방의 잔잔지를 주으며 길거리의 하이패시처럼 돌아다니는 필요가 없었다. 키스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예약하면 끝이었다. 그렇지만 회원가입이 필수였다. 결국 두 방법 모두 당신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신상 정보가 오르른다. 짝뽕하다고 생각되면 애당초 키스방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살아 키스방을 간전환이 싹 트는 장소로 착각한 건 아니겠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하는 곳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참고로 휴대전화기 아닌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로는 예약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약속 시간 전에 확인화를 하지 않으면 바로 예약이 취소된다고 한다. 무서운 녀석들!

들어가겠습니다

에디터가 방문한 키스방의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철문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CCTV 녹화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아마 출입구에 있는 CCTV 카메라로 주변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듯했다. 철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전화 통화로 만난 담당 실장이 문을 열었다. 에디터를 보자마자 "몇 시로 예약하셨나요?" 라고 그가 물었다. "OO시로 예약했다. 이름은 모르겠고 재미있는 친구로 부탁했다" 고 대답하니 일단 안치질부터 허러 입구 옆 화장실로 에디터를 안내했다. 건물의 내부는 남자의 로망인 핑크색 패턴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따리 핑크가 좋아도 적당히 해야 핑크 매너이인 에디터도 속이 울렁거릴 만큼 자극적인 인테리어였다. 아한 핑크빛이 오히려 거북하게 느껴졌다.

안내를 받고 들어간 화장실에는 치약, 칫솔, 거울에 면도기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까칠한 수염 따위 미리 제거해두란 거였다. 그리고 수컷 손님이 혹시나 평소처럼 대중기를 덕을까봐 걱정했는데 키스방 화장실 유래된 '양치 योग' 이 딱하니 불어뛾다. 유치원생처럼 양치 요령을 따라서 이기 뽀뽀될 정도로 열심히 닦았다. 이미 이 화장실에 처음 들어온 모든 수컷들이 에디터와 똑같이 행동하기를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일 날 것 같은 위용을 뽐내는 양치 안내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니 실장이 문을 두드리며 "준비 다 됐습니다. 손님" 이라는 반가운(음?) 멘트를 던졌다. 암튼히 화장실을 정돈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이제 키스타입입니다

그 실장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지나고 나면 사이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남녀가 여유있게 있을



결국 난 전화를 해버리고 말았지. 너무 외로웠으니까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소파를 비롯해 작은 TV, 테이블, 접지 가늘땄, 휴지, 옷걸이, 물수건, 재떨이, 이가 비치되어 있다. 소파에 누워 TV를 민자작자라고 으으니 노크 소리와 함께 일문만 들던 키스 매니저가 들어왔다. 귀여운 외모의 그녀가 에디터에게 우롱차를 건넸다.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대화 내내 "오빠"라는 호칭을 문장의 앞과 뒤로 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프.프.래!

제한된 공간에 두 명만 있으니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다. 하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에디터의 몸을 안기며 가벼운 뽀뽀로 긴장을 대신했다. 원래 키스와 가벼운 터치만 가능하지만 이것은 손님이 하기 나름이라고 한다. 키스 매니저를 잘 구워삶으면 진도를 더 나갈 여지도 있다는 얘기 아무리 그녀도 나도! 일 때문에 구강으로 인사를 나눈다고 하지만 또한

어색함과 긴장을 피할 수 없다. 남자가 키스를 하다 보면 감정이 없어도 몸이 돌아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게 실재로 에디터도 키스를 하면서 자체 게이 드라인을 넘어섰지만 웃으면서 사과를 했더니 키스 매니저는 골하게 넘어갔다(후. 진도는 비밀이다). 그렇다고 쉬지 않고 입술 박치기를 하진 않는다. 중간 중간 접점을 늘여놓다 말이 끊길 즈음 공간이 키스를 했더니 30여 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이제 자를 타임입니다 - - - - -

사고려운 벨소리가 방안을 울려 퍼졌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고 하니 그녀가 "자를 시간이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던졌다. 뭐? 웬만한 언어 비숙어를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에디터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를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자

를이 무어냐고 키스 매니저에게 물으니 "키스방으로 나가기 전에 손으로 생산 돌돌이를 달래는 시간"이라고 친절히 말했다. 반대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 그녀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이만 나가요. 제가 입구까지 친한 척 하며 배웅 할게요"라고 말하며 팔짱을 끼었다. 친. 친한 척? 어쨌거나 키스방에서 키스 매니저가 남자 손님인 사정을 도와주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그냥 보내자니 손님의 욕구 불만이 생기기 키스 타임 끝날 무렵 자를이라는 절묘한 카드를 키스방이 들고 나왔다. 판단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끈한 자를을 유도할 만한 줄길 거리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퇴실하겠습니다

키스방에 들어가서 대기 시간과 양치 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시간 정도가 소요됐다(에디터는 30분 어치를 예약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키스방은 자극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일단 생체에 자체에 대해서는 점주와 키스매니저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은밀하게 1로 가늠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키스 이외에 특별한 특별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른 유흥업소를 다녀왔을 때와 달리 좌책감도 달한 편이었다. 키스 매니저가 손님을 가정한 에디터와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것을 가리지 않은 이유도, 그녀가 자신이 생체를 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나의 미모에 반해서? 후.

하지만 키스방 업주의 말처럼 키스방이 간접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일단 키스+GS라고 써진 큰 간판은 호기심을 자극할뿐더러, 명함 카드를 줬고 그곳에 전화를 걸고 계단을 올라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 수처심을 떨치기 힘들었다. 손님이 미생나지인지 여부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나의 외모 때문이 아닐까? 때문에 이런 친구도 쉽게 이용할 여지가 있고, 탈선의 온성이 될 수도 있다(생각이 키스방은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또한 일베된 공간이기에 불법적인 생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한데, 최근 이 큰 업소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기 때문에 타 업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령 키스 매니저의 발을 애무한다던가)를 제공하는 업소가 등장할 조짐이 벌써부터 눈에 띈다. 무엇보다 여성의 생체를 돈을 주고 구매하면서 발판을 파는다는 사생활으로 스스로를 깎뚫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키스방이 정말보다 생체적으로 더욱 수골적이고 자극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공간으로 변질된다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다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공중분쇄 된 소위 대탈방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



MANAGE ME

키스방의 그녀

키스 매니저라 부르는 그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다.

올해 몇 살인가?

22살이다. 휴학하고 학비를 모으는 중이다. 차이가 고르지 못한 게 콤플렉스라서 이삼 에 돈을 벌어 차이고정도 할 생각이야.

하루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8시간 정도 근무하면 대략 30만 원 정도는 번다.

정말 이곳을 2차라고 쓰고 레슬링이라고 읽는다)를 가지 않나?

물론이다. 사장님이 "손님이 2차를 나가자고 코드면 당장 방에서 나오라"고 했다. 그런 손님은 그냥 환불해 주고 집에 보낸다. 신림동 고시촌 근처 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래도 목돈을 주면 2차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나는 이곳이 불법업소가 아니라서 알고 있고. 2차를 나갈 생각은 없다. 사장님도 2차를 나가기 시 작하면 피곤해지지만 하고 장사는 시원찮기 때문

에 2차는 절대 금지라고 말했다.

키스 이외에 어디까지 터치가 가능한지? 남자에게 나올인가?

웃 워를 만지는 건 상관없다.*참고로 그녀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대신 가슴 인이나 차마 속으로 손을 넣으면 안 된다. 가슴과 다리를 주물럭거리는 것도 상관없지만 아플 정도로 움켜쥐면 곤란하다.

방 안에 비치된 휴지가 거슬린다. 내가 생각 하는 그 용도가 맞나?

키스타임이 끝나기 5분 전에 자물(스스로 플레이) 시간이 준다. 나를 찾은 손님은 대부분 그냥 나가는데 자물하고 가는 분도 많다고 들었다.

키스 매니저치고는 스타일이 딱 배어난 것 같다.

당신이 까다로운 것 같다. 남자 손님 중에 프렌치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 허만 달으면 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내가 교정해준 적도 많다. 사실 당시처럼 입술이 두꺼운 사람과 키스하는 게 제일 힘들다. 얼굴이 온통 침투성이 되니까 말이다.

젠장, 그걸 리깅 야간 근무(10사·새벽 4시)가 어렵진 않나?

술 취한 진상 손님만 아니면 힘든 건 없다.

마지막으로 키스방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찰에게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알겠다. 오늘 Chu~고미웠다(♡)

CHIKA-CHIKA

양치를 배우다

여기가 차아 클리닉은 아니지만 알아줘서 나를 건 없을 거다.



1 이를 닦으면서 잇몸까지 깨끗이 닦아요.

2 혀 안쪽까지 살때가 없도록 깨끗이 칫솔질 합니다.

3 입안정도 깨끗이 칫솔질합니다.

4 가글로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이 정도면 마늘을 질질질 씹고 온 사람도 언제든지 키스할 수 있게 될 거다. 키스방을 가지 않더라도 올바른 양치법을 알아줘서 나를 건 없다. 실제로 달콤한 키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깨끗한 양치가 기본 중의 기본 이니까

WHY NOT!

합법 or 불법?

궁금해서 찾아봤다. 이놈들 천천대?



우리나라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교는 '남녀가 성기(性器)를 결합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성관계가 성립하려면 성기 삽입이 있거나 신체일부 또는 도구로 이용한 '유사성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녀가 합체를 하던가, 손을 비롯한 다른 도구로 상대의 비사를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예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곳에선 키스만 할 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경찰에 진술조서를 받아도 잡히지 않으면 그뿐이다. 이놈들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건 천천대?

MAXIM BUSINESS

01



Buy
SM, YG,
JYP And...

Miss A나 2NE1 빠인 당신은 이미 이 종목의 기업 가치, 호재와 악재에 대해 애널리스트보다 더 빠삭하게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02

차가운
도시 남자의
아이템



MAXIMO이 당신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골라왔다.
당신은 과연 이 제품군 중에
몇 가지를 갖추고 있나?



소녀시대. 그녀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by 김민서 (kimmanager@twitter) | IMAGES: SHUTTERSTOCK / 769942129

요즘 한국 연예계의 키워드는 바로 '걸그룹'이다. SM, JYP, YG 등의 대형기획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획사에서도 걸그룹을 조직해 데뷔시키고 있으며,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이들은 일본 및 대만, 태국, 중국 등 아시아 음반 시장으로 뻗어나가 한류를 확산시키고 외화 벌이에 앞장서고 있다.

걸그룹 전성시대

국내에서 걸그룹 열풍이 불기 시작한 원년으로 지난 2009년을 꼽는다. 걸그룹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90년대 말 JESS와 핑클의 가요계 요정 양산 맥이 있었고, 그 후에도 베이비복스, 천진희, 유필리 등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렇다 할 파급력을 갖진 못했다. 그러던 중 2008년 JYP의 원더걸스가 '텔미'를 계기로 알약 스타덤에 오르며 국민 걸그룹 돌풍의 서막을 장식했다. 그 후 2009년 초 거

을 소녀시대는 미니앨범 'Gee'를 발표하며 가요계를 강타한다. 소녀시대는 이미 SM의 강력한 기획력과 지원을 등에 업고 집을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한 바 있으나, Gee의 성공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필자가 소녀시대 9명의 이름을 알게 된 것도 그때다. 또한 '집' 소원을 말해봐'를 연이어 성공시켜 한국 최고의 인기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걸그룹 트렌드에 힘입어 데뷔한 신인 그룹들이 줄줄이 대박을 터뜨리며 한국 가요계를 장악하게 된다. 시간방춤으로 '이브라다카브라'를 히트시켜 브라리아디걸스가 견제를 과시했고, 카리는 멤버 교체 후 타이틀 곡을 언덜이 히트시켜 대형 걸그룹으로 성장했다. 또한 포미즈, 2NE1, 타이완, 시크릿 등이 성공적인 데뷔와 타이틀곡 히트를 통해 가요계에 안착했으며 그 바톤을 SM의 새 걸그룹 프로젝트 F(X)와 JYP의 미쓰에이 그리고 씨스타, 레인보우 등이 이어받으며 걸그룹 2세대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걸그룹 1세대인 원더걸스는 미국 진출을 거쳐

현재는 한국-미국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소녀시대는 현재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으며, 카리와 브라리아디걸스, 포미즈도 일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들 걸그룹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 문화 업계에 걸그룹이라는 키워드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대박

주식투자자는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감지해야 한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가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된다. 전문투자자는 이러한 능력을 고도로 훈련 받은 인력이다. SM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 금융 위기 때 1천 원 미만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2010년 10월 15일 종가 19,100원을 기록했다. 2년 전엔 20배 상승한 것이다. 소녀시대의 전성기였던 2009년 내내 줄곧 2500~5,000원 사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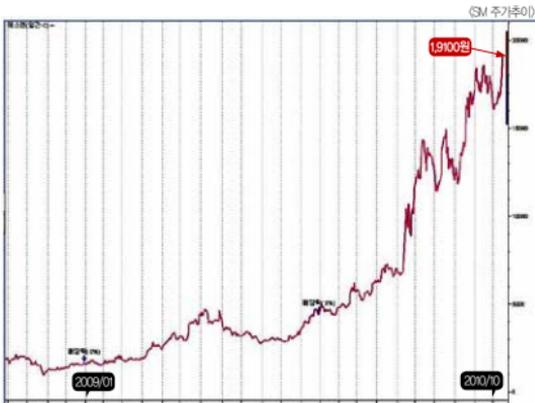


유리아, 오빠가 미안해.

주가를 기록하다가 이러한 활동이 기업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2010년 들어서 주가는 놀랄만한 상승율을 기록하게 된다. 즉, 소녀시대가 한 국에서 대박을 치고, 동방신기가 일본 열도를 휩쓸던 2009년은 SM의 주식을 매수할 적기였다. 그 때만 해도 이들의 대박행진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SM의 주가를 살만한 충분한 시점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거다.

SM Entertainment

실제로 2010년 SM 주가의 상승은 소녀시대보다는 동방신기의 힘이 컸다. 동방신기의 활발한 일본활동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방신기의 해체 이후로 이 로열티 매출은 2010년 상반기를 끝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인', 그리고 제의 동방신기가 나올 것이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SM의 고수



익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소녀시대는 일본에서 동방신기보다 좋은 로열티 조건으로 계약했고, 성공할 경우 더 큰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됐다. 또한 사이나나 슈퍼주니어의 해외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공백은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보아와 F(x)가 어느 정도 매력을 것으로 기대된다. SM의 강점은 바로 이렇게 국내를 넘어 해외 대중에게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스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능력과 노하우,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SM의 주가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며 재평가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비전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불법 음원,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급격히 준 것도 경쟁력 있는 연예기획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SKT의 멜론, KT뮤직의 도사라, 엠넷미디어의 엠넷닷컴, 네오위즈벅스의 벅스 뮤직과 같은 온라인 음원 유통사이트를 통해 음원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위 '팔리는' 콘텐츠를 가진 SM, J.Y.와 같은 연예기획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

내 음원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형 기획사, 대형 음원 유통 사이트의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거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슈퍼스타S)의 성공은 연예 산업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능력있는 지원자들이 있고, 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대중이 있다.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연습생이 되어도 뽀만해진 데뷔조차 하기 어려운 혹독하고 치열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는 한, SM과 같은 대형기획사가 히트상품 제작을 위한 좋은 지원의 무한 공급은 별다른 신규 투자 없이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필자가 SM의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이다.

그らは 외에도 YG 엔터테인먼트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다. 개성과 실력을 갖춘 빅뱅과 2NE1을 앞세워 어떤 면에선 SM마저 압도하는 YG 엔터테인먼트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거다. 자, 이 정도면 소녀시대 나 2NE1의 콘서트 갈 돈을 모아서 SM, YG의 주식을 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심한 순간 당신은 이제 콘서트장에서 손이러도 한 번 잡아보려다 매니저에게 두들겨 맞는 짜질이 아니다. 그녀들의 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녀가 소속된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된 거대(이) 바꾼이들은 '오빠' 들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기획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1 PRIMA CLASSE의 다이아리 프라마 클라세 제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구매 후 한창 동안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예기대불만 속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 관리에는 스미트폰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날수록 멋스러워지는 다이아리에 일상의 흔적을 기록하는 즐거움을 포기할 순 없다. 게다가 클래식한 지오메트릭 패턴과 모서리 부분의 금속 장식이 여유로운 프라마 클라세의 럭셔리한 다이아리라는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게 만든다. 특히 영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에게는 더욱 유용하다.

가격 248,000원 문의 02-514-0693

2 J&B의 J&B RESERVE 대한민국 아저씨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발렌타인과 더불어 월 1천 상자 이상 팔리는 J&B 리저브는 괜히 어린 기분을 내고 싶은데 노망 냄새 풍기는 실은 것 일사한 직장인이 훌쩍이기 좋은 스카치 위스키다. J&B 레이나 제트가 강렬함으로 20, 30대 젊은이의 인기를 사로잡는다면, 고품질 위스키를 불변당하여 부드럽고 그윽한 맛을 내는 J&B 리저브는 비즈니스 미팅 테이블 위에서도 환영받는다. 달콤한 과일과 바닐라의 향과 맛이 느껴지지 않게 입안에 퍼지기 때문에 스카치위스키 초상자와 마니아를 모두 만족시킬 겸손한 선택이다. 중후한 결함을 사용한 병은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선물로도 손색이 없다.

가격 70,000원 문의 www.jnbscotch.co.kr

3 KISSA HOMME의 구두 경쟁적 구두에 요란한 디자인은 어울리지 않고, 무난한 디자인의 구두는 개성 없어 보인다. 커다란 옴의 구두를 슬림하면서 세심한 부분에 변화를 준 디자인이 눈에 띈다. 카프가공을 최소한 고급 솜아지 가죽과 에나멜 소재를 사용해 한층 더 고급스럽다. 깔끔한 디자인에 착취감이 좋아서 외부 활동이 많은 비즈니스맨이 신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가도 가죽도 역시 최

가격 298,000원 문의 02-3446-9949

4 WATERMAN의 CHARLESTON BLACK GOLD TRIM 지금 당장 사용할 일이 없어도 중요한 때를 대비해 만년필 하나 정도는 마련해 두라. 당신이 계약서에 서 인하기 위해 꺼낸 만년필 하나가 당신과 당신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당신 월급의 몇 배나 되는 고가 라인업을 지를 필요는 없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찰스턴 블랙 골드 트림 만년필 정도면 잘 빠진 팬촉처럼 당신을 사로한 이미지의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림감과 필기감도 좋은 펜이냐 당신의 감정을 가끔 글로 꺼내보고 싶은 잉여로운 마음일 둘 때 사용하면 것도 나쁘지 않다.

가격 290,000원 문의 www.waterman.co.kr 02-544-0311

5 THINKPAD의 X201T TABLET 비즈니스용 노트북은 문인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내실을 갖춘 튼튼한 내색이 당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다. 씽크패드의 X201T 태블릿은 2인치 액정의 슬림한 모델이지만 인텔 i7 CPU를 탑재해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태블릿의 멀티터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를 채택했고, 최상 화의를 위한 200만 화소 카메라,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스테레오 스피커도 장착했다. 키보드의 누수 방지 기능은 기본, X201T 태블릿이 있다면 어디서든 집처럼 쾌적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가격대는 높지만 제값을 하는 제품이니만큼 본인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가격 2,560,000원 문의 www.lenovo.com/kr 1588-6782



남자를 돋보이게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

주목 받고 싶나? 괜찮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정만하라. 정돈된 열혈이나 소지서 품을 물어올 수 없잖아!





5



6



7



8



9



10

6 APPLE의 IPOD TOUCH 4세대 업무용 아이폰 앱을 사용해야 하거나 휴대용 약정의 노예라서 아이폰을 구입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맨이라면 아이폰 터치 4세대가 좋은 대안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iOS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아이폰 터치 4세대는 아이폰 4세대와 동일한 A4 CPU를 탑재해 성능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동일한 화면의 화질이 다소 떨어지고 플래시가 없어 스틸 컷 촬영에는 손색이 없었지만, 페이스 타임화상 통화와 다른 기능 활용에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아이폰 터치 4세대는 64GB 고용량 라인업도 제공하니 갈아입을 고민만 하다가 아이폰 구매 타이밍을 놓친 사람에게 추천 한다. 가격 319,000원 (8GB 기준)

문의 store.apple.com/kr 080-330-8877

7 BELKIN의 STEALTH SLIPCASE 백팩이 변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장상에 백팩을 매는 건 어지간히 패셔너블한 남자가 아니고선 소위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노트북이 들었다가 걸 과사하는 듯한 튀는 스타일의 가방이나 007 가방을 연상시키는 투박한 가방도 비즈니스용으로선 부적합하다. 디자인이 깔끔하면서도 노트북을 충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노트북 가방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벨킨에서 내놓은 스텝스 슬립 케이스는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아이폰용이다. 가격 40,000원대

문의 www.belkin.com/kr 00798-8521-9469

8 SEIKO의 SRL021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은 비즈니스맨이라면 깔끔한 시계 하나는 경이해두자. 중요한 미팅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만 큼 모양 짜지는 일도 없다. 세이코의 SRL021은 날짜와 요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휴대폰을 꺼내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여기에 골다식하면서도 심플한 매력을 살린 케이스와 부드러운 가죽 스트랩으로도 세련미를 잘 살렸다. 패션용 완성할 아이템을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당신의 품격도 함께 업그레이드해 줄 이 녀석을 추천한다. 가격 670,000원 문의 02-6002-3827

9 SYSTEM HOMME의 슈트 슈트를 잘 입는 남자는 어느 자리에서든 돋보인다. 시스템 옴므는 슬림한 핏트감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20, 30대 남성에게 인기 높다. 구김이 적은 고급 울 소재 등을 사용해 세련돼 보이고, 허리 부분이 잡혀 있는 슬림한 디자인이 실루엣을 도드라지게 해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아쉽게도 당선이 날씬하게 도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선이 다는.는 또 는 다니고픈 회사에 나이 많은 선배가 많다면 더블 브레스트드 재킷과 보라색 타이는 피하는 게 좋다. 자칫 칸방 저 보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심플한 흰 버튼이나 투 버튼 재킷이 무난하다. 포인팅을 신경 쓰지, 화이트 셔츠나 셔츠 타이의 색과 패턴 조합에 신경 쓰자. 화이트 칼라에 셔츠 스타리프 타이는 기본 중에 기본

상의 400,000원대, 하의 200,000원대 문의 02-546-7764

10 HTC의 NEXUS ONE 당신의 비즈니스 라이프를 구굴이 한 몫을 이뤘다면 스마트폰 역시 구글의 레퍼런스 폰인 넥서스원이 좋겠다.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버전 지원이 가장 빠르게가 지원해주는 건 아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작태운 고별적인 멀티터치 오류도 많이 개선됐다. 조루 배터리를 커버하는 예미 배터리의 존재도 비즈니스맨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한다. 여기에 하나 더 아이폰 4처럼 데스크림과 통화 품질을 불만해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

가격 699,000원(월고교가 기준) 문의 www.show.co.kr 1588-3352

ANTI HERO

매관매직의 달인 카디건 공작

19세기 영국에서 매관매직 시스템을 활용해 육군 대령에 오른 사나이
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소개할 카디건 공작님이다!
매관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BY 김민 WORDS BY NASICA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19세기 중반까지는 군 장교가 되려면 실력보다는 집안이 좋아야 했다. 장교직도 당연하게 돈으로 사고팔았는데 이를 매관매직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당시 영국군 소위 계급의 가치가 약 400파운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억 원이었으니 가난한 집 자제는 연감생식 꿈도 못 꿀 금액이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19세기 중반까지는 군 장교가 되려면 실력보다는 집안 이 좋아야 했다. 장교직도 당연하게 돈으로 사고팔았는데 이를 매관매직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당시 영국군 소위 계급의 가치가 약 400파운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억 원이었으니 가난한 집 자제는 연강생실 꿈도 못 꿀 꿈객이었다.

매관매직의 대표주자!

제7대 카디건 공작 제임스 브루드넬,
그는 누구인가?

전형적인 영국 토지 귀족으로서, 속물적이고 오만하며 혁신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수구골통이었다. 1824년 27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관매직 시스템을 100% 활용해 초고속 승진했다. 입대 다음해에 중위, 그 다음해에는 대위, 4년 후에는 소령으로 이것도 모자라서 3개월 후에 다시 중령으로 승진했다. 2년 후인 1832년 마침내 대령으로 승진해서 제5 경기병 연대의 지휘권 구매 자격을 획득했다. 이때 추가로 낸 프리미엄만 35,000파운드약 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품셈품사 카디건 공작은 좀 더 '폼 나는 부대인 제1 경기병 연대의 지휘권을 손에 넣기 위해 추가로 48,000파운드약 120억 원을 지르는 걸 망설이지 않았다. 폼 나는 지휘관 생활을 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자기 부대 군복을 전부 최신 스타일로 새로 맞추고, 장비도 업그레이드했으니 말 다했다(그러나 병사가 아닌 일반 장교는 모든 걸 자기 돈으로 구매해야 했기에 그의 지름 품목을 장만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나마나 이 남자 병신 같지만 좀 멋진데?

▶ 래글린 경의 모습. 돌격이 실패로 끝난 뒤, 분노한 부관 경이 "이런 호리망당한 명령서를 주다니!" 하고 항의하자, 래글린 경은 그 명령서를 한동안 말 없이 보더니, 부관을 돌이켜 말했다. "이거 자네 글씨 아닌가?" 물론 부관은 래글린 경의 앞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 제1 카디건 공작 제임스 브루드넬은 영국의 군을 개혁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다.

1 일본 자살 특공대 못지 않은 무모한 돌격!

크림 전쟁 당시 투르크군이 지키던 보루를 러시아군이 감승하여 점령한 뒤, 투르크군의 대표까지 끌고 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영국군 총사령관 레글랜(Reglan) 경은 대표까지 뺏기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러시아군을 저지하려는 명령서를 기병대에 내렸다. 문제는 이 명령서에 현재 상황은 물론 어디

"전설이 된 발라클라바 전투 '경기병 여단의 돌격'은 전설이 되었다."

에 있는 대표를 탈환하라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다는 거다.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기병대 사령관 루건(Lucan) 경과 경기병대 지휘관 카디건 공작은 명령서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나며 육신자살하는 귀족 영감들이들을 보고 육한 놀란(Norlan) 대위는 "바로 저 대표 말입니다!"라고 말하며 대표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안타깝게도 그곳은 원래 목표인 점령당한 투르크군 진지가 아니라 러시아군 본진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카디건 공작은 "저런 곳에 돌격하면 희생이 심할 텐데"라는 소극적인 불만만 드러냈고, 심지어 루건 경은 "명령이니 따르는 수밖에"라고 응수하며 일본 자살 특공대 수준의 무모한 돌격을 실행에 옮겼다. 당시 영국군 최고 지휘부에 명칭한 녀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2 심지어 러시아군도 놀랐다!

영국군 경기병대가 3명이 러시아군 포병대로 둘러싸인 죽음의 협곡 안쪽으로 돌격하자,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총사령관 레글랜 경은 "저런 미친놈들, 왜 저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야"라며 깜짝 놀랐다. 러시아군도 처음에는 "저것들이 단체로 술 퍼 마시고 취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무척이나 용감하다고 정작 영국군 경기병 대원들은 이런 자살 공격을 수행하면서 돌병

한마디 없었다. 다만 손가락을 잘못 눌러 수많은 대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놀란 대위는 돌격 도중 갑자기 진열 앞으로 뛰어나가 뭔가 소리치다 가장 먼저 적탄에 쓰러졌다. 후세 사람들은 그가 뒤늦게 공격 방향이 잘못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열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지만, 당시 대열 맨 앞을 달리던 카디건 공작은 그가 지휘관보다 앞장 서 달려드는 사실 자체에 몹시 화를 냈었다고 전해진다. 아! 이 영감들이 정말 대단하다.

▼ 카디건 공작의 꼴통 활약은 의외에서도 펼쳐져, 당시 상정된 개혁이라는 개혁은 모조리 반대했다. 그래도 죽기 직전에는 개혁을 수용했다(자랑이냐).



3 실패, 실패, 대실패!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3면에서 쏟아지는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고 딱심신을 당했다. 돌격한 674명 중 107명이 현장에서 전사했다. 나중에 부상으로 숨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 카디건 영님은 순순히 잘 뜻을 인정할 그런 쉬운 남자가 아니다. 그는 사고에 가까운 전투를 치른 몇 달 뒤 건강을 핑계로 귀국했는데 예상과 달리 열렬한 환영을 받는 거다. 철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돌격한 불도저 같은 면면이 부각되어 보도되었고,

지휘관들의 바로 같은 짓거리라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다. 카디건은 우쭐하여 자신의 행적을 떠벌였다.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상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영웅 카디건과 관련한 기념품이나 책 등을 만들어 팔았고, 특히 카디건 공작이 즐겨 입었다는 니트 덧옷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보니 카디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은가? 빙고! 그가 즐겨 입던 니트 덧옷이 바로 요즘에 특히 인기 있는 카디건이다.

▼ 카디건 공작이 후세에 남긴 공작은 매관매직이라는 악습에 대한 개혁의 발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 그리고 카디건이라는 의류를 남겼다는 사실 뿐이다.



▼ 이 경기병 여단의 돌격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도 많다.



4 밝혀진 진실, 그리고 카드웰 개혁!

하지만 손바닥으로 달을 가릴 수는 없는 법. 당시 유능한 정예부대가 병맛 같은 지휘로 큰 피해를 본 이 사건은 몇 년 뒤 책으로 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68년에는 그 책의 내용이 '경기병 여단의 돌격(The Charge Of The Light Brigade)'라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였다. 크림전쟁에서 '돈로 계급을 산 장교들'의 지휘력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된 영국 정부는 결국 1871년 카드웰 개혁(Cardwell Reforms)을 통해 무려 200년 넘는 역사의 매관매직 시스템을 폐지했다. 이미 다른 유럽 국가들은 모두 그런 제도를 폐지한 후였다. 그래도 카디건 공작은 우리나라 일부 사회 지도층보다는 훨씬 낫다. 병역 기피는커녕 막대한 돈을 내고 군대를 갔고, '경기병 여단의 돌격'에서 몸소 칼을 들고 러시아군의 포화 속에 맨몸을 던졌다. 그는 무능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았으니가 말이다.



▲ Look-on (빙관자) 경 이라 불리던 루간 경

OPEN MARKET

매관매직 시스템

돈 없으면 평생 이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뻔 했구나! 이것이 진짜 MAGO!

그 당시 영국은 재산이 있는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던 시대였다. 출신 성분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이지 않은 신분 체계가 엄격히 존재했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군 지휘권은 반드시 계급사회의 상류층이 차지해야 했다. 게다가 대위의 경우 기본 급료의 절반이 최고 사당의 수배로 나갈 정도였으니 집에서 따로 고객의 용돈을 받지 못하면 버틸 수 없었다. 장교-신사라는 당시의 상식 때문에 의사주 생활도 좀 나아 봤기 때문이다. 이런 장교들의 모임에 교양 교육은 둘째 치고, 당장 밥값도 내지 못해 팔팔대는 친구가 끼어든다면 번인은 물론 동료 장교들도 난감했을 거다. 결국 그런 민폐도 억울 겸 해서 가까운 집안 출신은 이에 장교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했다. 그리고 야망한 검증 방법도 없었다. 당시 전쟁은 첨단 과학 무기가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장교가 되려면 동료 장교들과 잘 싸우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행동하고, 부하 병사들에게 위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정상이었다. 아무튼 출신 성분들에게 돈 문제나 있는 집안에서 정장은 교육을 받고 자란 신사 계급 출신의 영성이 잘 먹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장교가 되려면 400파운드 이상의 돈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도 없었던 거다.

NOT ME!

예외는 있다!

사대를 막론하고 공돌이는 늘 인기가 없었다. 매관매직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

공돌이에 해당하는 포병 공병 해군의 장교가 되려면 돈보다는 실력이 필요했다. 당연히 이 자리는 매관매직 시스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군이어서 지휘 체계가 별개이니 그렇다 치자. 그럼 같은 육군 소속인 포병과 공병 장교들은 실력도 없이 부모 덕에 장교가 될 수 있었던 보병이나 기병 장교들을 알잡아 보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보병과 기병 장교들은 포병이나 공

병 장교들을 우리나라의 공돌이라고 쓰고 부속 몸이라고 읽는다처럼 취급했다. 게다가 보병이나 기병 연대는 돈만 내면 고승 승진이 가능했던 데 비해, 포병이나 공병 장교들은 오로지 연공서열만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만큼 승진이 더더 나이가 비슷하면 보병이나 기병 장교보다 계급이 훨씬 아래인 경우가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공돌이들이 먹고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전쟁

오, 나의 여신님

여신을 만나고 싶나? MAXIMO이 진짜 여신 교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by 권민혜



IMAGE Dreamstime.com

1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사는 곳 일본 직립 태양의 신

매력 일본의 800만 신을 지배하는 신 중의 신이다. 쿄토도 높다. 문란한 다른 여신과 달리 성스럽고 순결하다. 가다가 아름답기까지 권력과 미모를 모두 갖췄다.

단점 동생과 칼날 씹어 빨기 대결로 누가 더 뛰어난지 자웅을 가린 잔적이 있다. 칼을 오물오물 씹은 후 이를 빨아내면 깨진 칼날 때문에 신으로 변화하는데, 누가 더 많은 신을 만들어내는지가 승부의 관건이었다. 순진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좀 놀아본 여자다. 발라당 까진 기쁨에 같으니까고

유혹의 기술 우선 선도칼 딱딱 씹어대는 중·고등과 친해져서 칼 씹는 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접근한다.

2 코야틀리쿠에

사는 곳 멕시코 직립 대지 다신교의 신

매력 딱 멋있는걸. 순종순종 아 이를 잘 넣는다. 남편과 결혼해 400명의 자식을 낳았다.

단점 시체가 주식이다. 취향이 독특해 질린 손목까지 해골, 심장, 사람 가죽까지 만든 목걸이를 하고, 뱀으로 만든 차마를 탄다. 하늘에

나도 여신이라니까?



서 내려온 것일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덜컥 또 임신했다. 손만 잡어도 아기가 생기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면 골머리 좀 앓을 거다. 그녀의 자식들도 무섭다. 이놈의 자식들은 엄마가 깃털을 만져 임신을 해버리지 수처럽다고 엄마가 죽었다. 뱃속의 아이는 엄마가 죽자 뱃속을 뚫어와 엄마를 죽인 때문 형제자매 400명을 모두 처단했다. 그중 누나의 모기가자 날아가 하늘에 걸렸고, 그것이 달이 되었다고. 그럼 우리는 한 가위 때 패륜아X의 면상에 대고 소원을 낸 거야?. 유혹의 기술 당신의 이를 뿜어 귀걸이를 만들어줘라. 단 자식들 몰래 접근하라. 아반엔 당신의 머리통이 우주에 박힐지도 모른다.

3 트리플데오들

사는 곳 멕시코 직립 더러움, 부패의 신

매력 예쁘고 관대하기까지 하다. 무슨 죄를 저지르건 솔직하게 이야기만 하면 그녀는 모든 걸 용서하고 죄를 씻겨준다. 방향탄 이틀만이나 그녀를 숭배할 수 있다는 점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단, 간혹 이상의 큰 죄야하고, 이보다 가벼운 죄를 지으면 그녀를 숭배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단점 인간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한다. 신들과 내가 해서 세상에서 가장 청렴한 인간을 유혹한



적도 있다. 또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 체취와 종래, 여신과 마귀 등 모습이 다양해 언제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 유혹의 기술 금욕하라. 그녀가 당신을 피혹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신들과 내기를 할 거다.



4 벤텐

사는 곳 일본

직립 사람 결혼, 게이샤 부, 물, 지혜, 예능, 도박의 신 매력 그녀는 돈이 계속 나오는 마법 지갑, 투영인간 모자를 가지고 있다. 도박꾼을 도와 돈을 따게 하고, 게이샤(기생)를 관리한다. 남자들의 로망을 모두 다 갖춘 여신이다!

단점 복을 가져다주는 일본 칠복신 중 유일한 여신이다. 다른 남자 신들의 가센 건제가 예상된다. 그 래도 가져다주는 액은 자신이 있나?

유혹의 기술 지독한 술로가 되어보자. 그녀는 질투가 많아 커름을 해버리게 하고, 술로는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 인연을 만들려주자 지친 그녀가 자원봉사할 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신성행으로 빙아해 그녀에

게 "내 인생을 알아먹고 작곡했"며 거하게 따져라. "나에게 대든 남자는 니가 처음"이라고 말하며 당신에게 목 안길 거다.

5 자고신

사는 곳 중국 작곡 화장실의 신

매력 상당한 미인이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한 남성체가 그녀를 천으로 들었다. 질투에 눈이 먼 본부인은 그녀를 화장실에서 죽였다. 하늘이 그녀의 운명을 딱히 여겨 그녀를 화장실의 여신으로 만들었다.

단절 찍은 화장실에서 차가 한대야. 이단 장면인가. 유혹의 기술 불일치는 화장실에서 보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법.



원소는 거울면

6 칼리

사는 곳 인도 직업 죽음, 파괴, 전쟁의 신

매력 까무잡잡한 피부가 아름답다. 항상 항상 밖으로 나와 있어서 키스하기도 좋다. 인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여신이나 든든한 핵이 될 거다. 단절 인도 최고의 신 시바가 아내 파르바티에게 피부가 검다고 놀리자. 독종 파르바티는 자신의 실감을 박박 벗겨냈다. 이 벗겨진 피부에서 탄생한 것이 칼리다. 때문에 태어났더니, 발바닥 입맛이 짝조름해지는 기분이야.

유혹의 기술 인간을 재물로 바쳐라. 살려도 인도에서는 300년 동안 그녀를 기리기 위해 여행자를 납치해 죽여왔다. 아니면 빨간 꽃을 바쳐라. 피를 좋아하는 그녀는 빨간 꽃만 꽃만 받는다.

7 릴리트

사는 곳 가난 직업 폭풍, 창조, 신

매력 여성 상위를 좋아한다. 색소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줄 아는 환관인 여신이다. 여자 인간이 없어 늘 동물과 교배해야 했던 아담은 한 남에게 여자 인간을 만들어달라고 애를 썼다. 그래서 해남이만 들어온 인물이 바로 이 릴리트 여신이다.



칼리도 ▶

그녀를 보자 몹시 흥분한 아담이 그녀 위에 올라타자 그녀는 아담을 비웃으며 "우리는 평등하게 창조됐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아, 도대체 그녀 단절 그녀가 떠난 곳은 악마들이 편지는 피의 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악마들과 떡을 치며 매일 100명의 자식을 낳았다. 생각이 없구만!

유혹의 기술 그녀를 위로 올려라. 어차피 당신도 좋잖아? 드센 그녀가 우상이면 말을 만나라. 말 릴리는 남자들의 꿈에 나와 몽정을 유발한다. 릴리를 의치해 질질러라. 유대교와 기독교는 당신을 장액도둑 X이라며 미워하지만, 우린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

8 세드나

사는 곳 에스카모

작업 바다의 신

매력 남자를 보는 눈이 낮다. 우수한 인간이나 신만 상대하는 다른 여신과 달리 그녀는 신도, 인간도 아닌 개를 남편으로 맞았다. 개 남편은 늘 력도 없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먹이를 구걸했다. 단절 스타미가 많다. 음식을 출처 먹는 건 기루. 배가 너무 고프아 아버지의 손을 덥석 문 적도 있다. 화가 난 아버지가 그녀를 바다에 던졌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매달리자 아버지는 그녀의 손가락을 도끼로 자르고, 눈을 오게아버렸다(질린 손가락은 고래, 바다표범이 되었다). 이 일로 성질이 좀 더러워졌다.

유혹의 기술 고기를 사줘라.



9 아나나

사는 곳 이라크

작업 사랑과 전쟁의 신

매력 섹스의 기술, 고추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 유일한 여신이다. 음약에도 조여가 깊어 젊은 시절 자신의 예쁜 음부를 찬하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 적이 있다. "내 맘이 썩고 있어요. 흠벅 젖은 내 맘을 갈아주세요. 내 음부를 갈아주세요"라는 노래를 부르고 했다. 아, 윤

종신의 '말뚝수'를 넘어서는 창

악적 가새

단절 전쟁의 신이기도 한 그녀는 시체를 짝짝 찢어내는 기술이 뛰어나다. 바람 피우다 걸리면 찢겨 죽겠지? 달달달.

유혹의 기술 옛날 옛적엔 그녀를 기리기 위해 왕을 죽여 바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은 왕의 뱀을 때리는 것으로 그 수위가 점점 중했다. 왕이 뱀을 먹고는 만 그녀가 의식을 받아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당신도 그녀를 위한 의식을 진행하라. 우린 왕이 없으니 대통령 뱀이라도 갈까? 하? 눈물이 강이 되어 호를 기세로 사탕 하겠어?

10 키벨레

사는 곳 이탈리아 직업 산, 풍요, 사자의 신

매력 웅장하고 현명한 인기가 많다. 이우구스투스, 크라우디우스 로마 황제는 그녀를 각 별히 섬겼다.

단절 바람 피우면 죽는다. 그녀는 남프와 버림남 남편을 정산병자로 만들었다. 미친 남편은 자신의 성기 면자르고 죽었다.

유혹의 기술 그녀를 따르는 국성팬들은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여신을 기쁘게 했다. 당신도 이 팬클럽에 가입해 채찍으로 당신의 몸을 갈겨라. 참고로 팬클럽 일단 식은 황소 피를 음용에 부리는 걸로 시작하자 일단 스푸터 집자.



11 이슈타르

사는 곳 이라크 직업 미, 연애, 매춘, 전쟁의 신

매력 지상의 것들이 파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한미디로 섹스의 신이다. 그녀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먹이는 중단된다.

단절 전쟁의 신이기도 한 그녀는 강인함의 상징으로 탁수염을 기른다.

유혹의 기술 그녀의 숭배자는 이슈타르 석상에 소의 고추를 던져서 그녀를 찬양한다. 당신도 고추를 붙곤 세워 그녀의 몸을 찰떡찰떡 때려라.

12 아나트

사는 곳 가난 직업 전쟁과 사랑의 신

매력 싸움을 잘한다. 죽음의 신 모르도 무찌를 정도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모트를 갈로 찢고, 불에 태우고 절구에 넣고 뿔에 뿌렸다. 그녀와 함께라면 언제나 든든

단절 기분이다. 피부를 즐긴다. 갑자기 살인 욕구가 솟구친 그녀는 연화장의 문을 모두 열어 잠고그 안에 있던 시체를 모두 죽였다. 피가 그녀의 허리가 치 치오르자 시체 조각들을 몸에 두르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또 하라니미테스의 왕자 아르히트에게 활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가증당하자 가증인이 왕자를 죽였다. 나중에 미안해서 왕자의 가족에게 왕자를 다시 살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리의 노래를 불렀다. 뭐야 이 여자?

유혹의 기술 악 울리자. 그리고 그녀 손에 죽는다. 그녀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을 소생시킬지도 모른다. 아님 말고.



13 아리

사는 곳 파파뉴아누니 직업 인간 교육

매력 인간들에게 담배를 재배하는 법을 일러주고 마흔 여신이다. 자신의 성가에서 불을 꺼내 요리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입 냄새 나는 남편을 위해 냄새 나는 구멍인 항문을, 색소의 즐거움을 가르치기 위해 고추를 달아줬다. 다짜다짜한 그녀에게 부탁한 하연 당신 고추도 능통한 거대 고추로 업그레이드된다.

단점 가족사가 어둡다. 그녀의 엄마는 뱀.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숨겨 대재앙을 불러왔다. 어느 날 엄마 뱀 고고로는 딸네 집을 방문했고, 손자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손자를 칭칭 감았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그녀의 남편이 정모를 죽여 요리로 만들었다. 울음하게 숨기만 하고 밀어내, 간받치게!

유혹의 기술 불이 없어 생고기만 먹는다. 청일대자. 그녀의 성가에서 불을 꺼낼 때 당신의 성가를 보여주자. 행한 당신의 사탕구이에 탐스러운 고추를 달아줄 거다. 다음은 신제품 생음 테스트를 받아야겠지 후후후...



14 두르가

사는 곳 인도 직업 학살 전쟁의 신

매력 미인계를 쓸 정도로 예쁘다 인간에게 오가 뜰 존재중 신이다. 오가 전투가의 유연함으로 다양한 자세가 가능하다. 남편 사바신이 그녀를 무시해도 끝까지 남편 곁을 떠나지 않는 현모양처이기도 하다. 남편 사바는 미역을 사기 위해 그녀의 보석을 내다팔기까지 했다.

단점 히말리야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

유혹의 기술 호랑이와 먼저 친해져라.

15 프레이아

사는 곳 북유럽 직업 사랑, 다산 죽음의 신 매력 예쁘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의투를 가졌다.

단점 화려한 과거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 다양한 남자를 만났다. 그중엔 그녀의 쌍둥이 오빠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거인과는 지지 않는다. 다. 다행인가?

유혹의 기술 보석에 약하다. 목걸이를 위해 남편 정이 4명과 떡을 친 적이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16 모리안

사는 곳 유럽 직업 전쟁, 풍요의 신

매력 그녀를 열심히 믿으면 불사신이 된다.

단점 인간 앞에서 까마귀로 변신한다.

유혹의 기술 아일랜드로 가라. 그곳엔 '모리안의 첫 꼭지라는 뜻의 지팡이' 있다. 그곳을 뛰고, 걷고, 누워 여신을 흥분시켜라.

17 아리안호르드

사는 곳 유럽 직업 사간의 신

매력 예쁘다.

단점 뺨을 잘 친다. 웨일스 지방의 왕에게 체내라고 뺨 쳤다가 들켜 자신의 성으로 줄행랑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유혹의 기술 과거는 용서하겠다고 말하라.



18 여와

사는 곳 중국 직업 창조주의 신

매력 엄마 같은 포근함

단점 대륙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처음엔 정성충만한 인간을 창조했다가 나중에 대충 진흙을 사방에 뿌리는 방법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정성충만한 인간은 착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대충 만든 인간은 가난하고 심하게 착취도 받았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유혹의 기술 은 왕조의 마지막 주왕이 여와에 반해 아한 신을 지어 대리가 대가게 치인 적이 있다. 서구의 신과 달리 그의 개방적인 정신으로 조상스레 다가라.

19 미메이

사는 곳 오세아니아 직업 별의 신

매력 한 명도 아니고 여러파은 여신이 일곱 명이다. 일곱 명의 아리파은 여신을 '미메이'라 한다. 그녀들은 가정적이고, 착하기까지 하다. 한 사냥꾼이 길을 잘못 들어 악귀에게 쫓기자 그에게 실컷을 내주고 돌보주기까지 했다. 좋겠다. 아님! 단점 언제 하늘로 다시 도망칠지 모른다. 위의 저 사냥꾼은 미메이 중 두 명을 납치해 강간한 후 아녀를 맞았다(우리집 놀이 색하. 그리고 그들에게 소나무 껍질을 구해 오라는 삼부부까지 시켰다. 소나무를 건드린다면 지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녀의 운명에 따라 사냥꾼으로부터 벗어나 원래 세계로 돌아갔다.

유혹의 기술 미메이는 마음이 약하다. 조금만 구걸해보자. 한번은 만나줄지도.



이치나미노미코토

20 이치나미노미코토

사는 곳 일본 직업 대지 저승의 신

매력 일본 여자답게 역동적인 색소를 즐긴다. 당시는 모녀에서만 보던 예교 숙인 '아메메에~ 아메메'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녀가 일본 명을 만들기 위해 남편과 떡을 차가 흥분을 참지 못하여 입을 벌려 소리를 냈다. 여자가 먼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기에, 이에 하늘은 그녀에게 못생긴 아이를 짐지해준다.

단점 모성이 없다. 그 못생긴 아이를 내다 버렸다. 게다가 그녀를 만나려면 그녀가 관리하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

유혹의 기술 일단 죽자 죽어서 만나라.

이 여신보다 내가 더 좋지?



MAXIM PARTY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안영현, 한승구
COOPERATIONS CLUB HEAVEN, GOA Limited



GOA PARTY 2nd Anniversary

눈에 피가 쏠릴 정도로 HOT한 여자들이 몰려드는 곳. 그리고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하게 놀 수 있는 파티가 열리는 곳. 바로 여기다.



파티현장 침투하기

GOA 벌써 2년

지난 7개월간 MAXIM의 PARTY 섹션을 화려하게 장식한 최고의 파티 플래너 GOA Limited 크루들이 경성 2주년을 맞아 화려한 자축파티를 벌였다. 이 날의 파티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클럽 해변에서 열렸다. 상의 클러버들로 인해 뜨겁게 날아올랐다. 그 열기로 사람들은 페루몬 섞인 땀방울을 흘리며 더욱 열광했다. GOA의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해변을 찾은 셀레브리티들을 HAVEN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MAXIM

불과 얼마 전 DJ가 아닌 할리우더의 규준업으로서 MAXM 스튜디오를
 찾았던 그가 이날의 메인 DJ였다. 역시 할리우더다운 등장이었다. 조
 명이 꺼진 깜깜한 클럽에서 자신의 이름에 DJ KOO 다섯 글자를 띄우
 며 등장했다. 사실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폰 대기 화면이 잠시 띄우
 줌 것밖에 허긴 했지만 곧 이어 감동한 LED 눈빛을 뿜어내는 아이언맨
 마스크로 클러버들을 열광시키고 사로잡았다. 꿈처럼 듯 하면서도 계속
 절정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의 디제잉은
 웬만한 체력이 아니고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온 에너지를 쏟게 한다.
 음악으로 승부하는 디제이러는 많다.
 하지만 셀레브리티 디제이러로서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즐길 거리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그는 분명 우리라
 최고의 인기 디제이링에 틀림없다.





임정희

STREET DIVA

LIM JEONG HEE
RETURNS

3년 만에 가수 임정희가 돌아왔다. 인기제대 병장의 여유가 생긴 그녀. 하지만 목소리와 눈빛이 풍기는 강한 매력은 여전했다.

BY 곽경희 WORDS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 MAKE-UP 최선화, 이서연, 강계해(ASSISTANT) ASSISTANT 조장진



지브라 무늬 원피스 **아이아**
영글무츠 러쉬



어우릴 코드 엑스아이엑스
감정해 짝은 비지 에디터 소장
로미 무니 구루 토크스

이번 화보처럼 색시하고 도발적인 모습이 잘 어울린다. 그동안 음반 재킷 사진은 여성스럽게 색한 콘셉트로 촬영했다. 단지 부각시키지 않았을 뿐이었음. 그래서 오늘 촬영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다면 당신의 색시 포인트를 하나만 알려줄래. 다리에 걸그룹 엠버처럼 미르고 매끄럽진 않다. 다들 운동했다고 물어볼 만큼 근육으로 볼륨 뚫친 다리다. 알다시피 근육이 담뿍 들어간 다리일수록 색시한 법.

당신이 가장 색시해 보이는 순간은?

나와 손거울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 바로 그 순간

익외군. 당신은 2005년 데뷔 당시 걸거리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파격적인 도전이었다. 걸거리나 놀이터에서 기타를 치며 공연하는 이는 드물었으니 신성하게 느껴졌을 거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자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붙들어야 했다. 노래 부르러 소리 지르러 목도 상하고 고생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거리의 디바 라는 좋은 별명이 생겼으니 만족한다.

하지만 디바 시리즈의 원조는 역시 '맨발의 디바' 이은미 아니겠나? 당신과 이은미 중 누가 진정한 가요계의 디바라고 생각하나?

별명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나다(웃음). 하지만 진정한 가요계의 디바는 이은미 선배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미 증권(?) 가수인데 아직도 배울 게 많이 남았나? 물론이다. 이은미 선배는 데뷔 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음악이 울리지 않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다. 중학생 또래의 친구도 이은미 선배의 '애니아이오' 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나? 그만큼 음악에 대한 센스가 탁월한 거다.

미국 무대를 노크한 2년의 시간이 좋은 경험이었다는 말은 솔하게 들었다. 하지만 타지 생활은 '고난의 행군' 이기도 했을 텐데?

까놓고 말해서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좋은 경험으로 남는다고 하는 거다(웃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음식이었다. 요리가 잘됐던 집에 먹을 만한 게 없었다. 친구가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미국에 김치를 가지고 오실 때 절게 생어왔겠나.

잡스기던 우리나라 가수들이 미국 땅만 밟으면 한 방에 흑간다. 미국 진출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나?

아픈 경험을 안고 캠프했지만 무모하다고 생각진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직접 부딪혀보니 도전할 만했다. 아시아 뮤지션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남지 못할 신도 아니다.

당신이 했을 때 미국 무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지퍼 장식 민소매 상의와 고리 달린 슈트트를 올림피아코
관악기 작곡인 필리페 데라 소장
연의 장식이 있는 시트트 제이아만법

에이전의 이전 일대 노래를 잘한다. 그리고 상당 자
제가 어찌간한 흑인은 가볍게 뛰어넘는다. 몸도 풀리
지 않고 말이다.

**〈아메리칸 아이돌〉의 출연을 관한 친구도 있다고 들
었다. 못 이긴 척 출연했다 미국 데뷔가 한결 쉬웠
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미국에 진출하면 현지 거주
하는 아시아인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그걸 외연하
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만 의지하면 그저 그런 동양
인 가수로 치부될 수도 있다.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그래서 〈아메리칸 아이돌〉에는 출연할 생각
이 없었다.

당신이 〈슈퍼스타X〉에 출연하면 몇 가지 우려할까?
이문세 선배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
는데 〈슈퍼스타X〉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출연했
으면 대박 컷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 하지만 오디
션 당일의 운이나 컨디션에 당락이 좌우되는 부분
도 적지 않다. TOP 11에만 불려도 실력은 충분하다
고 봐도 될 거다.

그래도 TOP 11에 포함될 자신은 있잖나?
적어도 TOP3 안에는 들 거다(웃음).

**〈슈퍼스타X〉에서 이문세의 노래를 부른다면 당신의
선택은?**

11집 타이틀 곡 '솔로 예찬' '광화문 연가'처럼 감미
로운 발라드도 좋지만 신나는 곡을 부르는 것도 나
쁘지 않았을 거다.

**'솔로예찬'을 부른 당신에게 심사위원은중신, 이승
철, 엄정화 중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했을까?**

이승철 선배.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답게 음
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더라. 내가 퍼포먼스는
다소 약하지만 노래 실력은 풀리지 않는다. 노래만큼
로 승부를 본다면 가창 높음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장구 음반은 언제쯤 내놓을 건가?
벌써 11집이다. 내년은 되어야 나올 거다.

**이따가 2007년처럼 3집 음반만 내고 출퇴 미국으
로 떠나는 것 아닌가?**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활동도 길게 해야지. 장구 음반,
콘서트 모두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건 없지만 그렇다
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웃음). 개인적으로는 언플러
그드 콘서트에 도전하고 싶다. 로린 힐, Lauryn Hill 처
럼 혼자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관
객과 소통하고 싶다.

**이전 음반에서 남자친구와 비람난 여자랑 한바탕하
는 '아직 내 남자아' 라는 노래가 인상적이다. 본인의
경험인가?**

NO! 그런 적은 없다. 만약 가사처럼 남자친구와 바
람난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면 가사말처럼 그
여자에게 토크박 따질 거다. 물론 그림로 남자친
구 역시 못바이다.

**하긴 당신처럼 매력적인 여자라면 남친이 비람 날 일
은없지?**

남자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나를 흠모한 건
사실이다(웃음).

**대부분의 남자친구를 당신이 찾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도 되겠군.**

아무래도.. 그렇지?

당신의 이상형은?

김영민과 김성주의 장정을 합친 남자! 나이가 들었는
지 이제는 푸근한 사람이 좋다. 내가 날카로운 타입
이라 잊춰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제 30대에 접어들어 여자 가수다. 고민이 많을 텐데?
서른이던 못한 버를 어느 정도 이룰 줄 알았(웃음).
가수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 미국에서 활동해 보냈
다. 주변에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건 아니라고 잘못
게 묻기도 했다.

그럼 이정과 제대 동기가 되는 건가?

이정과 친했는데 공교롭게 내가 돌아올 즈음에 제
대 후 세 음반을 준비하더라. 성기성 선배도 마찬가지
지. 주변에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셈 했다. 고
민해도 바뀌는 게 없고, 고민 없는 삶이란 애당초 존
재하지 않더라.

**송년회 시즌이 다가온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팀
이나 하나 꺼내놓어달라.**

연습에 제의를 불리고 놀더라도 연습실에서 놀아라
주변지 연습실에 불어 있다 보면 자연스레 실력은
다. 대신 연습할 때는 한계치에 이를 만큼 무리하는
게 좋다. 그래야 실전 무대에서 동요하더라도 원래
실력의 80% 정도는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습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성대도 일종의 근육이다. 근육을 단련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다.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야 성대도 튼튼해
진다. 그러나 일단 연습부터 해라.**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미국이란?

좋은 추억.



그녀가 고른 자신의 베스트 곡 3

- >> Music is my life "나를 가장 잘 표현한 데뷔곡이다."
- >> 진짜일 리 없어 "내 색깔이 잘 묻어났다."
- >> 태엽 시계 "백지영 나르사가 술을 마시고 울겨 부른다는 바로 그 곡."



크림색 스웨터 랑고
핑크 가이아
검정색 짧은 반바지 에디터 소장
크림색 구두 슈조원

사진으로 된 앨범인 **원미스 맥스아이엑스**
평균 제이머앨범
기타리스트, 랑사 스타킹, 모두 예디의 소장
함정색 구두가이아





화색 재킷 시스템

스튜디오 장식이 화려한 시스루 상의 제이미엔벨

감성적 짧은 반바지 에디터 소장

영글부츠 다슈



POWER MONEY POPULATION DRUGS SEX



MAXIM(이) G20 정상들의 뒷조사를 실시한다.
G20 정상 중 가장 장성이 아닌 인물은 누구일까?

BY 김연애

정상 이 정상

G20은 선진국 중심의 G7과 신흥 12개국, 그리고 티로 이루어진 주요 20개국 모임이다. 이 G20 각국의 정상들이 11월 11~12일 양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는 G20 회담에 참석한다. 도대체 어떤 장난 인물들이 오기에 정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다.

A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51세)

미국 옆에 붙은 경제성 없는 나라 캐나다의 수장답게 별 특징이 없다. 다만 2008년 말 이데올로기에 총리직에서 쫓겨난 현직 총리 미카엘 장의 도움으로 자리를 지킨 '소환' 사건이 있을 뿐이다. 표정이 거의 없어 별명이 '로봇'이다. 비틀스의 AC/DC를 즐겨 듣는 자. 차가 무너진 위함의 소유자 스티븐 하퍼를 고운한 최초의 캐나다 총리라고 위트 로인 하퍼가 오트바이를 즐겨 타는 게 그다 마더인 것 일뿐만 해도 총리지 않나?

그가 무서워하는 것: 이데올
그에게 힘을 주는 것: 육주족 위트

ATK/2000 DEF/2000

A



이탈리아



내가 좀 한 인물 하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73세)

AC인탈리아 최대 미디어그룹 메디아세트를 소유하고 있다. 재산은 약 950 억원씩 된 나체 피터. 동종을 즐기며 많은 여성을 후리고 다녔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적에게 탄핵 쫓겨온다. 방송에서 한 의견을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녀를 '기회공부부 장난'에 고용했다. 또 자신을 이베라 부르는 속옷 모델이 생길 때마다 참석해 비싼 선물을 준 질로 이혼당했다. 아담의 여성 정치인에게 "재지"라고 욕하는 등 감정을 수 없는 막장 언행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금기야 한 사유자가 단정 조각상에 맞아 피를 칠할 줄리기도 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자신의 사진을 선전 포스터로 만들고도 자서전했는데 포스터 문구는 이렇다. "이제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자"

그가 무서워하는 것: 시위대, 그의 사생활을

동원한 책(총리님 즐기세요)

그에게 힘을 주는 것: 돈, 미녀, 그가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우경하는 방송 "이제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자 포스터

A

EU



헬름만 판 롬파워 상임의장(63세)

벨기에 총리직을 지낸 지 1년 만에 유럽을 대표하는 상임의장이 되었다. 벨기에에서도 크게 이름을 떨친 적은 없고 세계 정치판에서 는 여타들 돋보이지 않았다. 내부 갈등이 있었음에도 벨기에를 강력하게 단합시킨 것으로 유럽연합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가 무서워하는 것: 무릎, 노환

그에게 힘을 주는 것: 돈

ATK/4000 DEF/3000

ATK/2000 DEF/2000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49세)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연봉이 약 4억 5천만 원이고, 재산은 약 88억 원이다. 마누라 미셸 오바마는 예쁘진 않지만 자질이 버락 오바마보다 높다.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한 많은 스타의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힐러리 카스 나스 영지지 제1-3, 월 10억은 그를 위해 노래까지 갔다 바꿨다. 오바마 자신도 힐러리 노래를 즐겨듣는다. 힐러리 스미스가 기독한 그는 고교 시절 미원을 한 적이 있고, 아직도 단배를 즐긴다. 못해 마누라와 미국 국민들의 진심을 듣고 있다.

그가 무서워하는 것: 보수 세력, 단배

그에게 힘을 주는 것: 말린, 힐러리 약 단배, 연애편

미국 그 자체

ATK/5000 DEF/4000

V



A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69세)

자, 드디어 왔다.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기업이 출신 정치인으로 2008년 경제 살리기 구호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재산은 369억 원이었다. 자녀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호기심 천국'이었다. 그가 유행사건 말로 "미치지질이 있는 곳에 갈 때 들 예쁜 여자를 골라라", 기왕 이렇게 된 거, "양배추를 김치를 만들어 요리라" 등이 있다.

다 쓰면 글이 넘치니 여기까지
그가 무서워하는 것 없었지. 그러나 아리겠지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강, 아리수

ATK/5000 DEF/5000



A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65세)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구두어이 금속 노동자로 근무했다. 그가 4세 되던 해 사고로 세개손가락을 잃었다. 건강보험을 얻기 위해 일경 노조에 가입하면 속 장터에 가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비서실장인 넬마 유레트를 후보로 지명해 딱딱 말아주고 있다. 방송에서 두 번이나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한번은 "정부가 청송 받고 있는데 그 공은 내가 아니라 조흔 노동자를 뽑아준 국민에게 돌아야 한다"며 울었고, 한번은 2002년 하계 올림픽을 브라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울었다.

아, 이상해. 잘 게 알아.
그가 무서워하는 것 선반, 눈물샘
그에게 힘을 주는 것 브라질 국민 생배

ATK/3000 DEF/3000



A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57세)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으로 세계 최초 부처 대통령이다. 부부의 재산은 둘이 합쳐 약 100억 원. 유유부단한 남편보다 독 부리고 나감 시기가 넘쳐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전속 코디네이터를 동행해 하루 네 번씩 웃음 감자탕을 만들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그녀도 무서운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남편의 주먹 난타이다.

"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몰라"고 말하며 화가 난 대통령은 "나니 가라"고 반박했고 이에 남편의 손이 올라간 것 예부터 못나겟들이 원한 생 배이다. 동성 결혼도 합법화했으니 이렇게 여자를 만나보는 게 어찌요, 대통령님?
그녀가 무서워하는 것 남편의 주먹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 웃, 아르헨티나의 동성애 커플

ATK/4000 DEF/4000



A



인도



만모한 싱 총리(78세)

가르동 불꽃 아래서 말 그대로 주강이 되며 총리직까지 오른 인텔 소나 간다지 총리직을 포기한 후 대신 싱 총리를 지명했다. 그는 198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행동으로 경제학위를 수여하며 '어둠 스미스싱'을 받은 바 있다. 경제학자답게 매년 경제 성장률을 쪽쪽 흘리며 인도 역대 최고인 9.3%의 총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국민 평균 GDP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다. 부럽다.

그가 무서워하는 것 총리 수임을 받고 있는 소나 간다지의 아들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경제

ATK/3000 DEF/3000



CRAZY WORLD

이상한 나라, 이상한 인간들

이슬람교 총리 시커르바르도티르는 2002년 여류 작가 요니나 레오스도티르와 결혼했다. 아 이슬람교 총리는 여자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도자 2위에 선정된 브루니의 이슬람 불기아 국왕의 재산은 약 23조 원. 그는 생일 축하 파티에 아이를 죽은 물리 공연을 즐겼다.

폴리엔 하임은 국가를 부패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적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세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부 박지로 메트루노 100~120의 범위에서 4번의 4박지와 4번의 2박지로 연주해야 하며 국가는 부정부패로 명칭적으로 불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징역 혹은 6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케냐의 옹기마 총리는 국민 GDP의 240배인 약 4억 달러의 돈을 연봉으로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욕을 잘 하는 대통령은? 바하수엘리 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다. 그는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자못이나 가라", "부시 대통령은 술주정뱅이, 약마, 열한 번 바보", "레이스 미국 대통령은 아시메"라고 욕을 퍼부었다. 개한인 이 투고에서 부경지자 아켄을 향해 "동 길은 슬리"라고 욕을 퍼부은 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원은 "정적이다."

STYLE



NEW WALKER BOOTS

BY 곁의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장민 COOPERATIONS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02-3443-1703)  (www.kidsvillage.kr)

2년 내내 한 물처럼 지낸 군화라는 족쇄에서 벗어났다면, 워커 부츠의 유행이 달갑지 않을 거다. 끈 달린 검정색 워커만 보면 군바리라고 무시당한 설움과 수많은 악몽이 떠오를 테니 말이다. 하지만 박병이 데뷔 때부터 신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톱 슈즈에 야성적인 군화 디자인을 가미한다면 당신 마음도 동하지 않고 못 배길 거다. 스웨이드와 에나멜 가죽, 소가죽을 적절히 배합해 스타일을 살린 이 제품은 뽕뽕, 방뽕, 체스에 탁월하다. 두껍고 질긴 소가죽은 거친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포용력도 자녔으니 울가를 미워도 다시 한번 새로운 워커 스타일에 도전해보자. 200,000원대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

다양한 종류의 소 미니어처는 영국 브랜드 칼레타 제품이다. 장인의 손길로 완성해 근육의 움직임과 눈빛까지 생생하다. 유해 물질이 전혀 없으니 소장품으로 모셔 두었다가 마음이 떠날 때쯤 조카 생일날 인심 쓰듯 던져주자. 소 외에도 당신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동물과 곤충, 공룡, 신화 인물은 다 있다.

1개당 5,000~11,000원대 일렉타

• 사과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설마!



남색 머플러 가격 미정 불행크로스페이스
자주색 두 바튼 재킷 368,000원 타이포맨
라플레 셔츠 100,000원 불행크로스페이스
연은 모래색 민바지 96,000원 라이플 by 웨어하우스
보라색 운동화 289,000원 루이 불렉스태이션

반색 울 재킷 가격 미정 볼렌크스페이스
아기일 무늬 니트 200,000원대 타이힐피거
체크 셔츠 100,000원대 본 지를로어
얇은 체크 무늬 바지 275,000원 시스텔름으
항립 구두 300,000원대 소다 프리미엄 by 벨마리오



* 토마토 18세기 유럽에서 최음제로 사용했다. 응큼한 녀석



* 포도 역사 속 정력가들은 침대 옆에 항상 포도주를 두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나타세 슈트 재킷 328,000원 반츠 168,000원 지이크
남색 셔츠 178,000원 자이코
검정색 가죽끈 손목시계 339,000원 보스 워치 by 갤러리아골프

EVENT!



양파왕 받기

* 양파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에 사는

한 노인은 매일 양파 5개를 먹고 결혼식을 100번이나 올렸다.

남양주 더샵 브레스티드 코트 가격 미정 본 지음료어
대형 세차 가격 미정 세안친
브레스티드가 착위 받은 코팅제 반스에 티셔츠 100,000원대 아래서
강하지 198,000원 계스
올곡세 권이 코팅친 운동화 149,000원 리복

남색 코트 538,000원 커스텀멜로우
최세 바지 가격 미정. 가죽 가방 468,000원 모두 불행크5스페이스
청록색 운동화 80,000원대 수프러 풋웨어

*인삼 '인삼정과 없는 기생합방'은 꼭 있어야
옛날 기생집에는 항상 인삼이

할 것이 없다는 뜻의 우리나라 속담이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유가 뭐겠어?



최근 프레임 안경 가격 미정 알로
르지가 담긴 네워터 39,000원 세인진
크림색 니트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가죽끈 손목 시계 508,000원 폴스미스 워치 by 갤러리아클럭
카시메르까지 59,000원 코데조르비안 베이직폴라리스

*바나나 아프리카 원주민의 정력제

정목세 바니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달착 기능한 후드기 달링 감장세 트윈치코프 580,000원 시스템음르
낙타세 니트 158,000원 타이이포맨
환색 티셔츠 20,000원대 아디다스 넥오
줄무늬 니트 장갑 148,000원 아메베
화제 캔버지 96,000원 라이플 by 웨어하우스
조목세 운동화 100,000원대 라코스테 by 풀넷플
하늘세 가령 가격 미정 비어모노

* 대따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잘 살만 많은 팬이 있는 게 아니었다.



*낙지 뽀빠이 : 시급치 = 박찬호 : 낙지

강세 한팅집 107,000원 장굴
황목재 더플 브레스티드 코트 480,000원 시스템음으
사람 얼굴 형상의 브로치 가격 미정 뽀빠이
꽃색 니트 216,000원 안테레드
짙은 회색 바지 가격미정 시스템음으

EVENT!



혜안 음료
마스크 받기

WATER FOR SKIN

수분 공급 프로젝트

피부로 물 들이주기 BY 고객회 ASSISTANT 초청

1 헤라 음모

- 디톡스 웨이빙 존 마스크

코일 부분부터 땀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덮는 시원하고 촉촉한 젤 타입으로, 피스처럼 피부에 밀착된다. 제품을 땀 후에는 미끈거리거나 끈적이지 않아서 좋다. 확실히 촉촉해지는 것도, 얼굴에만 하고 버리기 아까워 손목에 붙이고 있는 동안에도 접착력을 잃지 않았다. 다소 비싼 게 흠.

8g x 7개 40,000원

빅돈제26세, 학생



2 크리나크

- 드라미터라피 디퍼먼트 모이스춰라이징 젤

끈적이지 않고 흡수도 빠르다. 젤 타입이라 사용감이 가벼워 여름철에 사용하면 더 좋겠다. 유분기가 많은 사람에게 권장 안한다. 바나나 우유 빛깔의 제품이 먹음직스럽다.

15ml 47,000원

이진현30세, 회사원



3 오리진스

- MAD 나이트 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질감과 풍선껌 냄새가 먹음직스럽다. 제품을 얼굴에 바른 뒤 냄새는 사라지니 무척을 선호하는 사람도 좋아할 듯. 저녁에만 바르는 제품으로,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고 난 후 촉촉해진 피부에 감동했다.

50ml 65,000원

고경희37세, 패션 에디터



4 카텔

- 올트라 웨이셜 크림

피부가 심한 건조인 데다 민감해서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까다롭다. 6초에 1개씩 팔린다고 해서 믿고 사했다. 일 단 낮과 밤 상관없이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발라도 된다. 4주년 기념 정보 사이즈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온 용량도 커서 무척 마음에 든다. 화장 특 특유의 냄새가 없고 촉감이 슈크림처럼 부드럽다. 유분기는 조금 있는 편

25ml 69,000원

이영희29세, 피터 에디터



5 도브 - 딥 모이스처

평소 머리에 기름기가 많아 쳐라져 되면 딱은 못 쳐도 머리카락 딱지는 건 예스일이다. 그래서 수분 공급의 필요는 생을 전혀 못 느꼈다. 혹여 이삼푸를 쓰면 개기름이 더 흐르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촉촉함을 많이 느끼진 못했지만 머리가 단정하게 가라앉고 부드럽워졌다. 단정하게 머리가 가라앉는 것이 싫어 평정은 낮지만 여전히 좋은 좋아할 듯.

780g 71,000원

최민정23세, 학생



6 랩 시리즈

- 인스턴트 모이스춰 아이젤

후대가 용이한 조그마한 용기 끝에 금속 불이 달려 있다. 불을 켜면 저장량의 용액이 나온다. 아침에 눈이 부었을 때, 눈 주위가 건조하거나 잠이 올 때에 사용했는데, 부기가 빠지는 것을 느끼진 못했지만 건조해서 생기는 잔주름은 많이 없어졌다. 차가운 메탈 불이 피부를 평평하게 덥혀주는 느낌이 좋아 자주 사용하게 된다.

75ml 42,000원

권승호33세, 직장인



7 오리진스

- 드림즈 업 오버나이트 마스크

평소 팩은 사용하지 않는데서 자주 하지 않지만, 이 제품을 밤에 비르고 자간 한 번 되니 괜찮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피부 미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습도 잘 되고 피부도 부드럽워 주는 게 느껴진다.

100ml 40,000원

한성욱22세, 군인



8 니베아

- SOS 케어 리페어 로션

여름에도 보디로션을 발라야만 부기가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피부다. 투박한 용기와 몸에 비를 때 풍기는 마스크 향이 오랫동안 사용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신선한 맛은 없다. 하지만 밀도감이 높아 하루 종일 하얀 각질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수분을 제공하고 끈적이지도 않는다.

400ml 14,000원

홍민22세, 학생



9 비오렘 음모 - 아쿠아퍼워

상큼한 민트색 제품을 담은 용기의 모양새가 남근과 흡사하다(물). 아침만 되면 얼굴이 퉁퉁해질 듯 아팠는데 제품을 사용한 뒤 피부가 안정을 찾았다. 잠심 시간까지 유지되는 수분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유분기가 좀 덜했다.

75ml 49,000원

김상현33세, 피터 에디터



10 니베아 - SOS 립 밤

유연히 건조하고 민감한 내 입술은 뾰루진 립 밤엔 반응도 하지 않는다. 적당한 약 냄새와 짙은 크림 타입의 이 제품은 내 입술을 진정시켰지만 동물을 갖 발라 먹은 듯한 번들거림을 남기고 떠났다.

10ml 4,000원

강서은29세, 취업 준비생



11 바세린

- 하이드라미팅 폼 크림

구두를 매일 신고다니 각질과 균열살이 많아졌다. 발뒤꿈치와 수분이 부족한 무릎과 팔꿈치도 사용하니 놀라보게 촉촉해졌다. 발이 7분서 비염을 지냈다. 하지만 매일 하는 건 귀찮아

50ml 6,200원

김진현28세, 직장인



2010 F/W MEN'S GROOMING SOLUTION

남자의 피부는 여성의 피부와 여러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의 피부상태에 따른 특별한 전문 케어 제품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하고 심각이 허물기 쉬운 계절에는 보습력이 좋은 세안제와 모공관리 그리고 보습력이 우수한 로션 제품을 사용하는 걸 잊지 말자 하지만 아무 로션이나 바르는건 아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국내외 그루밍 기들이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나보자



프랑스 명품 에스텍 남성 스킨케어 이세오 옴므

이이 프랑스,미국,독일을 비롯한 세계 2천여개의 고급 스킨 케어 상품과 컬러 팔레트 라피에와 뽕뽕뽕 백화점에서 판매하며 각광을 받고 있는 프랑스 에스텍의 남성 화장품 isseo HOMME. 기술과 원료를 모두 자체 제작한 100% 순 식물성 무알콜로 알함으로 여성보다 두꺼워 피지분비가 많고 주름지기 쉬운 남성피부를 정확히 이해하여 각각의 제품군에 함유된 특이한 원료의 효율적인 적용으로 최상의 품질인 남성 전용 스킨케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제품 문의처_www.mano.co.kr



2010 F/W MEN'S SKINCARE TIP

가을,겨울 남성 피부관리 이렇게 하자!

CLEANSING 각질과 노폐물은 제품의 흡수를 방해!

MOISTURIZING 충분한 수분과 보습으로 피부를 보호하라!

ANTI-AGING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주름을 예방하라!

건조하고 온도가 낮은 계절은 피부의 깊은 안의 수분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심세한 관리를 해줘야 주름 및 피부노화를 예방할수 있으며 동안 피부결을 유지 할 수 있다 각질이 생기면 자외선피해결의 원인이 된다 일주일동안 한번은 모공관리 팩을 이용해 각질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자. 남자의적인 과용, 과로, 스트레스는 주름을 촉진하고 피부탄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좋은 보습로션을 발라주고 재흡력이 좋은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자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 블랙헤드 제거하고 넓은 모공을 조여준다!

프랑스 아자르 그린 클레이 페이스트
FRANCE AZARÉ GREEN CLAY PASTE
피지블랙헤드,모공속 노폐물을 완벽히 제거하는 100% 프랑스 천연 미네랄.



넓은 모공을 관리하고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고농축 비타민C 토닝팩!

이세오옴므 토닝겔 비타민C
Isseo Tonique Toning Gel Vitamin C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 및 수분을 공급해 항노화 효과 있고 환한 피부로 가꾸주는 스카+아연+에센스 3 in 1



주름지고 탄력없는 피부에 강력한 천연성분이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페이스 리제너레이팅 안티에이징 크림
Face Regenerating Anti-aging Cream
피부 주름을 감소시켜 피부의 탄력 증가시키며 처지고 탄력없는 주름이 많은 피부에 큰요과를 보입니다



문재성 피부의 유수분을 잡아주고 트러블을 잡는 강풍의 세안제!

이세오옴므 PH 밸런스 크림
Isseo Homme PH Balance Creaming Balm
세안 후 건조없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부에 보습력을 형성하여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준다



강력한 보습효과로 손상된 피부에 침투하여 피부를 오랜시간 촉촉하게 합니다!

올드모이스춰라이징 6 in 1 페이스 클루미드
Ultra Moisturizing 6 in 1 Face Fluid
건조함 피부에 보습 영양을 공급하여 으깬건 피부속 촉촉함과 피부의 탄력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주름지고 연약하고 어두운 눈가를 생기 있고 밝게 돌려 주는 유가독 아이크림!

프랑스 3 in 1 아이 클루미드
France 3 in 1 Eye Fluid
다크서클을 개선 주름진 눈가를 평평하게 해주며 피로로 인해 어두워진 눈가 피부를 환하게 가꾸어 줍니다

프랑스 프리미엄 오가닉 남성 스킨케어 66° 30

화학성분이 자해하는 당신의 피부, 자연으로 생겼기에 순수할 원합니다. 남성 전문 스킨케어로 유일한 에코스타일과 코스메이오 유기농인증 획득한 고품질의 프랑스 프리미엄 유기농 남성 전문 스킨케어. 66도 30은 2009 뷰티 셀러지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독립적인 농장에서 재배된 특별한 최상급의 원료 특허성분 아반실드! 프랑스 독립연구소의 검증이 완료된 강력한 피부개선효과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문의처_www.mano.co.kr



SPEEEEDY BEAUTY!

성질 급한 당신을 위해 10분 만에 환골탈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MAXIMI 마루타를 통해 효과를 입증했으니 믿을 만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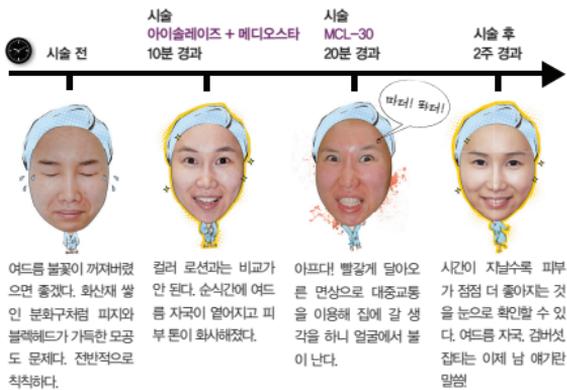
BY 조영민



피부와 진문의 강행원장님은?

- 미연이이 플라너 입구정형 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美&EYE Clinic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9-8번지 3층
www.meiclinic.co.kr 02-512-678



여드름 불꽃이 꺼져버렸 으면 좋겠다. 화산재 쌓 인 분화구처럼 피지와 블랙헤드가 가득한 모공 도 문제다. 전반적으로 착착하다.

컬러 로션과는 비교가 안 된다. 순식간에 여드름 자국이 없어지고 피부 분비도 회복해졌다.

아프다! 빨갛게 달아오 른 면상으로 대중교통 을 이용해 집에 갈 생 각을 하니 얼굴에서 불 기다. 여드름 자국, 갈라섯 집트는 이제 남 얘기란 말뿐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여드름 자국, 갈라섯 집트는 이제 남 얘기란 말뿐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원하는 시술을 골라 하면 된다. 당신을 위해 마두타는 한 번에 3가지 시술을 받았는데 20분 밖에 안 걸린다. 피부가 황무지처럼 남보다 10분만 더 두지하자 보통 3~5회 시술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개인차에 따라 편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에 사용된 기계

아이슬레이즈

who 넓은 모공과 여드름, 칙칙한 피부 톤을 가진 사람
how 진공청소기처럼 피부를 당겨 올려 깊숙한 곳까지 먼지, 여드름을 침투시킨다.
effect 여드름 치료와 함께 빨라진 색소를 최소화시켜 피부가 맑아진다.

메디오스타

who 다크서클, 처진 피부, 잡티, 흉 반 등으로 낯빛이 썩거나 어두운 사람
how 두 개의 파장이 동시에 피부 진피의 중층-하중부에 깊숙이 침투 해 콜라겐을 생성시켜 피부 톤을 리모달링한다.
effect 칙칙하고 붉은 피부를 깨끗하게 아끼 피부 갈라짐을 만들어준다.

MCL-30

who 주근깨와 흉터,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오렌지색 잡티 피부의 소유자. 눈과 입 주위에 주름이 많은 사람
how 피부 각질층만 정교하게 깎아내 세운 세포토믹을 만들어준다. 시술 후 5~7일에 걸쳐 썩어 생긴 미세한 흉터가 사사히 없어져-간다.
effect 여드름 흉터가 있던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깨끗한 세포가 재생해 피부가 점차 깨끗하고 맑아진다.

price 모든 시술은 각 20만 원씩 단, 블랙헤드만 제거 시 3만 원

BLOODY BEAUTY

피 주사로 환생하기

BY 고경희

은근 피부와 시술이 넘쳐나는 요즘 그 어떤 장비보다 각광받는 것은 당신의 피!

도와줘요!

여름은 이미 지나갔다. 그런데 왜 아직도 당신의 얼굴엔 여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가! 강렬한 태양은 피부의 탄력을 빼앗아가고 기미와 주근깨 등 잡티를 만들어 피부 톤을 어둡게 한다. 게다가 기미이 상승하면 피지 분비가 왕성해져 여드름도 심해진다.



멜 to the 땅..

처방

해결책이 없진 않다. 혹시 '연애인 주사' '피주사'라고 들어봤나? 정식 명칭은 PRP 자가혈 피부재생술이다. 시술은 비교적 간단해 20분 내에 끝난다. 시술에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몸뚱이뿐이다. 당신의 몸을 취하고 나니는 피를 뽑아서 다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집에서 할 수 있 을 리 없잖아! 병원에서 특수 기구를 이용해 혈소판을 가장 풍부하게 함유한 혈장만 골라 다시 넣는 방식이다. 이 혈소판이 성장인자를 분비해 줄기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합성하도록 자극해 피부 재생을 돕는다. 탄력을 잃은 피부나 주름, 기미, 주근깨, 여드름 흉터, 안면홍조, 다크서클, 탈색, 눈 아래 볼록 살 제거, 이토파나 지루피부염(해학) 등에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원하는 부위에 투여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시술 후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며 6개월~1년 정도 지속된다. 4주 간격으로 3회 받으면 효과가 커진다. 1회 시술 가격은 30만~50만 원 수준으로 피부 상태와 시술 부위의 넓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젠틀, 알콜이 섞이면 무조건 손해해

피부와 진문의 홍승혁 원장은?

- G클리닉 원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 경국대학교 병원 협력병원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원 협력병원장
- 대한 노인의학회 노인병 전문의

G클리닉 강남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번지 에메랄드타워 6층
www.gclinic.kr 02-546-2575



MAXIM BUYER'S EDGE



시리즈, 2010년 FW 누오보 다운점퍼 출시

시리즈는 슬림핏 다운점퍼는 누오보의 기본 디자인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소재와 디자인에서 이진전보다 훨씬 진화된 독특한 다운점퍼를 출시했다. 한때에 대비해 목과 소매, 허리에 니트 사포리를 달아 보온성을 강화면서 슬림한 디자인을 강화했다.
가격 538,000원

알바, 모던클래식 AF8Q1X 모델 출시

고급 패션 워치 브랜드 알바에서 모던 클래식 라인의 신모델 AF8Q1X를 선보인다. 전체적으로 심플한 케이스 디자인에 모던한 스타일의 인텍스가 적용되어 세련된 맛을 풍기는 AF8Q1X는 블랙 문자에서 화이트 컬러의 시 분침 표시로 포인트를 주어 감각적인 모더니즘을 표현했다.

가격 27만 원, 문의 02-511-3182
www.albawatch.co.kr



슈퍼 하이브리드카, HONDA INSIGHT 국내 출시

도요타 프리우스를 능가하는 하이브리드카, 혼다 인사이트 2세대 모델이 2010년 10월 19일 국내에 상륙한다. MAXIM 11월호 발매일과 동시에 출시되는 탓에 인사이트의 정보도 낱알이 공개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정도로 인사이트는 매력적이다. 연비는 무려 리터당 30km. 가격은 3천만원을 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 이미 다음번 MAXIM 시승기 0순위로 인사이트를 찍어두고 있다. 문의 02-0250-0800



시스템 옴의 밀리터리 백팩

'슬링시스템일미시'를 표방하는 시스템 옴에서 캐주얼하면서도 멋지기는 느낌의 밀리터리 백팩을 선보였다.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가벼운 시스템 옴의 백팩 시리즈는 다양한 활용성 및 세련된 디자인, 독특한 디자인으로 패션 파퓰러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크로스백으로든 활용이 가능하다. 문의 02-346-2522 www.system.co.kr
www.bestbrandbag.com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30년산을 느끼자

맥캘란 30년산은 상쾌하고 풍부한 맛과 향만큼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위스키이다. 스페인산 헤리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맥캘란 싱글몰트 위스키 30년산은 최상의 품질을 위해 소량 생산 방식을 고집한다. 맥캘란은 주요 액화점, 고급 호텔 등 어디서 만날 수 있다. 가격 120만원(700ml)
문의 02-3468-4600



LG전자, 세계 최초 풀 HD급 3D 노트북 판매

LG전자가 28일부터 세계 최초로 풀 HD급 3D 노트북 엑스노트 A910을 판매한다. A910(리프트TR3D)은 세계 최초로 16.9인치 풀 HD급 3D LED LCD를 적용했고 인텔 코어 i7 7400M(Quad Core) 프로세서 CPU, 엔비디아 지포스 GT 425M 1GB 그래픽을 탑재해 고품질의 3D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02-2193-0644

매일우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로 건강한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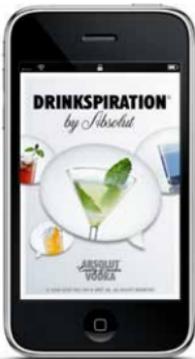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는 천연 바나나 과즙으로 맛을 내고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바나나 과즙 우유다. 특히 지방 함량을 낮추고 단 맛을 최소화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깔끔한 영양 간식으로 인정받았다.
문의 02-227-2174



FOCE, 드레스코드 F481 커플 시계 출시

독창적인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로 대표되는 시계 브랜드 포체에서 커플 시계 세트인 드레스 코드 F481을 선보였다. 이 커플 시계 세트는 모던하고 시크한 디자인에 60초 세컨형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세이더어 글라스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문의 02-754-3545





앱솔루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드링크스피레이션 출시

프리미엄 보드카 브랜드 앱솔루트 보드카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드링크스피레이션(Drinkspiration)을 세상에 내놓았다. 술의 종류, 선호도에 따른 라우팅, 날씨와 시간제별 추천 칵테일, 세계 칵테일 트렌드, 레시피 등을 생생한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은 물론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앱스토어인 www.absolutdrink.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02-515-1224



페이스북, 사용자 5억 명 돌파 기념으로 페이스북 스토리 오픈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 CEO 마크 지카버그는 호텔비, U2, 버락 오바마, 유세프, 유튜브, 배우 이민호 등 유명한 브랜드, 기종 등 30개 파트너를 선정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페이스북 한글 어플리케이션과 한국 공식 홈페이지도 오픈했다.

www.facebook.com/FacebookKorea

프리미어 리저 이철용, 기아차 K7 탄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철용 선수(22) 불턴 웬더러스 FC가 기아차 K7을 탄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입구정 국제 영인 분야에서 이철용 선수가 국내 경기 및 활동시 이용할 K7을 전달했다. 앞으로 이철용 선수는 국제에 머무는 동안 훈련과 경기 등 모든 스케줄을 K7과 함께하게 된다. 문의 080-200-2000(기아 고객센터)



라뷰티코아,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The Queen

토탈 뷰티 샵인 라뷰티코아가 10월 20일 F/W 시즌을 맞아 메이크오버 프로젝트 'The Queen(더 퀸)'을 진행했다. 라뷰티코아는 행사장을 방문한 여성들에게 헤어 스타일링, 두피 상단, 메이크업 리프터치, 네일 컬러링, 피부 나이 측정 등의 뷰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날 참가자들은 더큰 프로젝트를 통해 완벽한 스타일 변신을 성공할 수 있었다. 문의 02-516-0862 www.rebeauty.com



Jeep, Luxury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Jeep 브랜드의 오프로드 활동과 세련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결합된 '올 뉴 그랜드 체로키'가 출시됐다. 올 뉴 그랜드 체로키는 Jeep 고유의 DNA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역대 최고의 모델 30리터 펜타스타 V6 WT 엔진이 최초로 탑재돼 고성능의 파워를 자랑하면서도 기존 휘발유 V6 모델 대비 연비가 10% 정도 개선됐다. 부드러운 드라이브 방식이 가능한 오버랜드 모델이 6800만 원, 고급형 모델이 5500만 원이다. 문의 02-3445-7469

프랑스에서 온 유기능 남성 스킨케어 66° 30

피부 보호는 이제 상식이다. 프랑스 파리 미용 유기능 남성 스킨케어 66° 30가 자연의 강력한 치유력을 당신에게 보여준다. 66° 30은 프랑스의 과학 임상 테스트를 받은 어반실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 UVB와 피부 트러블을 막아주고 피부 재생력이 높아진다. 가격 74,000원 www.menq.co.kr



어울림모터스 에세이집, <스피라, 세계를 향한 영 혼의 승부>

스피라는 국민 영안이 자랑된 경정차이다. 책에는 자동차에 빠져 차를 자동차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의 과정과 수제 스포츠카인 스피라의 탄생 과정까지 자동차를 향한 한 인간의 열정과 집념이 새겨져있다. 자동차 마니아가 아닐지라도,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자. 가격 13,500원 www.spiracar.com



도루코, 페이스엑스엘 & 페이스슈빙젤 제안

도루코가 세계 최초 6중층을 장착한 면도기 페이스엑스엘과 함께 단박 고품질을 자랑하는 페이스 슈빙젤을 제안한다. 페이스엑스엘은 면도날의 두께를 기존 제품보다 20% 이상 얇게 가공하는 내로 블레이드(Narrow Blade) 기술을 개발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자극 없이 부드러운 밀착 면도가 가능한 제품이다. 페이스 슈빙젤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물성 이버코아 에센스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기어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지켜준다. www.dorocoo.com

소니코리아, 헤드폰-이어폰

브랜드 피큐(PIUQ) 선보여

소니코리아가 새 유행가기 브랜드 피큐(PIUQ)를 출시했다. 지난 9월 10일 롯데 클럽 배재에서 열린 이 출시 행사에는 리빙 노브레인 휘황 등이 참석해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피큐는 당사차별 스타일기를 중시하는 젊은층을 공략한 제품으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소니만의 사운드 기술을 결합해 탄생했다.

문의 02-6370-8042 www.sony.co.kr/piuq



블랭크스 스페이스,

로버트 노키 전시회 개최

각각적인 캐주얼 브랜드 블랭크스 스페이스가 후원하는 아티스트 로버트 노키 그의 작품 전시회를 오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청담동 갤러리메이스트에서 개최한다. 로버트 노키는 뉴욕과 목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론 초상화 시리즈로 유명하다.

문의 02-616-6611



BLANK
5
SPACE



본 지플로어, 모바일 웹 이벤트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 '본 지플로어'에서 모바일 웹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참여하면 총액 100명에겐 본 지플로어 일라스트 티셔츠를 증정한다.

문의 02-270-6528, mbon-gloob.co.kr



삼페인 Sparkling PARTY 한국 상륙

해외 삼페인 스파클링 파티가 국내에 등장했다. 지난 8월 청담동 클럽 앤에서 영국 의류 브랜드 팔리언 런칭 파티에서 첫 선을 보인 스파클링 파티는 46%의 저 알코올로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한 클라나 패션 피플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클럽과 마트, 편의점에서 곧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3-2365

컨버스, 스타 라이트 구스 다운 점퍼 출시

컨버스가 무거운 가법과 보온성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스타 라이트 구스 다운 점퍼를 출시했다. 슬림한 디자인에 가위 털을 사용해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PW 시트 트랜드 컬러인 블랙과 네이비 옐로우 3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로고와 지퍼 부분의 질감을 다르게 하여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문의 02-238-7576



강골의 아이코닉 백팩 & 베이직 백팩

영국 패션 브랜드 강골에서 지난 시즌 출시(8차)까지 품절된 투어백팩과 데일리백팩에 이어 신제품을 출시한다. 아이코닉 백팩은 아웃도어 스타일로 가을철 캠핑, 산행에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또한 베이직 백팩은 14인치 노트북을 수납 가능하고 백팩 뒷면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비즈니스맨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517-5532



BMW 코리아, G20 정상회의 의전 차량 제공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세계 영부인들에게 BMW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중 34대를 의전 차량으로 제공한다. 이번엔 영부인들의 의전 차량으로 제공되는 750i는 87톤 4.4리터 엔진에 트윈터보를 얹어 407마력의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BMW만의 효율적인 엔진 기술로 기존보다 최고출력 4마력, 연비는 12%가량 높아졌다.

문의 02-6310-8075



이탈리아 와인 카ટે일 벨리니 국내 상륙



레스토랑메이인 11월부터 벨리니를 국내에서 독점 공급한다. 벨리니는 이탈리아산 프로 세코 스파클링 와인에 100% 천연 과일을 갈아 만든 핑킹 와인 카ટે일로 생미나 기타 화학약품을 넣지 않아 칼로리가 낮고 바타르신이 풍부하여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벨리니는 알코올 도수가 낮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문의 02-3497-6668 www.lesinsidermeal.com

느낌적인느낌, 커블 스니커즈 출시

온라인 소셜뷰 느낌적인느낌에서 20-30대 젊은 남성층을 위한 커블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특독 튜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에 수즈로 기존 브랜드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을 선보인다. 230mm~280mm까지 사이즈는 다양하니 발이 커 고민이 많던 이들에게도 최선이다!

문의 070-7545-3108 www.kkim.kr



하이랜드 파크 50년산, 한정 상품 출시

영국 싱글 몰트 위스키 하이랜드 파크가 50년산 위스키를 세계에서 한정 상품으로 내놓았다. 딱 단 25병만 생산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스코틀랜드 보석 디자이너 메비르 질리스가 수작업으로 하이랜드 파크 50년산의 병을 디자인했다. 가격은 천천여만원대. 한 잔에 어. 얼마?
문의 070-715-0304



(주)필립스전자, 국내 최초 인체 공학 청소기 에르고핏 출시

필립스 청소기 에르고핏(ErgoFit)은 두 개의 손잡이로 이루어진 특허 받은 '하리 굽힘 방지 핸들'을 탑재했다. 일반 청소기를 사용할 때 보다 약 70% 이상 하리 굽힘이 개선돼 청소를 할 때나, 청소 후에 누릴 수 있는 하리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문의 02-709-1525



SEIKO, 프리미어 빅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출시

12년 전통의 시계 전문 브랜드 SEIKO에서 프리미어 빅 캘린더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인다. 클래식하면서도 현대함을 잃지 않는 블랙 로 자면에 피터어 크리스탈 글래스와 스틸드 스텝의 조화롭다. 프리미어 빅 캘린더 크로노그래프로 세련되고 품격있는 남성의 스타일을 연출해준다. 가격 87만 원
문의 02-511-382 www.seikokorea.co.kr



(주)훈, 디즈니주얼리 골드 컬렉션 출시!

주식회사 훈의 디즈니주얼리가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위한 프리미엄 골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 골드 컬렉션은 블루 다이아몬드, 블랙 스파넬, 다이아몬드, 루비 등 다양한 천연석을 세팅하여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특징. 특히, 프리미엄 라우팅을 강조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믹스매치 가능하다. 문의 02-514-9006

OLZEN, 브리티시 감성의 체크 머플러 출시

OLZEN올젠은 2010년 가을/겨울 레드컬러의 스코트랜드체크, 멀티컬러 강령체크 등 더 따뜻하고 포근한 컬러와 무늬로 다양한 디자인의 올 100%의 캐시미어 체크 머플러를 선보인다. 올젠의 체크 머플러와 몇 가지 실용성을 동시에 잡아보자.
문의 02-544-9006



미니골드, 다이아몬드 컬렉션 기프트 출시

미니골드가 다이아몬드 컬렉션 기프트를 출시했다. 선물용으로 좋은 이 제품은 다이아몬드만의 감이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출한다. 자연이 놓은 다이아몬드 천연의 빛과 신바람나는 팬시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장인 장인으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수공 세팅하는 기술을 더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문의 02-2103-4464



머렐, 슈퍼 초경량 남녀 다운 재킷 출시

머렐에서 스타일이 돋보이는 슈퍼 초경량 남녀 다운 재킷을 출시했다.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슈퍼 초경량 10 데-이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다. 이는 프리미엄 경량 의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소재다. 켈빙 포인트와 지퍼 포인트를 주어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전국 머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www.merrellkorea.co.kr



프레드 페리, 글로벌 더플 코트 출시

브리티시 모던 클래식 브랜드 프레드 페리가 2010 F/W 시즌 글로벌과 폴리보리온 한 더플 코트를 내놓는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브랜드, 글로벌과 프레드 페리의 만남은 최고의 디테일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이번 더플 코트는 소플 단추와 가죽으로 구성된 단추 여민 목 부분을 담아 보는 기능을 살리도록 디자인했다.
www.tredperrykorea.com

엠제이플러스유, 갤럭시S 전용 가죽케이스 선보여

엠제이주얼리 업체 엠제이플러스유의 갤럭시S용 케이스가 갤럭시S 사용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갤럭시S 뒷면 베드린 커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케이스를 장착하는 체인지 커버 방식으로 휴대성과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 99mm 갤럭시S의 슬림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격 44,000원 / www.mplus.co.kr



행복은 Honda를 타고 온다

Ride to Love - Honda

HONDA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는

Honda 스타일의 Chopper

VT1300C

36" 프론트 포크 앵글 / 하이 스티어링 마운트 / 컬러: Black, Silver

남성적인 매력이 빛나는

Classic Retro 스타일

VT1300C

깊고 깊은 디자인의 헬더 / 매너 비스 장착가능 / 컬러: Black



도시를 유혹하는 세련된

Urban Pro-Street 스타일

VT1300C

21인치 프론트 휠 / 15인치 리어 휠 / 컬러: Black, Red



마침내 남자의 로망이 완성된다! Honda VT1300 시리즈

Honda V-TWO-WIN 페스티벌

10월 31일까지

1

무이자 리스 지원

(선입금 50% 선납, 12개월 할부리스 사)

2

취·등록세 지원

* 두 가지 혜택 중 택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식딜러

강북 딜러 02) 2272-5282

광주 딜러 062) 527-5050

강남 딜러 02) 566-3670

부산 딜러 051) 621-0032

인천 딜러 032) 502-7777

대표전화 **1577-2700**

Honda코리아(주) www.hondakorea.co.kr

MAXIM

SOUTH KOREA

PEUGEOT vs SMART

MINI의 상상력



임정희
RETURNS

소녀시대를 갖는 법

영웅본색
vs 무적자

인생퇴겔 게임 3선
팩션 소설
이달의 공연
미드 기대작 3

그녀를 녹여버릴
발 맛사지 비법

Dr.MAXIM 불안장애

TODAY IS
GIRL'S DAY

MAXIM STYLE

GOOD FOR MAN

차가운 도시남자의 아이템
피부 수분 공급 프로젝트
꽃미남 되는 레이저 시술

진짜 여신 20걸
AV 레이블 총정리
서울시 타임캡슐 다시 열어보기

카레향의 섹시함
MAXIM INDIA



Midas Touch

icon: **김창환**

2010년 11월호
정가 4,900원